

총괄

이진면(연구위원)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국내경제 최 원(선임연구원)

김세중(선임연구원)

금융경제 최이섭(연구원)

국내보험시장 동향

생명보험 이경희(전문연구위원)

김세중(선임연구원)

손해보험 김대환(부연구위원)

최 원(선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김세중(선임연구원)

일 · 중 최이섭(연구원)

유 럽 이정환(선임연구원)

최 원(선임연구원)

보 험 동 향

2010년 여름호

목 차

테마진단	1
출구전략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에의 영향 및 과제	1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Microinsurance) 활성화 방안	24
경제금융 동향	39
1. 세계경제	39
2. 국내경제	61
3. 금융경제	71
국내보험시장 동향	79
1. 보험산업 총괄	79
2. 생명보험	81
3. 손해보험	92
해외보험시장 동향	112
미국 동향	112
일본 동향	121
중국 동향	129
유럽 동향	137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151
통계표	164

테 마 진 단

❖ 출구전략 추진에 따른 보험산업에의 영향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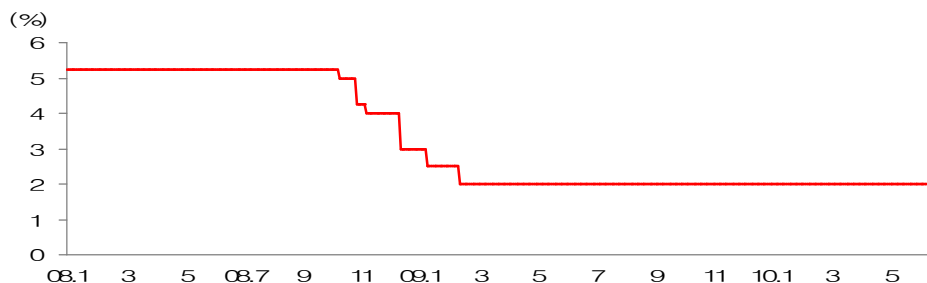
김대환 부연구위원, 최이섭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에 영향을 미침.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보험산업에의 영향을 예상해 보고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함.

-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경기불황의 장기화를 우려한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임.
- 2008년 10월 5.25%인 기준금리를 2009년 2월 2.0%로까지 인하하여 단기간 동안 빠르고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정책을 실시하는 등 위기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실시

<그림 1> 기준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 2009년 상반기 중 정부는 전년동기대비 56.9% 증가한 171.5조원을 집행하고 상반기 중 주요사업비의 65%를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신속한 재정정책을 시행함.
-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하여 주요국 정부들이 실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최근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우리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구전략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금리인상을 중심으로 한 출구전략은 보험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의 가속과 함께 고용사정 및 소득수준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저금리 정책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의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급증한 유동성, 저금리 등은 금융시장 및 경기회복 시 인플레이션 상승, 금융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시기에 정상화시킬 필요
 - 보험상품 계약 시 약속한 예정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아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보험회사에게 시장금리의 변동은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출구전략의 범위는 금융부분, 재정부분 및 기타 다양한 비상조치 해제를 포함하지만 협의의 의미로는 '금리인상(제로금리 기조 탈출)'을 의미하며 금리의 변동이 보험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이에 보고는 출구전략과 관련한 최근의 경제적 여건을 금리인상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금리변동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해서 논하고자 함.
 - 출구전략 시행을 위한 긍정적 및 부정적 경제상황을 논의하고 출구전략의 시기 및 금리인상 수준을 예상
 - 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산업의 변화 및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보험산업에의 영향을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2.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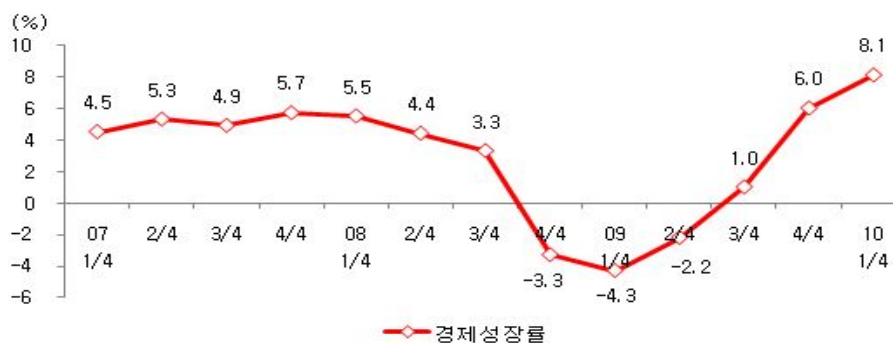
경기회복 속도, 고용, 가계소득 등 경기후행지표들이 개선되어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부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은 금융시장의 안정 및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인된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인상폭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가. 출구전략 시행 요인

1) 경제성장률

- 최근 우리나라 경기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경기부양과 수출회복이 민간 자생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기선순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음.
 -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효과의 민간부문 파급과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동시적 개선에 기인하여 경제성장률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
 - 2010년 1/4분기 8.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경제성장률이 5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뚜렷한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은 2009년 3/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내수부문은 민간소비가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도 2009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기선순환적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됨.

<그림 2>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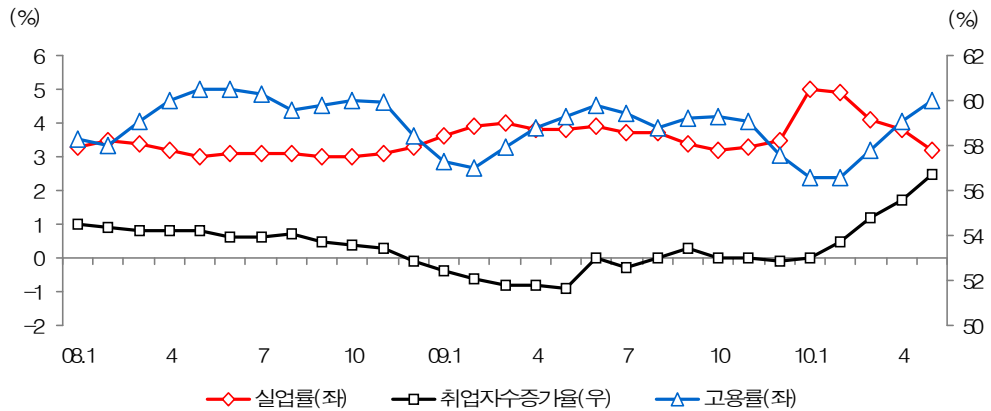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다만, 2010년 1/4분기의 고성장은 2009년 1/4분기의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기저효과의 영향도 작용함.
- 특히,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 8.1% 중 민간기여도가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9년 1/4분기 민간기여도가 -6.2%임을 감안할 때 민간기여도에서도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음.

2) 고용시장

-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따라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민간주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한 수준까지 다다름.
- 고용시장 환경은 민간주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출구전략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됨.
- 취업자 수는 2010년 1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5월에는 2.5%까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고용률은 60.0%까지 개선된 반면 실업률은 3.2%까지 감소함.
- 수출 및 내수경기 호조로 고용시장 환경의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

<그림 3> 고용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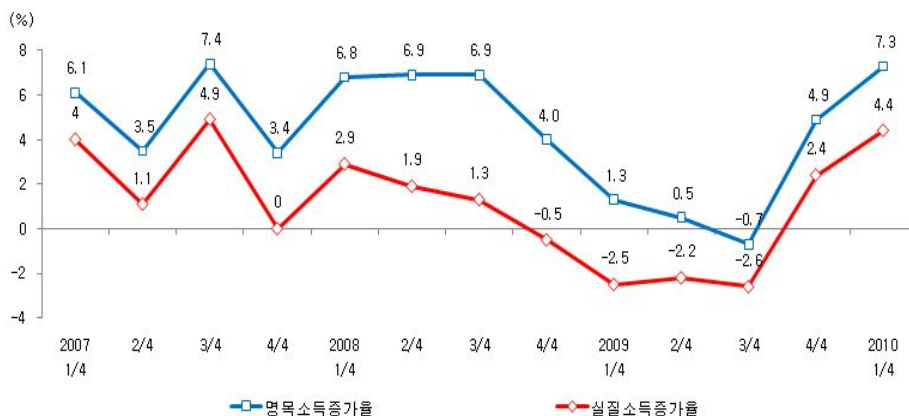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소득

- 금융위기 시 급감하던 가계소득이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고용시장 여건 개선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3/4분기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낸 가계소득이 2009년 3/4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2010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2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나 증가했으며, 실질소득도 4.4% 증가
- 가처분소득도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면서 소비지출 개선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

<그림 4> 소득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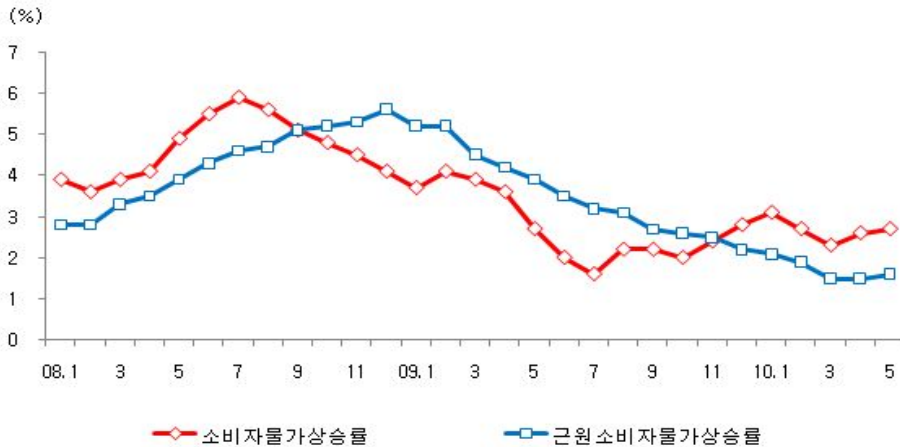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나. 출구전략 지체 요인

1) 물가

-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는 과도한 유동성을 유발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시급성은 높지 않음.
- 최근 금리인상을 시행한 인도 및 브라질은 2010년 들어 도매물가(인도)와 소비자물가(브라질)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함.
- 반면, 우리나라는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째 둔화되면서 2.7%를 기록하여 한국은행의 물가목표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모습이며,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Core CPI)도 1.6%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3%±1%를 달성목표로 채택하고 있음.

<그림 5>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수입물가는 지난 2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에 상승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함.

- 최근 수입물가의 상승세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화 환산 가격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다만, 남유럽 재정위기문제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경우 원화의 절상수준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남유럽 재정위기

□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유럽(PIIGS¹⁾) 재정문제가 유럽지역의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2009년 말부터 시작된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로지역과 IMF는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리스 지원안에 합의하고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강화방안에까지 합의하면서 남유럽국가들의 연쇄도산의 가능성은 감소함.

<표 1> 그리스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안

(단위 : 달러)

일 자	지원 규모	지원 주체
2010년 4월 11일	450억	EU: 300억, IMF: 150억
2010년 5월 3일	1,100억	EU: 800억, IMF: 300억
2010년 5월 10일	7,500억	EU: 5,000억, IMF: 2,500억

- 유럽안정메커니즘 합의 후 국제금융 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에 기반한 다양한 리스크들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신 2009년 13.6%에 달하던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3% 이내로 감소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이행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팽배함.
 - 구제금융 규모와 주요국 정부의 입장에 기반하여 평가할 때 구제금융의 실패 가능성은 낮지만 그리스의 높은 국가채무 수준과 낮은 수출경쟁력은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유로지역에 속한 그리스는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 부실가능성이 높은 남유럽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 및 대출을 억제하는 반면, 기타 금융기관들은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제공을 기피하면서 신용경색의 가능성이 존재함.
 - 최근 LIBOR금리는 3월 중순까지 0.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6월 초 0.5%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여 은행 간 자금 공급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1)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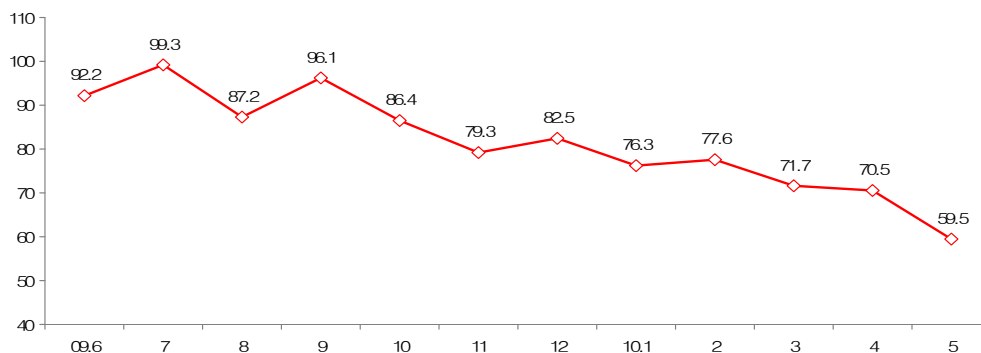
- 아직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對유럽수출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유럽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수출이 크게 감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다만,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유로지역의 수출이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남유럽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로지역의 성장세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음.

3) 부동산시장 침체

-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는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시장이 경착륙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5월 CBSI는 전월대비 11p 내린 59.5를 기록함.
- C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하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의 의미
- 통상 3월부터는 비수기가 끝나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함.
-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개인의 신용위험지수도 최근 상승추세에 있음.²⁾

2)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2010.4.6

<그림 6>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2010.5

다.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전망

- 기준금리 인상은 세계경제의 회복속도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뒤늦은 출구전략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 IMF는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성 확보 및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 출구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³⁾
 - 또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성급한 출구전략 실시보다는 비정상적인 조치들을 오히려 지속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
 -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를 인상시켜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을 상승시키는 통로를 통해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유발하는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을 위축시킬 수 있음.
 - 하지만 뒤늦은 출구전략은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치유하기 힘든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함.

3) IMF, "Global economic prospects and principles for policy exit," November 2009

- 실제로 주요국들은 성급한 출구전략 또는 뒤늦은 출구전략으로 인한 위험을 경
험한 바 있음.
- 일부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 시
행을 위한 전반적인 여건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금리인상은 후반기에 시
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경기부양과 수출회복이 민간 자생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기선순환적 구조가
형성되어 출구전략 시행을 위한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풍부한 유동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금리정책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유발할 수도 있음.
- 경기회복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도 인상
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잠재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다만,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문제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영향이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미칠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출구전략은 2/4분기 국내 경제지표를 확인한 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출구전략을 시행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과 투명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인상폭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
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3. 저금리 기조 및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보험산업에의 영향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해지율은 감소하고 보험영업의 성장성
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겠지만, 투자영업 부분에서는 자산운용 수익률 악화를 초래
할 것임. 출구전략이 시행되더라도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에 당분간 타 금융권 상품 대비 보험상품의 경쟁력은 유지되는 반면 이차역마진에
대한 부담은 잔존함.

가. 보험영업 측면

1) 특정 보험상품의 수요 변화

□ 출구전략이 시행되더라도 타 금융권 상품 대비 보험상품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특정 보험상품에 국한될 것임.

○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보험상품 수요도 증가하였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보험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됨.

○ 출구전략이 시행되더라도 금리의 인상폭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 금융상품 대비 보험상품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금리의 변동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상품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금리와 연계성이 강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경기회복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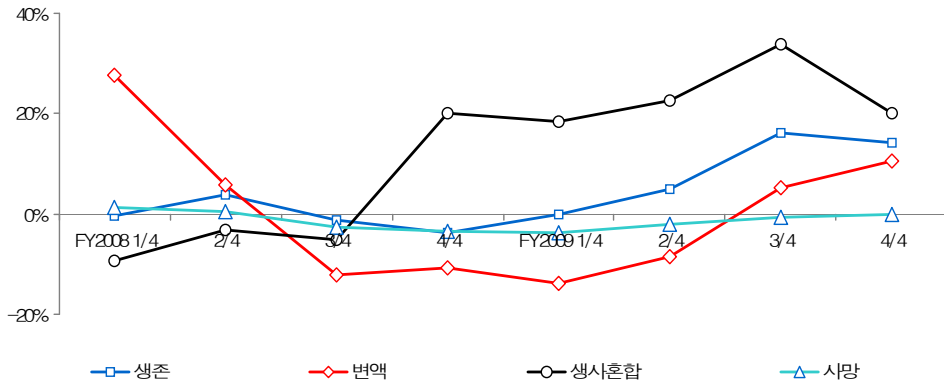
□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는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 그리고 투자형 보험상품의 강세가 유지될 것임.

○ 세계 측면 뿐만 아니라 금리측면에서도 우위를 갖는 저축성 상품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로 인해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이 지속될 것임.

○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 투자형 보험상품의 상대적인 메리트가 증대될 것이며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시중의 부동자금이 변액보험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40%정도를 차지하는 사망보험에 비해 저축성 보험 성격이 강한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과 투자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의 성장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음.

<그림 7> 생명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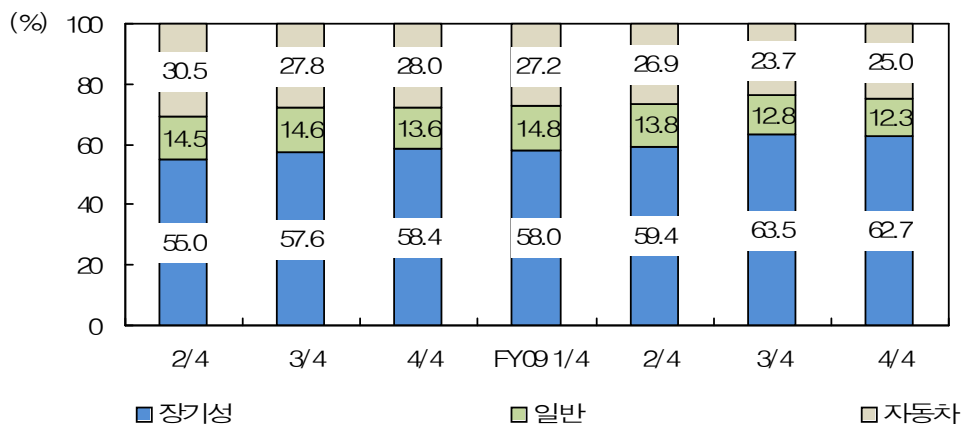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상품 중 금리와 연계성이 가장 높은 장기성 손해보험⁴⁾의 강세가 유지 될 것임.

- 금리의 변동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은 금융 시장환경 변화보다는 주로 일반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임.
- 반면, 상품구조가 금리변동과 연계성이 높은 장기성 손해보험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동시에 금리의 인상정도는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전체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임.

4) 손해보험상품은 크게 장기성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장기성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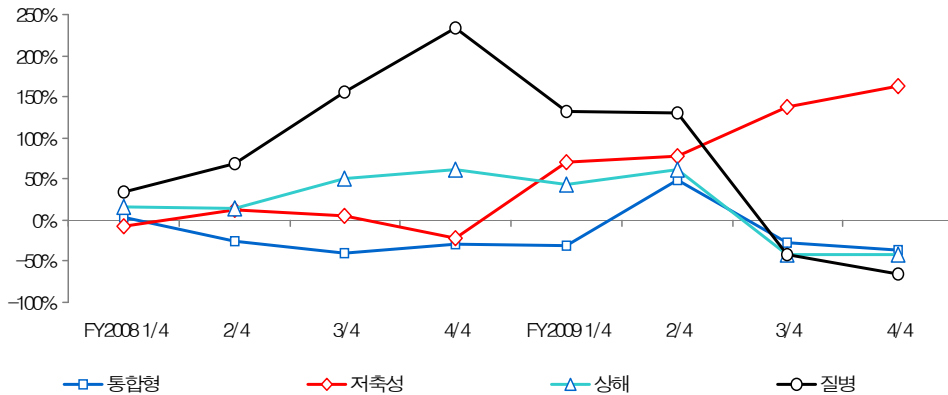
<그림 8> 손해보험의 종목별 비중 추이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를 견인한 종목은 상해 및 질병보험 등 실손의료보험과 저축성 보험인데 두 상품간의 성장원인은 동일하지 않음.
 - 실손의료보험시장의 성장은 계속보험료의 안정적인 유입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저축성 보험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초회보험료의 성장에 기반함.
 - 출구전략이 시행되더라도 저축성 보험의 경쟁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손해보험시장에서도 저축성 보험의 중요성이 검증될 것임.

<그림 9> 장기손해보험의 종목별 초회보험료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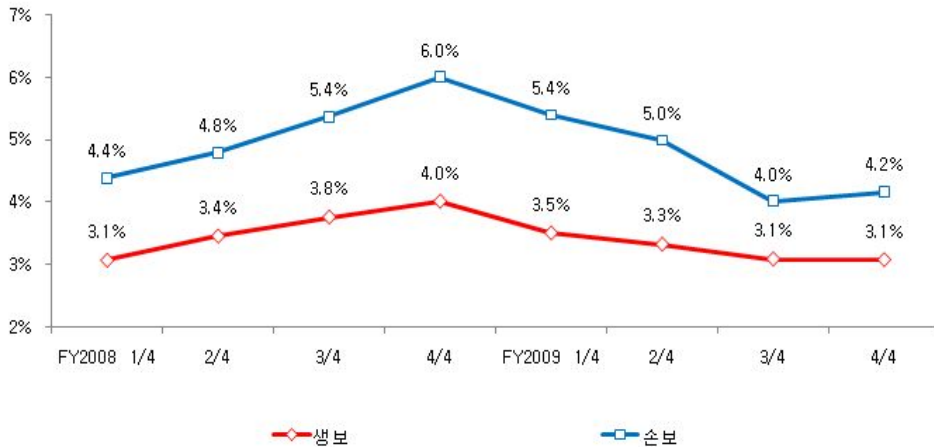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해지율

□ 출구전략이 시행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해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의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 가입·유지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지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높음.
- 생손보 분기해지율은 2009년 2월 기준금리가 2.0%로 인하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생명보험 분기해지율은 FY2008 4/4분기에 4.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손해보험의 분기해지율은 생명보험의 분기해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패턴은 동일

<그림 10> 생손보 분기별 해지율 추이



주 : 1) 손해보험 해지율은 장기손해보험 부분의 해지율임.

2) 해지율=(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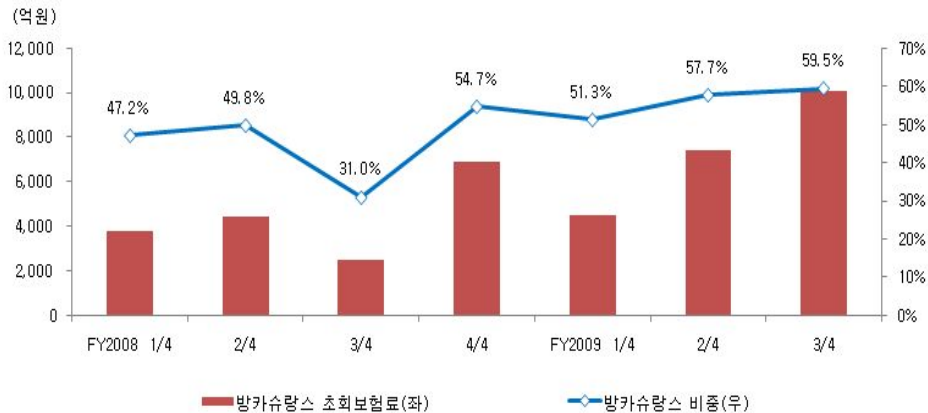
자료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판매채널의 점유율 변화

- 저금리 기조에 따라 생명보험시장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⁵⁾
- 저금리 기조와 함께 생사혼합보험의 초회보험료가 급증함에 따라 저축성 보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방카슈랑스의 역할이 증가
 - FY2008 1/4분기 47.2%였던 방카슈랑스의 초회보험료비중이 FY2009 3/4분기 59.5%까지 증가하였으며, 기준금리가 소폭 인상되더라도 당분간 판매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중요성은 유지될 것임.

5) 손해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에 대한 판매의존도가 5% 정도에 불과하여 저금리 및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판매채널에의 영향은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논의함.

<그림 11>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및 비중 추이



주 :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의 초회보험료를 이용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저축성 보험의 성장은 방카슈랑스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보험시장에서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임.
- 방카슈랑스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점증됨에 따라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성장세가 지속
- FY2009 3/4분기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과 허핀달지수⁶⁾가 급증한 이유는 일부 대기업이 대형 보험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허핀달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6) 허핀달지수(HHI)는 기업을 매출액이나 자산규모 순으로 배열하고 시장점유율을 각각의 %로 계산한 후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지수로 시장집중도 측정방법의 하나이며 HHI의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함.

<표 2> 생명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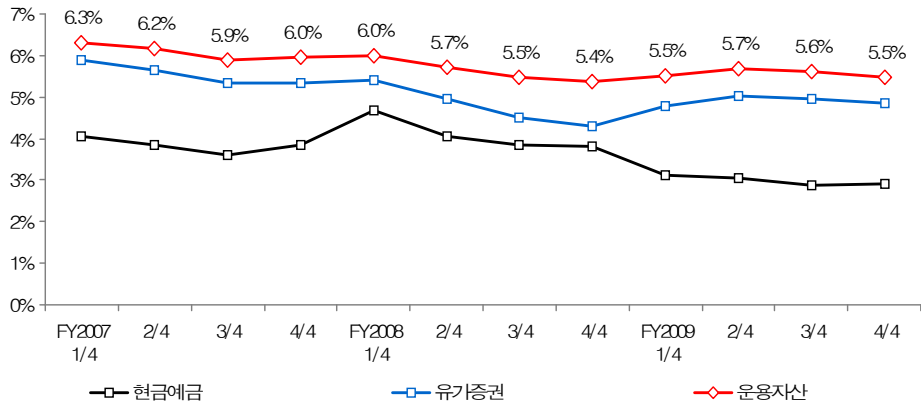
구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2/4	3/4	4/4
상위 3개사	54.3%	53.9%	57.1%	53.3%	53.6%	52.9%	57.4%	51.8%
국내중소형사	23.4%	23.5%	23.2%	25.4%	25.0%	24.9%	23.4%	26.3%
외 국 사	22.3%	22.7%	19.7%	21.3%	21.4%	22.2%	19.2%	21.9%
허편달지수	0.1257	0.1242	0.1365	0.1216	0.1217	0.1200	0.1449	0.1172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투자영업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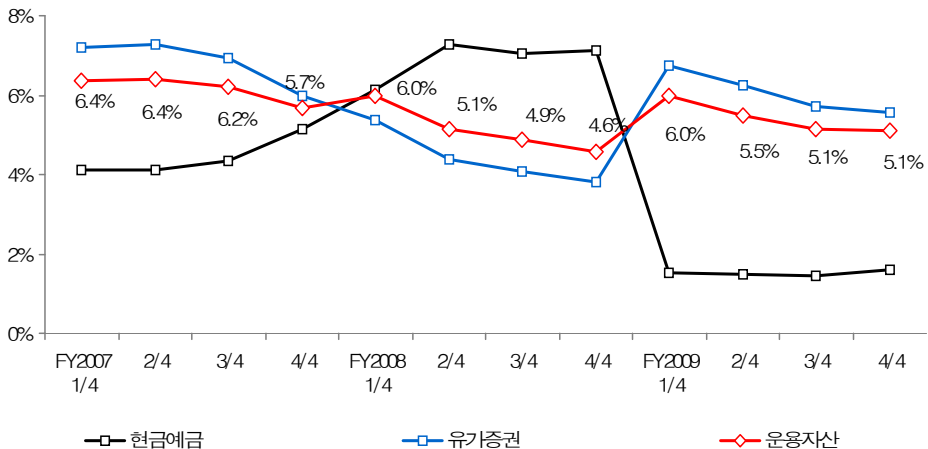
- 보험상품은 장기적이고 전통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이차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과거부터 고금리상품을 판매했으며 최근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도 타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반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자산운용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현금예금의 이익률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한 FY2008 3/4분기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함.
 - 유가증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산운용 이익률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시기에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구입한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채권을 시가 평가하거나 매각익이 실현됨에 따른 것이며, 이후 저금리 기조 하에서 자산운용 이익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음.

<그림 12>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이익률 추이



주 :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3>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이익률 추이



주 :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자산운용 수익성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금리인상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과거 고금리시절에 구입한 채권이 소진되고 운용자산 중 저금리 수준을 반영한 채권의 비중이 운용자산에 점차 증가하면서 이차역마진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음.

4.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대응과제

출구전략이 시행되더라도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판매극대화를 위한 고금리 위주의 보험영업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리 시나리오별 자본여력을 분석하고 자본여력이 충분한 보험회사는 저금리 기조를 활용한 공격적인 보험영업을, 자본여력이 부족한 보험회사는 사차익 및 비차익을 강화하고 보장성 상품, 변동금리형 및 실적 배당형 상품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보험영업 측면

- 수익률 개선보다는 판매극대화를 위한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어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만한 과당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저축성상품과 퇴직연금보험 등 금융업권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고금리를 보장하는 판매전략 위주로 과열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고금리에 근거한 경쟁전략은 판매극대화 및 수입보험료의 성장을 유도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판매극대화 전략을 통해 수입보험료가 충분히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구전략과 함께 자산운용 수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워 고금리 제공은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이차역마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예정이율 및 최저 보장이율을 적극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 개별 보험회사별로 자본여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보험 영업 전략의 다양화 및 차별화 필요
- 저금리 상황 하에서도 자본여력이 충분한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적인 보험영업을 통해 고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자본여력이 부족한 보험회사들은 영업효율 향상과 언더라이팅을 활용하여 사차익 및 비차익을 강화하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
 - 저금리 기조는 보험회사의 투자영업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기회일 수 있으므로 판매극대화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비용감소 등 영업효율 향상
 - 저금리 기조 하에서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고금리확정형⁷⁾ 상품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반면 보장성 상품, 변동금리형 및 실적 배당형 상품(변액보험, 변액유니버설, 변액연금, 유배당 보험)을 적극 활용
 -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상품설계 때부터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가격의 손실가능성(시장리스크)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짧게 하고 갱신형으로 판매하여 새로운 기초율을 적용

나. 자산운용 측면

- 보유자산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다양한 금리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익률 분석은 저금리 기조 및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출발점
- 보유자산을 평균예정이율별 그리고 잔존 만기별로 구분하고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리변동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이차역마진에 대한 가능성, 이차역마진의 규모 및 이차역마진의 해소 가능기간 등에 대해 분석해야 함.
 - 우리나라는 장기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보험회사들의 부채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보다 긴 네거티브 듀레이션(Negative Duration)⁸⁾을 나타

7) 2000년대 중반부터 보험회사들이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비중을 과감하게 감소시켰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금리확정형 보험상품의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리확정형 퇴직연금도 꾸준히 판매하고 있음.

내기 때문에 금리 시나리오별 수익률 분석은 저금리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됨.

- 대형사, 중소형사 및 외국사별로 자산듀레이션 등 보유자산의 성격이 다르므로 자사의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상품개발 시점부터 자산부채매칭(ALM)을 통한 자산운용을 고려하여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과거 고금리시절에 구입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재투자율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으므로 출구전략이 현실화되는 시점까지 당분간 단기 위주의 자산운용이 적합
- 자산부채매칭만 활용해서는 미래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운용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식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의 투자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외유가증권과 같은 다양한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개발

다. 금융감독당국 측면

- 금융감독당국은 고금리에 기반한 금융기관들의 과당경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이 필요함.
- 저금리 하에서도 보험회사들이 공격적인 공시이율을 제공할 경우 해약환급금과 보험금이 증가해 신규가입자의 효용은 증대하겠지만, 공시이율이 시장금리와 격차가 벌어질수록 보험회사들은 이차역마진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초래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다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 상황 하에서도 이차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모든 보험회사를 포괄하는 일괄적인 규제는 지양
- 각 보험사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과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 8)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듀레이션은 10년 이상인 반면, 자산듀레이션은 3.5년에 불과함(Kong and Sing, "Insurance Companies in Emerging Markets", IMF Working Paper, 200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참 고 문 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건설사업연구원,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2010.5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2010.4.6

IMF, "Global economic prospects and principles for policy exit," November 2009

Kong and Sing, "Insurance Companies in Emerging Markets", IMF Working Paper, 200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Microinsurance) 활성화 방안

유경원 연구위원

1. 논의배경

금융위기 이후 서민계층의 금융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제는 보험 등 가계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의 경우 중복성, 효율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수년간 국내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사금융이 확산됨.
 - 등록대부업 시장규모는 4.1조원(2007.9)에서 5.9조원(2009.12)으로 확대됨.¹⁾
 -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소외 대상은 민간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의 개인 신용도 평가결과 7~10등급으로 이들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임.²⁾
- 금융위기 이후 서민계층의 금융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16%정도로 특히 저소득계층의 위험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³⁾
 -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저축은행, 신탁 등 서민금융회사는 서민대출을 줄여 나가는 추세임.
 - 저신용계층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 부담 등 서민 생활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⁴⁾

1) 금융위원회,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0.5.19.

2) 2009년 6월 말 현재 신용평가회사인 KCB 기준에 따르면 826만명이 7~10 등급자에 해당

3) 보험연구원, 『2009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9.03

□ 이에 따라 서민금융정책의 핵심은 미소금융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말 출범한 미소금융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창업·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정책당국은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함.⁵⁾
- 저소득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상품은 크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과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구분됨(<표 1> 참조).

□ 그러나,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제는 가계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파악하지 못하며 기존 사업의 경우 중복성, 효율성 등 문제점이 일부 제기됨.

- 다른 계층에 비해 저소득계층은 질병, 실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며 대출이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수단에 대한 니즈가 존재함.
- 서민금융 지원정책 및 제도별로 추진 주체가 다르고 수혜자에 대한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지원의 중복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됨.⁶⁾

□ 저소득계층의 사전적(ex-ante)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수단으로서 대출 이외의 **보험과 같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됨.

- 보험과 같은 사전적 위험대비 금융 수단의 미비와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경제 충격시 저소득계층이 빈곤선상에 놓이게 되며 충격의 경제·사회적 여파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4) 금융위원회의 “20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1.2%로 '09.3월 말 대비 2.8%point 상승하였으며, 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3.9%point 상승하여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당정협의 개최,” 보도자료, 2010.4.7
 6) 서민금융 지원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금융연구원(2010)을 참조하시오.

□ 저소득계층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제한적이고 고비용의 사적 자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저소득계층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액보험 사업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살펴보고 소액보험사업의 현황 및 시장 여건 검토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표 1> 저소득계층 지원 대출상품

	대상	관련기관	내용	대출한도
미소금융	7등급 이하	미소금융중앙재단	창업 및 운영자금	500-5,000만원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6-9등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창업 및 운영자금	300-2,000만원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융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업 및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개선, 운영, 고금리차환자금	신용회복 프로그램 성실행자	신용회복위원회	창업 및 운영자금	200-1,000만원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근로자 등	서민금융회사 (농,수협, 저축은행 등)	생활자금	500만원 (사업자금은 1,000-5,000만원)
저신용 근로자 지원대출	5등급 이하	신용협동조합	생활자금	1,000만원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6-9등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생활자금	500만원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월평균 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자금	700-1,000만원
희망홀씨	7등급 이하	시중은행	생활자금	200-2,000만원

2. 취약계층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

보험은 특히 저소득계층에 있어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소득 및 자산 수준의 하락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전적(ex-ante)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낮은 소득과 상품의 제한으로 인해 이들 계층의 보험접근성은 취약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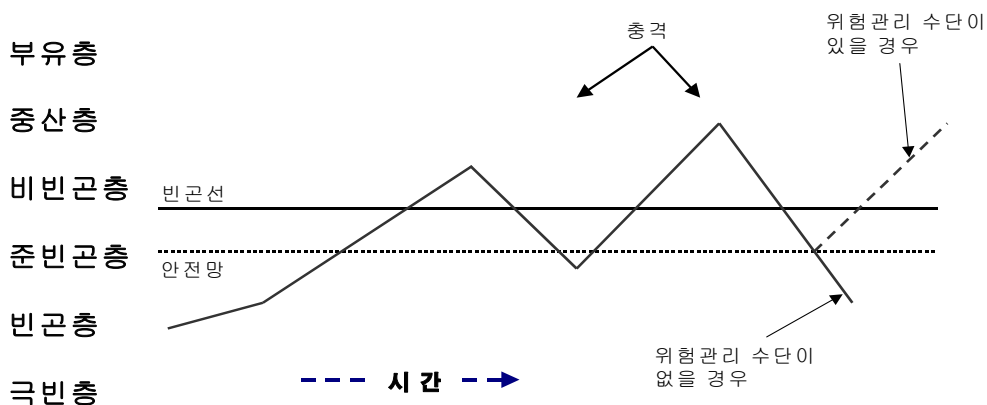
- 사회·경제적 충격에 직면하여 이로 인해 지출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계층은 금융, 실물, 인적 자산 등을 동원하여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조달함.
- 저소득계층은 대부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지출 조정, 보유자산의 처분, 추가적인 소득수단의 확보, 친척 등으로부터의 대출 등과 같은 자체조달 및 사적 방식에 의존함.
- 예비적 또는 사전적인 리스크관리 수단의 부재와 제한된 소득수준으로 인해 저소득가계는 대부분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의 사후적인 방법에 의존함.

<그림 1> 가계 위험요소와 대응



- 보험과 같은 사전적 위험대비 수단의 미비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경우 저소득 계층은 빈곤선상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충격의 여파로 빈곤 탈출이 어렵게 됨.

<그림 2> 경제적 충격에 의한 효과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저소득 및 빈곤계층으로 몰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었음을 시사함.
- 중산층의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4%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며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약 7% point로 나타난 반면 상류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3% point에 해당함.

<표 2> 중산층 규모 변화 추이

		1996			2000			2006		
		시장	가처분	경상	시장	가처분	총소득	시장	가처분	총소득
중위소득 대비 가구비중 (%)	빈곤층	11.7	11.2	11.1	17.3	15.7	15.4	21.2	17.9	17.4
	중산층	68.0	68.4	68.7	58.8	61.8	61.1	53.6	58.4	58.5
	상류층	20.2	20.3	20.0	23.7	22.3	23.3	25.1	23.5	24.0

자료 : 유경준·최바울,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 동향』, KDI, 2008.

- 이들 계층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안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빈곤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어 사회가 양극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경우 보다 다양하고 그리고 부담가능한 위험관리수단이 제공될 필요가 존재함.

- 보험은 사회·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소득 및 자산 수준의 하락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낮은 소득과 상품의 제한으로 인해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은 취약한 실정임.
- 현재와 같은 서민계층의 대출 접근성 확대는 사후적 방안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경우 오히려 이들 계층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도 제기됨.⁷⁾

3. 소액보험사업의 특징과 현황

저소득 취약계층을 목표고객으로 삼는 소액보험 사업에 대한 관심은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소액대출(microcredit) 사업에 비해 사업규모나 추진이 부진한 실정임.

가. 소액보험사업의 특징

- 소액보험사업은 목표고객이 저소득계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인 보험과 비교하여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이외의 보장대상, 운영주체 등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음.
 - 운영주체의 규모도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 중심의 소규모 및 비공식적 단체인 경우가 많으나, 대형 민영보험사도 소액보험상품을 공급
 - 소액보험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민영보험사가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을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보험을 공급하고 각종 기금 및 기부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Partner-Agent 모델이 일반

7) 금융연구원,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금융VIP 시리즈, 2010-05

적 형태임.⁸⁾

□ 소액보험상품의 경우 목표고객이 저소득계층이라는 것 이외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함.

- 보험계리적 계산이 어려움.
- 저가형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수적이므로 궁극적으로 비용효율화 달성이 필요함.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의 시장실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표 3> 일반 보험상품과 소액보험상품의 주요 특징 비교

구 분	일반 보험상품	소액보험상품
보험료 납부방법	- 자동이체 또는 사용자로부터 수금	- 현금 납부 - 그 밖의 대출상환 등과 연계
판매책임	- 판매채널은 판매책임만 부담	- 고객과의 전반적 관계관리
목표고객	- 부유층과 중산층	- 저소득계층
이해도	- 수요자는 보험에 익숙	- 보험에 대한 교육이 필요
판매자격	- 자격 있는 판매조직	- 종종 자격 없는 판매조직도 이용
가입금액	- 비교적 큼	- 비교적 작음
보험료 산출	- 연령과 특별한 위험에 기초한 책정	- 공동체나 그룹에 따라 결정
인수기준	- 제한적 인수판정	- 대체적으로 허용
보험약관	- 복잡한 약관	-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약관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	- 비교적 간편한 절차

나. 소액보험사업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8) 이석호, “저소득층 보험가입 확대방안,” 주간금융브리프, 제17권3호, 금융연구원, 2008.1

□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주로 위치한 세계 100대 빈곤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800만 명이 소액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액보험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에서 소액보험이 가장 활발함.
- 운영주체별로는 민영보험사와 NGO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아시아지역은 NGO가, 미주와 아프리카 지역은 민영보험사가 주로 활동함.
- 이미 90년대부터 AIG, Prudential, Allianz, Zurich, Swiss Re, Munich Re 등 글로벌 민영 보험사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세계 저소득 국가에서 지역 NGO와 함께 소액보험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음.

□ 생명보험 상품의 60%, 보상받는 계약자수의 36%가 대출과 연계된 신용생명보험 상품임.

- 대부분의 상품은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신용손실을 보상
- 저렴하고 간단하며 단기간이고 최소한의 언더라이팅과 위험관리가 필요
- 동 보험을 통해 대출기관은 위험이 완화되지만 계약자 유족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규모가 축소되는 단점도 존재

□ 반면, 손해보험은 소액보험으로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소액 손해보험 상품은 사기, 도덕적 해이 등의 위험이 크고 상품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보험사만이 제공함.
- 많은 국가에서 농작물보험 상품 도입을 시도했으나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 문제로 실패하고 있음.

2) 국내

□ 우리나라에서도 소액보험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소액대출(microcredit)에 비해 사업추진은 부진한 실정임.

- 미소금융재단의 2010년도 총사업규모는 2,228억원으로 이중 미소금융(소액대출)사업이 2,178억원으로 9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액보험사업은 2.2%에 불과함.

- 소액보험사업의 경우 휴면보험금의 원금 보전을 위해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소액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에서도 2010년부터 소액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2010년도 미소금융재단의 소액보험사업은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한 50억원의 예산이, 우정사업본부의 '만원의 행복보험'은 23억원의 재원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 중임.
 - 미소금융재단의 소액보험사업은 차상위계층 빈곤아동·부양자(한가정, 조손가정 등), 장애인 시설, 다문화가정 등의 상해 및 생명보험 가입을 지원함.
 -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가입자가 1년에 1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각종 상해 위험을 보장해주며 우체국 공익재원을 활용해 3만 5천원의 보험료 중 약 71%인 2만 5천원을 지원함.

<표 4> 국내 추진 소액보험 사업

	대상	관련기관	보장내용	계약기간/보험료
소액보험상품 (각 보험사)*	아동: 0-12세 부양자: 20-76세	미소금융 중앙재단	후유장해 보험금: 아동 최고 1,000만원, 부양자 최고 5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시 500만원 아동 사망시 이미 낸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3년 만기 일시납으로 190만원 안팎. 보험료는 미소금융재단이 약 95% 부담
만원의 행복보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장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상해위험 보장 재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 입원 시 치료비의 90% 통원치료비는 1년간 전액 보장	본인 부담 연 1만원 우정사업본부 공익재원에서 보조

주 : 무배당 꿈사랑 보험(LIG 손해보험), 무배당 희망사랑보험(대한생명)

4. 국내 소액보험사업의 시장여건

국내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보험 니즈는 높으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실제 가입은 저조한 반면, 공급자는 저소득계층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 공급을 꺼리고 있어 소액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여건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가. 수요여건

- ☐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건강상태의 열악, 각종 위험에의 취약, 사회보장의 부족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비한 보험수요가 큰 편임.
- 보건복지가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은 장애인과 만성질환자가 많아 장애인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큰 편임.
- 저소득계층의 경우 보험에 대한 수요는 중·고소득계층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소득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보험가입률이 저조함.
- ☐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당 보험 가입률의 차이는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가입률 차이가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7.8%p,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25.4%p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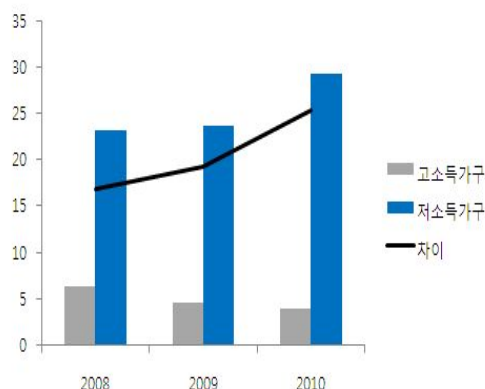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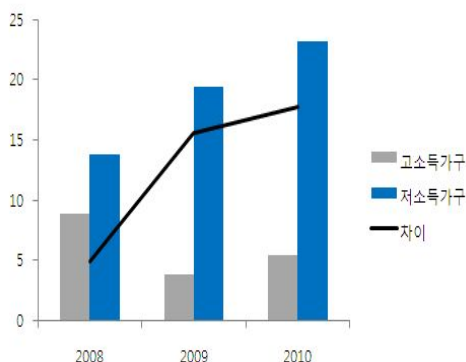
<표 5> 가구당 보험 미가입률 : 특성별

(단위 :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소 득	저소득	23.2	29.3
	중소득	7.0	7.6
	고소득	5.4	3.9
주택 소유여부	소유	9.2	10.5
	무주택	22.1	27.0
전체 미가입률		12.0	14.1

-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미가입률 차이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2008년 4.9%p에서 2010년 17.8%p, 손해보험은 2008년 16.8%p에서 2010년 25.4%p로 확대됨.

<그림 3> 생명보험 가구당 미가입률 <그림 4> 손해보험 가구당 미가입률



- 한편, 소액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높거나 보험금이 낮게 책정되어 보험 수요자 입장에서조차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소액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 당장의 필요지출을 포기하면서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 대비를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저소득계층은 많지 않은 실정임.
- 반면, 최근 우체국 소액보험의 빠른 가입실적은 소액보험이 적절한 상품과 지원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
 - 우정사업본부가 판매하고 있는 소액보험의 경우 올 1월 첫 판매를 시작해 3개월만에 2만명의 가입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10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
 -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보험가입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저소득계층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나. 공급여건

- 보험회사 입장에서 소액보험은 손실 가능성이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저소득계층의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
 - 저소득계층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보험상품 개발이 어려움.
 - 소액보험의 특성상 낮은 보험료로 인해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필요하지만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대수의 법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음.
- 국내 보험시장에서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저소득계층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실제 보험가입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증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 시장여건 조성방안

- 저소득계층은 보험의 니즈는 있으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고, 공급자는 저소득계층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여건임.
- 저소득계층의 보험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소액보험사업을 서민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대출접근성 제고와 함께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
 - ‘한국형’ 소액보험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담가능한 위험관리기제로서의 보험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만을 공유할 뿐 운영방안은 기존의 해외 소액보험사업의 논의와 상이하게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적용될 필요가 있음.

- ‘한국형’ 소액보험사업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는 소액보험 시장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시장접근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소액보험사업을 공적기관의 재원을 토대로 유지할 경우 사업의 유지하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좌우되고 기관의 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수요자의 보험 니즈가 만족되기 어려움.
 - 공급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하고 있는 시장접근방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함.
 - 저소득계층도 민영보험의 목표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 가능한 사업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시장접근방식의 문제는 소액보험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초기 시장조성자의 노력과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시장조성단계에서는 초기 미소금융재단과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공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회공헌기금 등의 재원과 연계하여 현재의 소액보험 사업규모를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형’ 소액보험사업은 소액보험의 제공을 통해 빈곤극복과 예방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현상 완화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음.
 -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빈곤층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소액대출 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저축과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excluded)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 방안 마련이 중요⁹⁾
 - 경제위험으로 부터의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더 나아가 적정한 소액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보장과 아울러 자산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외에서 벗어나 이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함.

9) 지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는 빈곤층 및 중소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그룹(Financial Inclusion Experts Group) 창설에 합의한 바 있으며 전문가 그룹은 ‘포괄금융’(Inclusive Finance 또는 Financial Inclusion)을 통해 금융소외 집단의 니즈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제공하여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 마련을 주도할 예정임.

- ‘한국형’ 소액보험사업은 기존의 극빈층(the poorest of the poor)을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으며 빈곤계층과 경계선상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에 있어서도 소액대출과 연계된 신용생명보험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보험 등 저소득계층의 소득활동과 관련된 위험보장에 중점

5. 결론

저소득계층의 보험가입 확대는 부담가능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여 이들 계층의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하고 보험산업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소액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당국과 보험사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계층의 보험가입 확대는 미시적으로는 저소득계층의 부담가능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하고 보험산업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공급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소득향상 또는 빈곤 탈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함.
 - 보험가입률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속적인 사업모델에 의한 틈새시장 개발로 시장확대가 가능함.
 - 둘째,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셋째,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고함.
 - 소액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보험의 혜택이 더욱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정화에 기여
 - 소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재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의 사회보장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민영보험이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넷째,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소액보험 사업의 활용이 가능함.
 -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들 지역에 적합한 소액보험 상품 공급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와 향후 이들 국가에서의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함.
-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보험이라는 사전적인 수단을 통해 이들 스스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소액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긴요함.
 - 소액보험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공적 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도 저소득계층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공급과 비즈니스 모형 개발을 통해 소액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금융연구원,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금융VIP 시리즈, 2010-05
- 보험연구원, 『2009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9.03
- 보험연구원, 『2010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0.04
- 이석호, “저소득층 보험가입 확대방안,” 주간금융브리프, 제17권3호, 금융연구원, 2008.1
- Craig Churchill, ed., *Protecting the Poor A Microinsurance Compendium*, 2006.
- Jim Roth, Michael J. McCord, and Dominic Liber, *The Landscape of Microinsurance in the World's 100 Poorest Countries*, MicroInsurance Centre, 2007.4.

경제금융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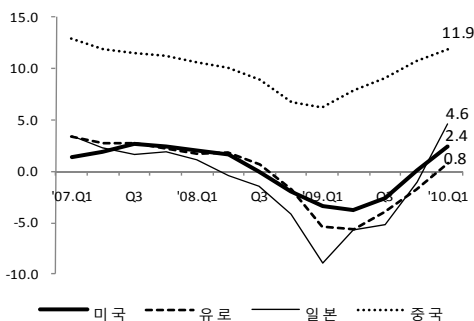
1. 세계경제

2010년 1/4분기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및 글로벌 공조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실질 GDP가 모두 증가세를 시현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임. 다만 유로지역은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지출 축소 움직임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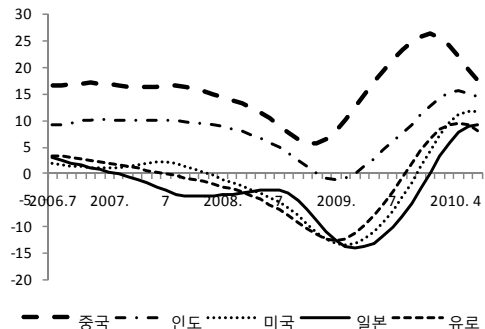
□ 1/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2분기 연속 증가, 일본과 유로 경제의 증가세 전환, 중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시현에 따라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임.

- 미국과 일본은 수출의 증가세 전환, 민간소비의 증가 지속, 투자의 감소폭 축소 등 대외부문과 내수의 동시적 증가로 회복이 가속화되는 양상임.
- 중국은 소비와 수출의 호조세로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가 유지되었으며, 유로지역은 대외부문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투자의 부진 지속으로 회복세가 지연됨.
- 미국과 일본은 경기선행지수 증가세가 유지되어 회복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유로지역의 경기선행지수는 둔화조짐을 보였으며, 빠른 회복세를 시현한 중국은 경기선행지수의 둔화폭이 커짐에 따라 성장 둔화 가능성이 시사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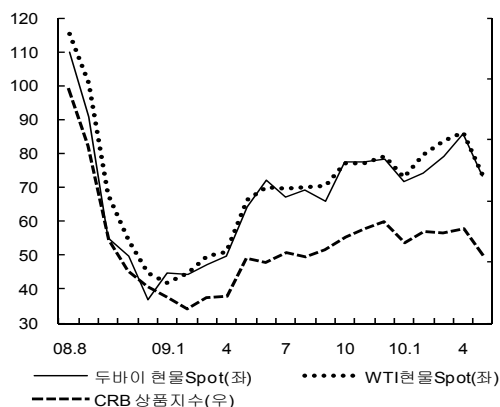
<그림 2>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자료 :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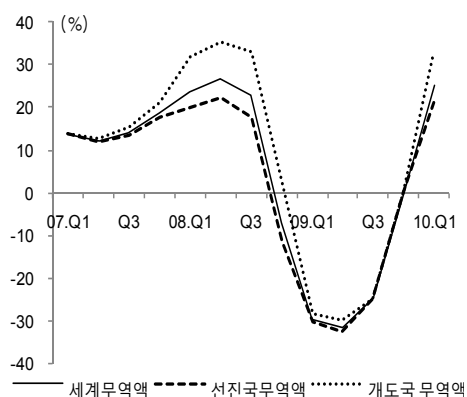
- 국제유가는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와 원유재고 증가로 인해 최근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원자재가격은 생산량 확대 지속으로 인해 하락추세가 유지됨.
- 국제유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해 4월 말 현재 작년 말 대비 9.8% 증가했으나, 5월에는 수요 감소 및 공급 증가로 인해 4월 말 대비 14.3% 하락한 73.7달러를 시현함.
- 농산물과 비철금속은 공급 증가로 인해 소맥, 옥수수, 동, 알루미늄이 5월 말 현재 작년 말 대비 각각 15.5%, 13.4%, 5.9%, 8.3% 하락했으며, 곡물·원유·산업용원자재의 국제가격 평균 수준인 CRB선물지수¹⁾도 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무역액은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각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신흥개도국과 선진국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됨.
- 작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금년 1/4분기 중 25.2%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시현함으로써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임.
- 신흥개도국과 선진국의 무역액은 각각 32.8%, 21.2% 증가함으로써 여전히 신흥개도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가속화되는 양상임.

<그림 3>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4>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자료 : IMF

1)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22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가. 미국경제

2010년 1/4분기 미국경제는 민간소비와 대외부문의 회복세 가속화, 투자부문의 개선 조짐으로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1/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와 수출의 증가세, 투자의 감소폭 축소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함으로써 전분기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임.
 - 민간소비는 내구재, 비내구재, 가계서비스가 각각 6.3%, 1.8%, 0.9% 증가하고, 증가폭도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회복단계에 들어서는 상황임.
 - 설비투자와 주택투자는 각각 2.2%와 4.0% 감소에 그치면서 작년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투자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함.
 - 수출과 수입은 11.5%, 8.3%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됨으로써 대외부문의 회복이 가시화되는 모습임.
 - 정부지출은 연방정부의 지출 둔화와 주정부의 지출 감소 등으로 인해 1.5% 상승함으로써 지출이 억제되는 모습임.
- FOMC는 신용확대 지속, 마이너스 자산효과의 축소, 가계와 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바탕으로 2월에 발표한 2010년 실질 GDP 전망의 상·하한치를 상향 조정함²⁾.
 - 5월에 발표된 2010년 실질 GDP의 FOMC 전망치는 3.2~3.7%로 2월 전망치인 2.8~3.5%보다 하한과 상한이 각각 0.4%p, 0.2%p 상향 조정됨.
 - IMF도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반영하여 작년 11월의 전망치인 2.6%를 상향 조정하여 4월에는 3.1%로 전망함³⁾.

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10.5

3)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0.4

<표 1> 미국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0.4	-2.4	-3.3	-3.8	-2.6	0.1	2.4
민간소비	-0.2	-0.6	-1.5	-1.7	-0.2	1.0	1.6
설비투자	1.6	-17.8	-17.4	-19.7	-19.6	-14.1	-2.2
주택투자	-22.9	-20.5	-23.9	-25.6	-18.9	-12.5	-4.0
수출	5.4	-9.6	-11.6	-15.0	-10.7	-0.7	11.5
수입	-3.2	-13.9	-16.2	-18.5	-14.0	-6.6	8.3
정부지출	3.1	1.8	1.7	2.5	1.9	1.3	1.5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0.6.25

<고용과 물가>

□ 1/4분기 중 실업률은 소폭 낮아지고, 비농업취업자가 2008년 초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사정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임.

- 작년 말 10%까지 높아졌던 실업률은 금년 1/4분기에 9.7%로 소폭 낮아져 상승세가 꺾였으며, 4월에는 9.9%로 소폭 높아진 뒤 5월에 9.7%로 다시 낮아짐.
- 그러나 최근의 실업률은 저학력자, 16~19세의 임시고용직, 단기실업자 위주로 하락함에 따라 질적인 측면의 고용여건 개선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상황임.
- 전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던 비농업취업자는 1/4분기 중 26만1천명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전환됨.
- 광공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났고,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FOMC는 최근 고용여건의 개선 추이를 반영하여 2010년 및 2011년의 실업률 전망치를 각각 9.1~9.5%와 8.1~8.5%로 하향 조정함.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9	2009						2010			
	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실업률	9.3	9.4	9.7	9.8	10.1	10.0	10.0	9.7	9.7	9.7	9.9
비농업취업자증감 ¹⁾	-4,740	-346	-212	-225	-224	64	-109	14	39	208	290
소비자물가 ²⁾	-0.4	-2.1	-1.5	-1.3	-0.2	1.8	2.7	2.6	2.1	2.3	2.2
(근원 소비자물가)	1.7	1.5	1.4	1.5	1.7	1.7	1.8	1.6	1.3	1.1	0.9
생산자물가 ²⁾	-2.6	-6.9	-4.4	-4.9	-2.0	2.2	4.3	4.5	4.4	6.0	5.5
소매판매 ³⁾	-6.2	-8.4	-6.7	-6.5	-2.3	2.0	5.3	2.4	4.8	10.8	9.4
재고/도매판매비율 ⁴⁾	1.29	1.27	1.25	1.23	1.22	1.19	1.17	1.16	1.16	1.14	1.13
주택착공호수 ⁵⁾	-38.8	-34.5	-30.8	-28.8	-34.8	-10.9	-2.9	21.9	2.3	28.1	41.4
주택가격지수 ⁶⁾	198.5	199.2	198.3	197.6	198.2	199.1	195.2	194.1	192.9	193.2	194.7
소비자신뢰지수 ⁷⁾	45.2	47.4	54.5	53.4	48.7	50.6	53.6	56.5	46.4	52.3	57.7
경기선행지수 ⁸⁾	101.9	102.5	103.1	104.2	104.7	105.8	107.0	107.6	108.0	109.5	109.5
산업생산지수 ⁹⁾	98.2	96.8	98.1	98.7	98.9	99.5	100.2	101.3	101.3	101.6	102.3
산업생산가동률	70.1	69.1	70.1	70.6	70.9	71.3	72.0	72.8	72.8	73.1	73.7
재고/출하비율 ¹⁰⁾	1.40	1.39	1.38	1.35	1.34	1.32	1.29	1.24	1.26	1.24	1.24
ISM제조업PMI	46.2	49.1	52.8	52.4	55.2	53.7	54.9	58.4	56.5	59.6	60.4

주 : 1) 증가분 천명, 전월대비 2) 1982-84=100, 전년동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4) 제조업자 직거래 제외

5) 전년동기대비 6)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1991.1=100, 계절조정

7) 1985=100, 8) 2004=100 9) 계절조정, 2002=100 10) 제조업부문, 계절조정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 미국 물가는 경기 회복으로 에너지 등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임.

-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1%대에서 점차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나 에너지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가 2%대로 상승함.
- 생산자물가도 경기회복에 따른 중간재와 에너지에 대한 수요증가 및 기저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1/4분기 중 5%, 4월에는 5.5%로 대폭 상승함.

- FOMC는 2010~2011년의 근원소비자물가를 하향 전망함에 따라 2010년 소비자물가의 상·하한을 하향 조정하여 1.2~1.5%로 전망했으며, 2011년의 소비자물가도 미세하게 하향 전망함.

〈내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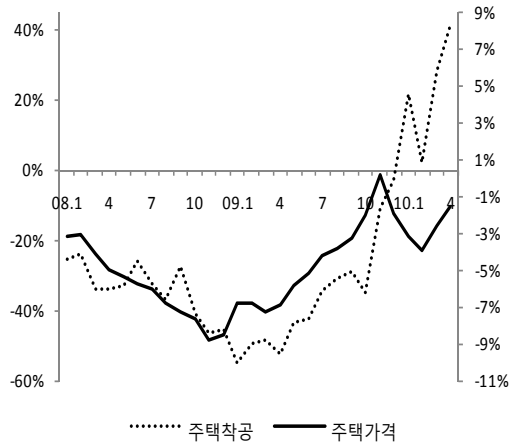
- 1/4분기 중 도·소매판매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내수가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고 재고조정이 꾸준히 진행됨으로써 증가세 유지가 기대되는 상황임.
- 소매판매는 작년 4/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1/4분기에는 6.0% 증가함으로써 회복세가 가속화 되었고 4월에도 9.4% 증가함으로써 호조세가 지속됨.
- 도매판매 역시 1/4분기 중 11.9% 증가하고 4월에도 16.5% 증가함으로써 빠른 회복세를 보여줌.
- 재고/도매판매 비율은 하락세가 지속됨으로써 재고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중 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나 최근 들어 주택착공호수의 증가, 주택가격의 하락폭 둔화가 나타나면서 회복조짐을 보임.
- 1/4분기 중 기존주택의 거래와 기존주택의 가격은 전분기대비 13.9%와 2.6% 하락했으며, 전체 주택가격 수준은 전년동기대비 6.5%p 감소함으로써 주택경기가 여전히 침체된 모습임.
- 그러나 주택착공호수는 17.4% 증가세로 전환되고, 4월에는 기존 주택 거래와 가격이 각각 22.8%, 4.0% 증가함으로써 주택경기가 회복되는 기미를 시현함.
-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여건의 개선을 반영하여 전분기보다 증가하였고, 4월에는 이러한 증가폭이 더욱 커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짐.
-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에 51.7로 증가하여 작년 4/4분기의 50.9보다 증가했으며, 4월에는 57.7을 기록하여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시현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비즈니스 환경, 고용사정 등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체감경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임.

<그림 5> 도소매 판매 추이



주 :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Census Bureau

<그림 6> 주택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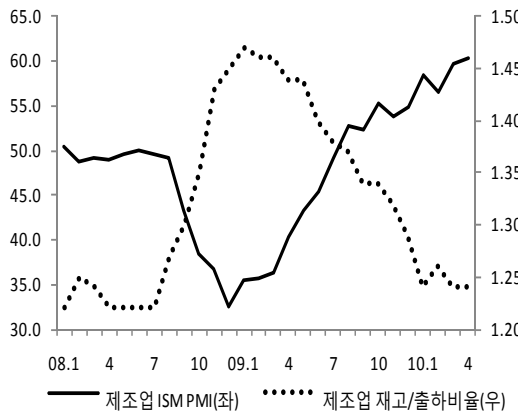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Census Bureau

<생산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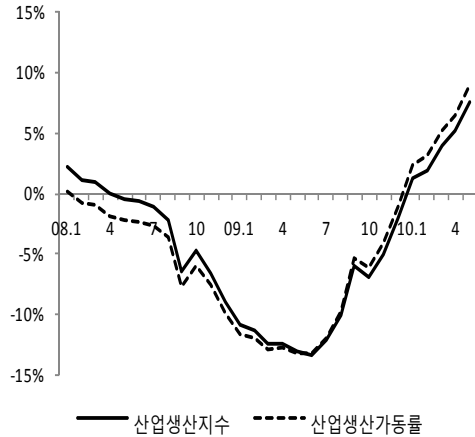
- 생산부문은 둔화세를 보이던 재고고정이 가속화되고, 산업생산지수와 산업생산가동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는 회복세를 보임.
 - 재고/출하비율은 1/4분기에 1.25로 크게 낮아지면서 재고조정이 가속화됨.
 - 산업생산지수는 1/4분기에 101.4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산업생산가동률도 72.9로 가속화되었으며 4월에도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
- 1/4분기 중 ISM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도 생산부문의 빠른 성장이 기대됨.
 - PMI는 주문, 고용, 출하, 재고 등 전체 제조업 관련 지표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작년 4/4분기보다 상승하였고, 4월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짐.

<그림 7> 제조업 ISM PMI와 재고출하율



자료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U.S. Census Bureau

<그림 8>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U.S. Census Bureau

나. 유로경제

2010년 1/4분기 유로경제는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은 대외부문의 호조로 실질 GDP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투자 및 민간소비의 부진 지속으로 경기회복세는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임. 또한 정부부채의 증가로 경기진작이 제한을 받음에 따라 국가 간 성장속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1/4분기 실질 GDP는 수출의 증가세 전환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8% 성장하면서 6분기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지속됨으로써 회복세는 소폭에 그침.
 -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실질가계소득 감소, 고용사정 악화 지속, 주택자산가치 감소, 금융자산가치 손실 증가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유지됨.
 - 투자는 4.9% 감소하여 2008년 4/4분기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낮은 가동률 수준, 기업대출 경색, 저조한 기업체감지수 등으로 인해 투자환경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임.
 - 수출과 수입은 세계경기 회복과 유로지역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각각 6.0%와 5.3%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순수출의 증가세로 실질 GDP 증가에 기여하는 모습임.
- 독일과 프랑스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실질 GDP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있는 상황임.
 - 독일의 실질 GDP는 민간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증가세 전환과 투자의 감소폭 축소에 힘입어 1.7% 증가하였으며 프랑스는 수출과 민간소비의 증가세 전환으로 인해 1.2% 증가함.
 - 재정위기 압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등은 수출의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부진으로 실질 GDP는 감소세를 지속함.

□ 유로위원회⁴⁾는 세계경기 회복과 재고조정에 힘입어 유로지역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였으나, 재고조정의 단기적인 효과가 내수 부진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함.

- 2010년 유로경제는 2/4분기 0.9%, 3/4분기 0.7%, 4/4분기 1.0% 성장하는 상저하 고의 형태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0.9%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은 2010년 3/4분기에 다소 둔화된 후 4/4분기부터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프랑스는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이다가 내년부터 회복세가 탄력을 받고, 영국은 2/4분기부터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EA16 실질 GDP	0.6	-4.1	-5.3	-5.6	-3.9	-1.7	0.8
민간소비	0.4	-1.2	-1.9	-1.6	-1.3	-0.1	0.1
고정자본형성	-0.4	-10.9	-11.6	-12.8	-10.8	-8.3	-4.9
정부지출	2.1	2.3	1.2	2.8	3.0	2.1	2.0
수출	1.0	-12.9	-15.8	-17.0	-13.6	-5.2	6.0
수입	1.0	-11.5	-11.8	-14.7	-12.5	-7.0	5.3
독일 실질 GDP	1.3	-4.9	-6.4	-7.0	-4.7	-1.5	1.7
민간소비	-0.1	-0.1	-0.3	0.4	-0.5	-0.0	-1.2
고정자본형성	4.4	-9.6	-11.0	-11.5	-8.3	-7.2	-1.7
수출	4.7	-24.4	-16.9	-20.1	-15.5	-4.8	7.5
수입	6.0	-14.0	-8.0	-12.9	-10.1	-7.1	4.2
영국 실질 GDP	0.5	-4.9	-5.3	-5.9	-5.3	-3.1	-0.2
민간소비	0.9	-3.2	-3.2	-3.9	-3.6	-2.2	-0.7
고정자본형성	-3.5	-14.9	-12.7	-19.1	-13.7	-14.0	-5.7
수출	1.1	-10.6	-11.6	-13.4	-12.4	-4.8	2.6
수입	-0.5	-11.9	-13.8	-15.7	-13.7	-3.8	4.3
프랑스 실질 GDP	0.1	-2.5	-3.9	-3.1	-2.6	-0.4	1.2
민간소비	0.5	0.6	-0.1	0.4	0.6	1.6	1.6
고정자본형성	0.6	-7.1	-7.4	-7.1	-7.6	-6.2	-4.5
수출	-0.7	-12.0	-16.2	-14.2	-12.2	-5.6	6.3
수입	0.4	-10.5	-10.9	-12.7	-12.3	-6.3	1.7

주 : Euro Area는 16개 회원국으로 구성

자료 : 유로통계청, 독일통계청, 영국통계청, 프랑스통계청

4)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0.5

<표 4>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09	2009						2010			
	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EA16											
ESI ¹⁾	80.8	80.8	84.8	86.7	89.6	91.9	94.1	96.0	95.9	97.9	100.6
실업률 ²⁾	9.4	9.5	9.6	9.8	9.8	9.8	9.9	9.9	10.0	10.0	10.1
소비자물가 ³⁾	0.3	-0.7	-0.2	-0.3	-0.1	0.5	0.9	1.0	0.9	1.4	1.5
소매판매지수 ⁴⁾	100.9	101.7	101.6	101.2	101.8	101.4	102.1	101.8	101.8	102.2	100.9
소비자신뢰지수 ⁵⁾	-24.9	-23.0	-22.0	-19.0	-17.7	-17.3	-16.1	-15.8	-17.4	-17.3	-15.0
제조업기대지수 ⁵⁾	-14.9	-13.4	-7.7	-7.2	-1.7	1.9	3.3	5.2	7.0	9.0	9.0
산업생산지수 ⁶⁾	90.6	89.1	89.4	90.2	90.5	91.7	92.5	94.3	95.1	96.5	97.4
산업신뢰지수 ⁵⁾	-28.4	-29.6	-25.4	-24.4	-20.8	-18.8	-16.0	-13.8	-12.8	-9.9	-7.3
독일											
ESI ¹⁾	83.2	83.1	87.8	89.3	92.4	94.0	95.5	96.1	97.0	100.4	104.7
실업률 ²⁾	8.1	7.6	7.6	7.5	7.5	7.5	7.4	7.4	7.4	7.3	7.1
소비자물가 ³⁾	0.3	-0.5	0.0	-0.3	0.0	0.4	0.9	0.8	0.5	1.2	1.0
소매판매지수 ⁴⁾	97.6	97.5	96.4	96.3	97.4	96.5	98.1	96.0	97.7	96.1	97.3
산업생산지수 ⁶⁾	92.9	92.0	93.6	96.8	95.2	95.9	95.1	96.1	95.9	98.9	99.7
영국											
ESI ¹⁾	77.7	79.8	87.7	88.1	91.3	88.9	95.0	98.2	98.3	100.9	101.7
실업률 ²⁾	7.5	7.8	7.8	7.8	7.8	7.7	7.7	7.8	7.8	7.8	-
소비자물가 ³⁾	2.2	1.8	1.6	1.1	1.5	1.9	2.9	3.5	3.0	3.4	3.7
소매판매지수 ⁴⁾	111.1	112.8	112.5	112.8	113.6	113.7	114.2	110.8	112.7	113.3	113.2
산업생산지수 ⁶⁾	87.9	88.3	85.7	86.8	86.8	87.2	87.9	87.5	88.5	90.3	90.0
프랑스											
ESI ¹⁾	84.2	83.7	85.3	89.9	92.5	94.7	98.6	100.3	98.2	100.5	102.7
실업률 ²⁾	9.5	9.6	9.7	9.8	9.9	10.0	9.9	10.0	10.0	10.1	10.1
소비자물가 ³⁾	0.1	-0.7	-0.2	-0.4	-0.4	-0.2	0.9	1.2	1.4	1.7	1.9
소매판매지수 ⁴⁾	107.2	109.9	110.6	110.1	110.9	110.8	111.5	111.3	111.6	112.5	112.5
산업생산지수 ⁶⁾	87.8	87.5	89.6	88.6	88.4	89.6	89.2	90.3	90.3	91.6	91.2

주 :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채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동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5)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 2010.5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10.5

〈고용과 물가〉

- 1/4분기 중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인해 10%대에 도달함으로써 고용사정의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임.
 - 1/4분기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작년보다 0.2%p 상승한 10.0%를 기록하였으며, 4월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10.1%로 상승함.
 - 독일의 실업률은 1/4분기 중 7.4%로 하락하고 4월에도 7.1%로 하락함으로써 유로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프랑스와 영국의 실업률은 1/4분기 중 각각 10.0%, 7.0%로 소폭 상승했으며, 실업률이 낮았던 네덜란드(4.2%)와 오스트리아(4.9%)도 상승세를 보였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19.2%), 아일랜드(13.1%), 포르투갈(10.5%) 등은 상승세가 빨라지는 모습임.
- 소비자물가는 1/4분기 중 유로화 환율 급등으로 인해 수입에너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승폭이 커졌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임.
 - 유로지역의 근원소비자물가는 1/4분기에 0.7%로 소폭 하락했으나 에너지가격이 4.8%로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4분기에 1.1% 상승하고 4월에는 1.5%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유지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는 1/4분기에 각각 0.8%, 3.3%, 1.4%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도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1.2%), 포르투갈(0.3%)은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유로지역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리스(3.0%)는 급등하는 모습이고, 아일랜드(-2.4%)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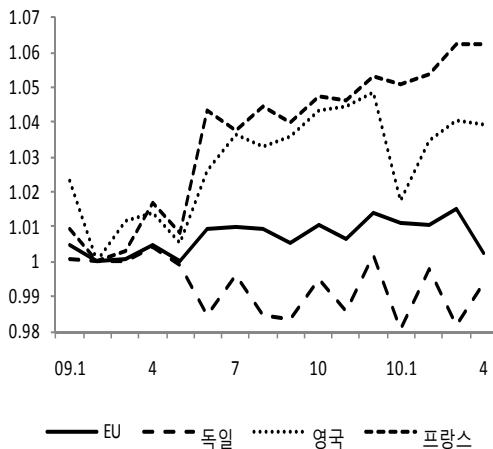
〈내수부문〉

- 1/4분기 중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소폭 증가했으나 4월에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불안정한 추세를 보여주면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임.
 - 유로지역의 소매판매지수는 1/4분기 중 101.9를 시현하여 전분기대비 0.1%p 증가했으나, 4월에는 전종목의 판매 부진으로 100.9로 낮아짐에 따라 2009년 초

수준으로 둔화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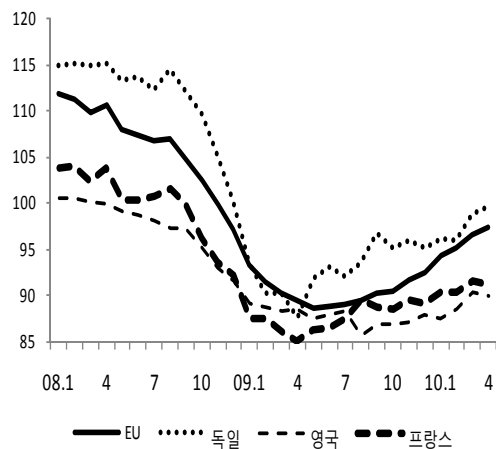
- 독일은 1/4분기 중 소매판매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프랑스는 불안정한 추세 속에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고, 영국은 2010년 초의 급락으로부터 반등을 시도하는 상황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여건의 악화지속,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심리가 여전히 경직된 모습이나 최근에는 점차 완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임.
- 1/4분기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16.8로서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자가 더 많았으나 전분기의 -17.0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으며 4월에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소매판매지수 추이



주 : 2005=100, 계절조정

<그림 10> 산업생산지수 추이



주 :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생산부문>

- 1/4분기 중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다소 빨라지는 모습이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모습임.

-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1/4분기 중 95.3을 기록함으로써 전분기의 91.2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4월에도 97.4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2008년 초의 110대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의 산업생산지수는 유로지역의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회복되는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유로지역의 평균을 하회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줌.
- 1/4분기 중 생산부문의 체감지수와 제조업 선행지표는 세계경기 회복과 재고조정에 힘입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감소하고 기대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생산부문의 체감지수인 산업신뢰지수는 1/4분기 중 -12.2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선행지표격인 제조업기대지수도 7.1로 증가함으로써 하반기 생산부문의 회복세 지속이 기대됨.

다. 일본경제

2010년 1/4분기 일본경제는 민간소비의 증가세 가속과 설비투자의 회복조짐으로 내수에 의한 자생적인 회복기반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과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시현함. 다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요동, 디플레이션의 위험, 고용시장 악화 가능성 등 경기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

〈최근 동향 및 전망〉

- 1/4분기 일본경제는 민간소비의 증가세 가속, 수출의 증가세 전환, 투자의 감소폭 축소에 힘입어 실질 GDP가 4.6% 증가하는 빠른 회복세를 시현함.
 - 민간소비는 경기진작정책 효과의 가시화, 소비자신뢰지수 개선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함에 따라 2분기 연속 증가를 시현하면서 자생적인 경기회복의 토대를 마련함.
 - 설비투자는 1/4분기 중 3.8% 감소하여 전분기의 두 자릿수 감소세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주택투자 역시 20%대의 감소에서 10%대의 감소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투자부문의 회복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함.
 - 수출과 수입은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4.3%와 5.4%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순수출의 증가세 시현으로 실질 GDP 증가를 견인함.
 - 정부소비와 공공투자는 점차 억제되는 추세가 반영되어 각각 1.3%, 4.6% 증가하는 등 점차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줌.
- 일본내각부는 고용여건의 악화가 우려되고는 있으나, 세계경기 회복으로 대외부문이 개선되고 경기진작 효과로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내수부문도 활력을 회복함에 따라 일본경제가 자생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10개의 일본 대내외 연구기관은 일본의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반영하여 2010년 실질 GDP를 0.4%p 상향 조정한 2.3%로 전망함⁵⁾.

5) Daiwa Institute of Research 등을 포함한 7개 대내 연구기관과 JP Morgan 등 3개 대외 금융기관의 전망치의 평균

- 또한 IMF도 2010년 실질 GDP를 작년 말보다 0.2%p 상향조정한 1.9%로 전망하였으며⁶⁾, World Bank도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2.5%로 전망함⁷⁾.

<표 5> 일본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 GDP	-1.2	-5.2	-8.9	-5.7	-5.2	-1.1	4.6
민간소비	0.2	-1.0	-3.7	-1.1	-0.4	1.2	2.9
설비투자	1.7	-19.2	-19.5	-22.2	-21.1	-13.9	-3.8
주택투자	-15.7	-13.7	0.1	-9.9	-20.3	-24.5	-18.0
정부소비	1.0	1.5	0.6	1.7	2.0	1.7	1.3
공공투자	-7.3	8.2	-1.8	13.9	11.6	9.2	4.6
수출	7.8	-23.3	-36.5	-29.3	-22.7	-4.7	34.3
수입	1.2	-16.8	-17.4	-18.3	-16.0	-15.4	5.4

자료 : 내각부, 2010.6.

<표 6>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09	2009						2010			
	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소비자물가 ¹⁾	-1.4	-2.2	-2.2	-2.2	-2.5	-1.9	-1.7	-1.3	-1.1	-1.1	-1.2
(근원소비자물가)	-0.7	-0.9	-0.9	-1.0	-1.1	-1.0	-1.2	-1.2	-1.1	-1.1	-1.6
실업률 ²⁾	5.1	5.6	5.4	5.3	5.2	5.3	5.2	4.9	4.9	5.0	5.1
소매판매액 ¹⁾	-2.3	-2.4	-1.8	-1.3	-0.9	-1.1	-0.2	2.3	4.2	4.7	4.9
소비자신뢰지수 ³⁾	35.4	39.4	40.1	40.5	40.5	39.5	37.6	39.0	39.8	40.9	42.0
주택착공호수 ⁴⁾	788	66	60	61	67	68	69	65	57	65	67
민간기계수주액 ¹⁾	-26.9	-34.8	-26.5	-22.0	-21.0	-20.5	-1.5	-1.1	-7.1	1.2	9.4
수출 ¹⁾	-33.1	-36.5	-36.0	-30.7	-23.2	-6.3	12.0	40.8	45.3	43.5	40.4
수입 ¹⁾	-34.9	-40.8	-41.2	-36.9	-35.6	-16.7	-5.5	8.9	29.5	20.6	24.2
광공업생산지수 ⁵⁾	80.6	81.9	83.1	84.6	85.9	88.1	90.4	94.3	93.7	94.8	96.0
- 가동율 ⁶⁾	74.1	75.9	77.0	78.0	79.4	81.9	84.1	90.1	90.1	90.6	90.6
- 재고/출하율 ⁷⁾	131.3	127.0	125.0	120.9	118.7	115.5	110.0	108.0	108.3	102.3	103.5

주 : 1)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 3) 기준치=50, 4) 천호, 5) 계절조정, 2005=100, 6) 계절조정, 2005=100, 7) 계절조정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0.4

7)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Summer 2010

〈고용과 물가〉

- 1/4분기 중 고용여건은 실업률의 소폭 감속, 취업자 수의 증가세 전환 등으로 다소 나아졌으나, 4월 들어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고, 취업자도 감소하면서 고용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1/4분기 중 4.9%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하였고, 취업자 수는 0.1%p 증가하였으나, 4월에는 실업률이 5.1%로 다시 높아지고, 취업자 수도 0.2%p 감소함.
 - 고용증가의 선행지표인 시간외 작업시간이 금년 들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정임금의 감소폭이 축소됨에 따라 향후 고용사정의 개선이 기대됨.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에너지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하락폭이 축소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근원소비자물가의 하락세가 확대되는 등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임.
 - 작년 말부터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소비자물가는 1/4분기 중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나, 4월 들어 국제유가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하락세가 다시 커지는 모습임.
 - 신선식품, 석유제품 등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1/4분기 중 1.1% 하락세에서 4월에는 1.6%로 하락세가 더욱 확대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음.

〈내수부문〉

- 1/4분기 중 소매판매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전분기의 증가세를 최근까지 유지함에 따라 소비부문의 실물지표와 체감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임.
 - 소매판매액은 1/4분기 중 3.7%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4.4%p 증가했으며 4월에도 4.9% 증가함으로써 증가세가 가속되고 있음.
 - 소비자신뢰지수는 그 수준이 아직 낮아 여전히 경기가 위축된 상황임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과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1/4분기에 39.9까지 증가하고 4월에는 42.0까지 증가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민간기계수주액은 1/4분기 중 증가세로 전환되고 주택착공호수는 4월에 반등함으로 써 투자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남.

○ 기업투자의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액은 1/4분기 중 2.3% 하락했으나, 전분기의 14.3% 하락세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것이며, 4월에는 9.4%로 증가세로 전환됨으로써 2/4분기의 투자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주택부문은 1/4분기 중 월평균 6만 2천호가 착공되어 전분기대비 6천호가 감소하였으나 4월에는 다시 6만7천호가 착공되면서 증가세로 반전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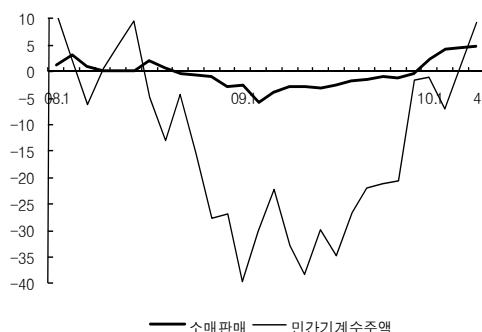
<생산부문>

□ 1/4분기에도 재고/출하율의 하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광공업생산과 가동률은 빠르게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부문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확대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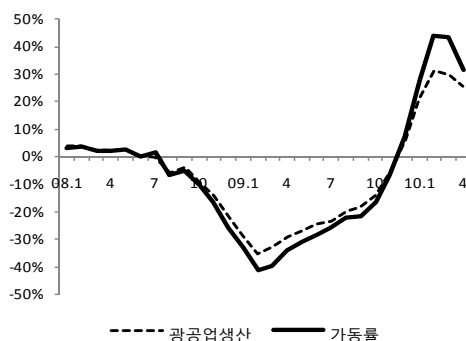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 재고/출하율은 1/4분기 중 106.2를 기록하여 전분기의 114.7보다 낮아짐에 따라 재고조정을 통한 생산부문의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임.

○ 작년 4/4분기 중 하락세를 보였던 광공업생산지수와 가동률은 1/4분기에 각각 27.3%와 38.4%의 급등세로 전환되면서 과열 조짐도 보였으나, 4월에는 25.8%, 31.7%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상승세로 회복되는 모습임.

<그림 11> 소매판매 및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그림 12>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 일본 내각부



자료 : 일본 내각부

라. 중국경제

2010년 1/4분기 중국경제는 민간소비의 증가세 확대, 투자의 견조한 성장, 대외부분의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다만, 경기선행지수와 산업생산이 다소 둔화되고 있어 하반기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함.

<최근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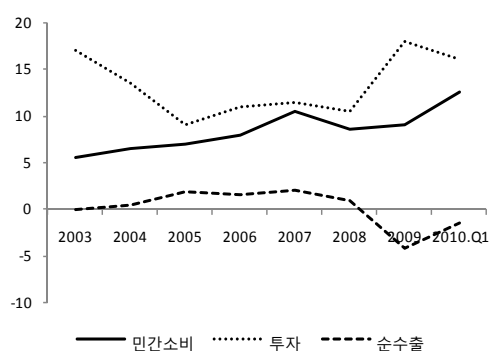
- 1/4분기 중국경제는 투자의 증가, 민간소비의 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10%대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임.
- 금년 초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경기진작정책이 추가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가계를 대상한 신용대출이 여전히 유지됨으로써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성장에 대한 기여도 증가하는 모습임.
- 반면, 경기와 부동산시장 과열을 지양하기 위해 정부주도형 투자가 축소되면서 투자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은 유지되는 상황임.
-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8.7%, 64.7%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여 순수출은 감소세를 시현함.

<그림 13> 실질 GDP와 경기선행지수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OECD

<그림 14> 민간소비, 투자, 순수출 증가율



자료 :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2010.6

□ World Bank는 중국경제가 2010년 1/4분기부터 다소 빠른 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나 일부 경기진작 정책의 정상화, 부동산시장 억제 정책으로 인해 하반기부터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고용여건의 안정에 바탕을 둔 민간소비의 증가세와 대외부문의 건조한 성장세가 축을 이루어 2010년 중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투자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IMF가 4월에 발표한 중국의 실질 GDP 전망⁸⁾은 2010년 10.0%, 2011년 9.9%인 것에 반해 6월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실질 GDP 전망⁹⁾은 정부정책의 정상화를 참작하여 2010년 9.5%, 2011년 8.5%로 하향되는 것으로 전망함.

<표 7>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실질 GDP	9.6	8.7	6.2	7.9	9.1	10.7	11.9	-	-	-	-
고정자산투자 ¹⁾	26.1	30.5	28.6	33.6	33.3	30.5	26.4	-	26.6 ²⁾	26.4	26.1
소매 판매	21.6	15.5	14.9	15.0	15.4	16.5	18.4	15.2	22.1	18.0	18.5
수출	17.2	-15.9	-19.7	-23.5	-20.5	0.9	28.7	21.0	45.6	24.1	30.5
수입	18.5	-11.3	-30.8	-20.5	-11.8	25.4	64.7	85.5	44.7	66.0	49.7
산업생산	12.9	11.0	5.1	9.0	12.3	17.9	19.6	-	20.7 ²⁾	18.1	17.8
구매자관리지수	50.2	53.0	48.9	53.3	53.9	55.7	54.3	55.8	52.0	55.1	55.7
소비자물가	5.9	-0.7	-0.6	-1.5	-1.3	0.7	2.2	1.5	2.7	2.4	2.8
생산자물가	6.9	-5.4	-4.6	-7.2	-7.7	-2.1	5.2	4.3	5.4	5.9	6.8

주 :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2) 춘절로 인해 2월 누적으로 발표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0.4

9)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2010.6

<물가>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 가속화로 내수가 확대되면서 1/4분기 중 식료품가격과 주거비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임.
 - 식료품가격이 1/4분기 중 5.0%로 급등하고, 주거비가 2.9%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4분기 중 2.2%로 상승하였고 4월에도 2.8% 상승하면서 상승폭의 확대세가 지속됨.
 - 소비자물가의 이와 같은 상승세는 작년 소비자물가의 하락세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락폭이 컸던 7월을 전후로 하여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World Bank는 저임금이 유지되는 중국 특유의 고용여건 상황과 생산확대를 통한 식료품가격 상승압박 해소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의 상승세 가속화는 하반기까지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망함.
 - 단위 노동비용이 낮게 유지되는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인상형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일시적인 초과수요는 생산확대로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는 근원소비자물가의 완만한 상승속도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World Bank는 2010년 소비자물가를 금년 3월에 발표된 전망치와 같은 3.7%로 전망함으로써 더 이상의 상승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함¹⁰⁾.

<내수부문>

- 소매판매는 경기회복의 가속화와 적극적인 소비진작으로 인해 1/4분기에는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4월에도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임.
 - 소매판매는 1/4분기 중 18.4% 증가함으로써 작년 4/4분기의 16.5% 증가를 상회하였고 4월에도 18.5% 증가함으로써 증가세는 확대되는 추세임.
- 고정자산투자는 정부주도형 인프라투자가 억제되고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면서 1/4분기 중 성장세가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10)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2010.6

- 고정자산투자는 1/4분기에 26.4% 증가함으로써 작년 1/4분기의 28.6%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4월에는 26.1% 증가하면서 둔화세를 시현함.
- 주택투자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폭 상승함으로써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줌.
- 부동산가격이 1/4분기 중 15% 증가하여 부동산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투자도 26.1%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임.

<생산부문>

- 산업생산은 1/4분기 중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4월에는 증가폭이 완화되면서 생산 부문의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
- 산업생산지수는 1/4분기 중 19.6% 증가함으로써 작년 4/4분기의 17.9% 증가를 상회하였으나 4월에는 17.8% 증가함으로써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¹¹⁾)는 신규주문, 고용 및 원자재 재고 감소에 따라 1/4분기에는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4월에는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1/4분기 중 PMI는 주문잔고(47.1), 출하기간(49.7), 고용(49.9), 원자재 재고(48.1) 등이 경기위축 국면을 보이면서 전분기(55.7)보다 낮은 54.3을 시현함에 따라 상승세가 둔화가 나타났으나, 4월에는 PMI의 모든 부문이 경기확대 국면을 보여 주면서 다시 55.7까지 상승함.

11)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25%), 신규주문(30%), 취업(20%), 납품업체 배송(15%), 재고(10%)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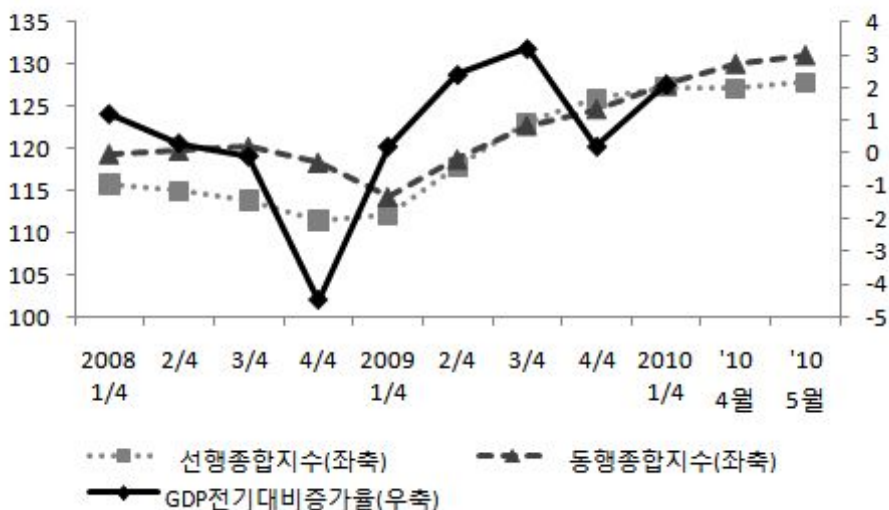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0년 1/4분기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과 더불어 수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질 GDP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경기선행지수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어 향후 경기상승의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10년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의 내수 증가와 함께 수출 또한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민간소비는 소득 및 고용여건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세와 주식 및 외환시장의 안정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그리고 2009년 1/4분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6.3%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그림 15> GDP와 경기지수 추이



주 : 경기지수 분기증가율은 전월대비 증가율 평균임(2005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와 함께 운수장비와 기계류에 대한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기저효과 또한 크게 작용하면서 29.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건설투자는 민간건물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공공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3%의 증가세를 시현함.

<표 8> 실질 GDP와 수요 부문별 증가율¹⁾

(전년동기대비, %)

	CY2008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3.3 (-4.5)	2.3	-4.3 (0.2)	-2.2 (2.4)	1 (3.2)	6 (0.2)	0.2	8.1 (2.1)
- 민간소비	-3.6	1.3	-4.4	-0.8	0.8	5.6	0.2	6.3
- 설비투자	-13.3	-1.0	-23.1	-17.3	-7.0	13.3	-9.1	29.9
- 건설투자	-7.7	-2.8	2.8	5.1	4.4	5.0	4.4	2.3
- 재화수출 ³⁾	-11.3	4.6	-13.5	-3.2	2.3	15.0	0.0	21.6
- 재화수입 ³⁾	-12.7	4.5	-18.5	-13.8	-6.7	8.9	-7.9	21.8
국내수요 ⁴⁾	-5.3 (-7.0)	1.4	-8.6 (-2.0)	-7.6 (1.6)	-3.5 (4.2)	4.7 (0.7)	-3.8	9.6 (2.8)

주 :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4) 국내수요=민간소비+정부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무형고정투자+재고투자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 1/4분기 재화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기반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21.6% 증가하였으며, 수입 또한 국내경기 회복으로 인해 21.8% 증가함.
- 국내수요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재고투자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9.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10년 1/4분기와 5월 경기동행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2월과 4월에 감소를 나타내면서 향후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경기동행지수는 5월 말 131.0을 기록하면서 2009년 4/4분기 이후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는 2009년 12월 127.0을 나타낸 이후 상승과 하

락을 반복하며 5월 말에도 유사한 수준인 127.8을 나타냄.

□ 2010년 4~5월 소비재 판매액지수는 내구재 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비내구재, 준내구재에 대한 수요도 살아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함.

- 내구재 판매는 4~5월에도 평균 9.2%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였으나, 4월과 5월에 각각 16.5%, 1.8% 증가하면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됨.
- 의복 및 오락·취미 등의 준내구재 판매는 4월 4.1%, 5월 7.4%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비내구재 또한 4~5월 평균 3.0%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표 9> 소비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P	연간 ^P	1/4	4월 ^P	5월 ^P
소비재판매	1.1	-4.7	1.5	2.8	10.8	2.6	9.9	7.3	3.6
- 내구재	1.6	-11.9	5.7	7.9	33.9	8.1	29.4	16.5	1.8
승용차	-3.5	-20.6	20.1	24.1	76.9	21.8	48.3	30.2	-8.8
- 준내구재	-3.0	-1.5	-0.6	-0.7	3.4	0.3	2.7	4.1	7.4
- 비내구재	1.4	-1.4	0.5	1.9	4.1	1.2	3.3	3.3	2.7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5월에 감소하였으나, 기계류 투자가 크게 늘면서 23.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4월과 5월 30%가 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운송장비의 경우 4월 6.9%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에는 7.4%의 감소를 나타냄.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의 원자로, 지방자치단체(데스크탑PC)와 민간부문에서의 반도체 및 부품(평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계장비 등에서 발주가 증가하면서 4월 25.1%, 5월 56.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10> 투자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P	연간 ^P	1/4	4월 ^P	5월 ^P
설비투자	-1.0	-23.1	-17.3	-7.0	13.3	-9.1	29.9	-	-
- 기계류	-4.2	-22.1	-18.9	-17.0	8.8	-12.9	28.1	31.2	32.8
- 운송장비	2.1	0.1	11.8	20.0	15.5	12.0	12.0	6.9	-7.4
- 기계수주	-11.8	-35.5	-17.7	3.4	20.0	-11.8	10.5	25.1	38.8
건설투자	-2.8	2.8	5.1	4.4	5.0	4.4	2.3	-	-
- 건설기성	4.9	4.3	6.4	-1.2	3.7	3.3	4.9	-1.1	7.5
건축	2.0	-7.0	-4.8	-7.6	-0.5	-4.9	2.8	-3.4	0.9
토목	10.5	25.7	27.6	11.2	9.7	17.6	7.8	2.3	17.5
- 국내건설수주	-7.6	-12.0	-1.1	7.6	11.6	3.0	-6.9	-14.6	16.8
건축	-15.4	-39.4	-47.2	5.6	17.0	-16.0	-0.4	102.0	68.2
토목	13.5	77.1	140.9	10.6	3.7	41.9	-14.2	-61.4	-40.4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0년 4~5월 건설기성은 5월 공공, 민간부문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3.2%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수주가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함.

- 4월 건설기성은 민간부문의 건축공사가 부진을 나타내면서 1.1%감소하였으나 5월 들어 공공, 민간부문에서 토목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7.5%의 증가율을 나타냄.
- 건설기성 발주자별로는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월 공공부문은 10.0%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8.2%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토목공사가 기저효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의 주택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침.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증가한 반면, 토목부문이 감소하였으며,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기저효과로 인해 66.7% 가량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은 172.0% 증가함.

<대외거래>

□ 2010년 2/4분기(4.1~6.20) 수출 잠정치는 34.4%, 수입은 41.2% 증가하며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34.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은 1/4분기와 마찬가지로 반도체(88.0%), 액정디바이스(34.3%)등의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63.0%), 자동차부품(78.9%), 석유제품(56.3%)이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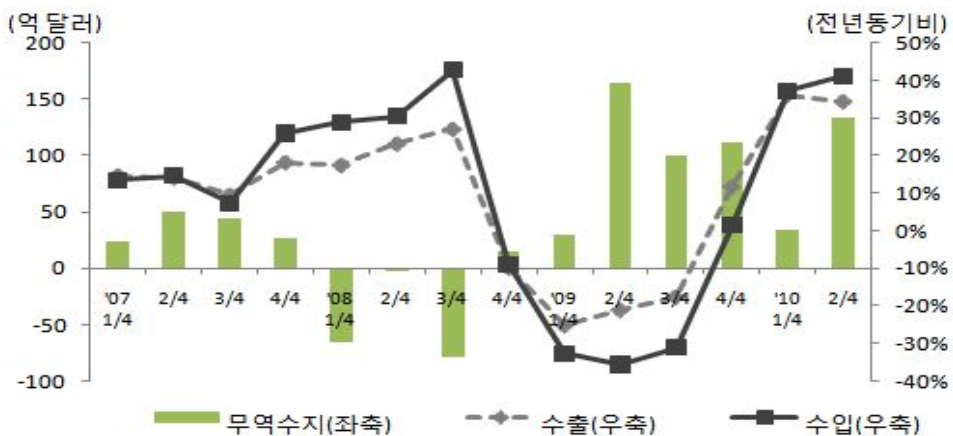
○ 수입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원유(53.2%)·석유제품(69.6%), 가스(80.3%)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철강제품(58.8%), 정밀기계(218.5%) 등도 대폭 증가함.

□ 2010년 2/4분기(4.1~6.20) 지역별 수출은 중국, ASEAN 등 대 개도국 수출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출도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한 대 중동 수입이 크게 증가함.

○ 지역별 수출은 중국(40.8%)과 ASEAN(39.2%)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36.3%), 일본(32.0%)등 선진국 수출도 증가함.

○ 지역별 수입 또한 중남미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석유류 수입증가로 중동(56.4%)에서의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미국(47.3%), 중국(42.8%), ASEAN(37.3%) 일본(36.8%) 등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그림 16>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 관세청(통관기준)

<산업생산>

- 2010년 4~5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등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20.8%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운수업을 중심으로 3.7% 증가함.
- 2010년 5월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자동차는 각각 34.1%, 57.5%, 41.1%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의약품과 화학제품도 각각 5.0%, 4.4%의 증가세를 나타냄.
- 2010년 5월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11.9%), 보건·사회복지(11.6%), 전문·과학·기술(11.0%)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숙박·음식점은 0.7% 증가에 그침.
- 운수업은 수출입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화물관련 운송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함.

<표 11>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P	연간 ^P	1/4	4월 ^P	5월 ^P
광공업	3.4	-15.7	-6.1	4.3	16.2	-0.8	25.8	20.1	21.5
- 제조업	3.4	-16.5	-6.6	4.4	16.8	-0.9	26.8	20.7	22.3
- 자동차	-3.3	-32.5	-19.1	15.8	14.7	-6.8	51.0	39.0	41.1
- ICT	9.1	-19.5	-0.5	13.2	46.3	7.8	46.0	30.5	28.0
서비스업	3.6	-0.3	2.4	1.9	3.7	2.0	5.7	3.7	3.8
- 도매 및 소매업	1.3	-4.8	-2.2	0.3	5.4	-0.4	7.4	5.7	6.1
- 운수업	4.3	-12.7	-10.0	-4.8	1.4	-6.6	14.0	14.9	11.9
- 숙박 및 음식점업	0.7	-2.6	-0.6	-2.5	-0.2	-1.5	1.5	1.1	0.7
- 부동산 및 임대업	-2.1	-4.2	2.2	6.7	21.3	5.3	10.4	7.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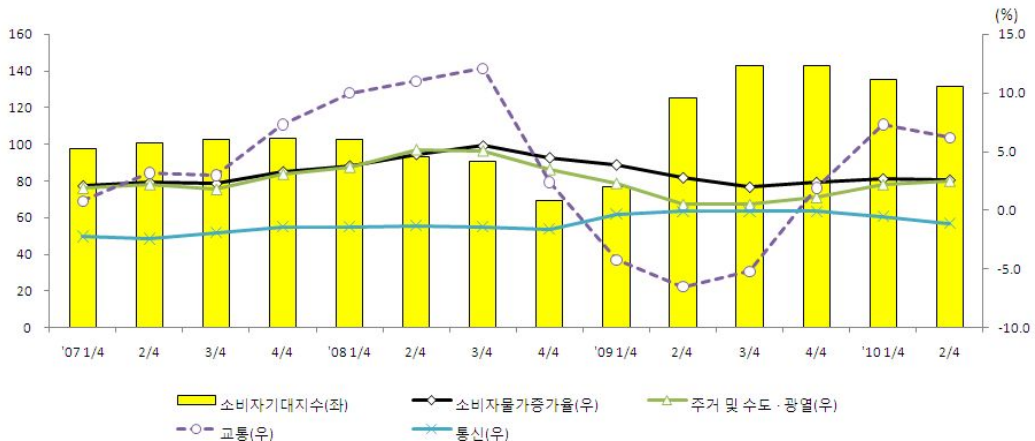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물가 및 고용〉

금년들어 소비자물가는 2%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고용시장도 경기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4월부터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또한 가계 소득 및 소비지출은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가계흑자는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 2010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교통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의 상승으로 2.6%의 상승률을 나타내어 1/4분기에 이어 2%대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음.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3.3%), 주류 및 담배(0.3%), 의복 및 신발(3.3%), 주거 및 수도광열(2.5%),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0.3%), 교통(6.2%) 물가는 상승하였고, 통신(-1.1%) 부문의 물가는 하락함.
- 소비자기대지수는 경기회복세에 따라 2010년 1/4분기에는 135.0을 나타냈으나, 2/4분기에는 131.9를 나타내면서 소폭의 감소세를 보임.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¹²⁾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12) 통계청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의 2008년 8월 소비자기대지수 91.2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향후경기전망 CSI의 8월치 77.0을 91.2가 되도록 환산한 후 2008년 9월부터는 향후경기전망 CSI를 소비자기대지수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분기별로 단순 평균함.

- 2009년에는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자기대지수가 상승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0년 들어서는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함께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소폭 감소함.
- 2010년 1/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사정이 다소 악화됐으나 4월부터 경기회복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여건이 개선되기 시작함.
 - 2010년 1/4분기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반면, 청년취업자 수는 0.3% 감소하였으나 감소세는 다소 완화됨.
 - 고용률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2010년 1/4분기 57.0%(2009년 4/4분기 58.7%)로 낮아졌으나 4월 59.1%, 5월 60.0%을 나타내면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실업률도 2010년 1/4분기에 4.7%를 기록한 이후 4월과 5월에 3.8%, 3.2%로 낮아지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2010년 1/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았던 반면, 4월과 5월에는 건조한 경기회복이 고용시장에 반영되면서 고용환경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 청년실업률의 경우도 취업시즌 청년층 구직활동으로 2010년 초 청년실업률이 상승했으나 3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5월에는 6.4%로 낮아짐.
- 2010년 1/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부문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광공업과 SOC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1/4분기 농림어업 부문은 경기회복세로 인한 귀농 취업자 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했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7.3%, 4.7% 감소함.
 -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였으며 5월에는 4.9%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전기·운수·통신·금융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SOC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함.
 - 특히,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이 4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3월 -0.9%)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도 5월 0.1% 증가(4월 -1.7%)하여 그동안 계속된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남.

<표 12> 고용 관련 지표의 증가율

	CY2008 연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총취업자	0.6	-0.6	-0.6	0.0	0.0	-0.3	0.6	1.7	2.5
- 청년취업자	-2.8	-5.1	-2.4	-3.0	-1.9	-3.1	-0.3	-1.8	-0.4
고용률	59.5	57.4	59.3	59.1	58.7	58.6	57.0	59.1	60.0
실업률	3.2	3.8	3.8	3.6	3.3	3.6	4.7	3.8	3.2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2.1	1.0	-1.3	-1.4	-6.9	-2.2	-11.7	-7.3	-4.7
광공업	-1.1	-4.1	-3.8	-3.6	-1.2	-3.2	1.6	3.7	4.9
- 제조업	-1.3	-4.1	-3.8	-3.6	-1.2	-3.2	1.6	3.8	4.9
SOC 및 기타서비스업	1.3	0.0	0.2	0.9	0.9	0.5	1.3	2.2	2.7
- 건설업	-2.0	-2.5	-6.0	-5.7	-5.9	-5.0	-3.6	1.1	2.6
- 도소매음식숙박	-0.8	-2.0	-2.4	-2.8	-2.6	-2.4	-1.0	-1.7	0.1
- 전기,운수,통신,금융	0.5	-2.6	-1.8	-0.9	1.8	-0.9	4.1	3.5	2.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0	3.2	4.5	5.9	4.6	4.6	3.2	4.7	4.7

주: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0년 1/4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은 모두 증가했으며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010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2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하였고, 실질소득도 4.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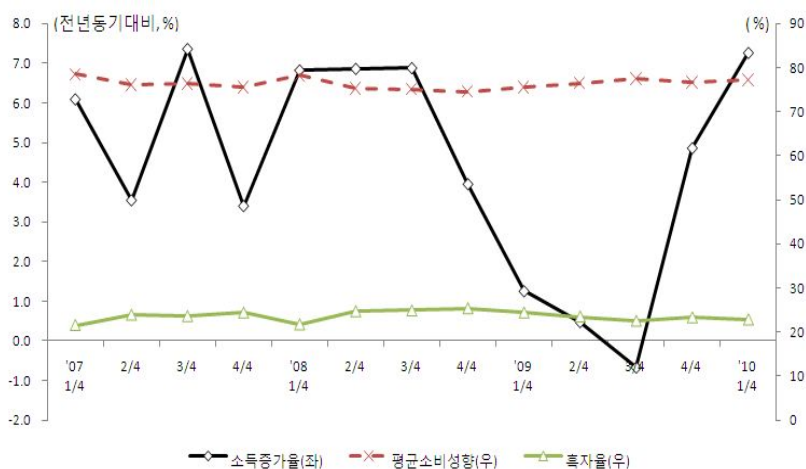
-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7.1%, 9.6% 증가하였는데, 경상소득 세부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4.9%, 사업소득이 12.4%, 이전소득이 13.0% 증가한 반면 이자소득 감소로 인해 재산소득은 15.5% 감소함.

○ 2010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4만 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면서 실질소비지출도 7.1% 증가함.

-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8%), 교통(17.1%), 오락·문화(18.3%)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소비지출이 증가함.

- 2010년 1/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03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69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수준을 유지함.
-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흑자액 비율인 흑자율은 22.8%로 전년동기대비 1.6%p 하락했으나,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7.2%로 전년 동기대비 1.6%p 상승하여 증가한 소득이 소비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8> 도시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 = 1 - 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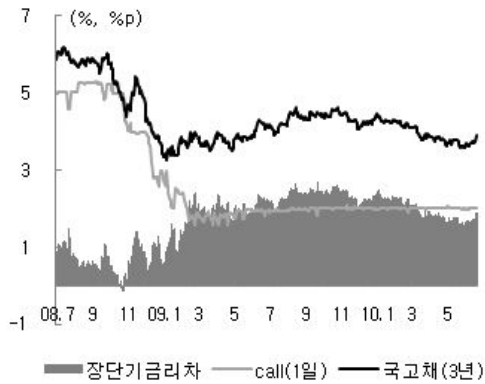
기준금리가 작년 2월 이후 2.0%로 동결되고 있는 가운데, CD(91일)금리는 4월 초 급락하여 6월 말 현재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고채(3년)금리와 회사채금리(AA-)도 2/4분기 동안 3~4%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시장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기준금리가 금년 6월 말 기준 16개월 연속 2.0%로 동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동되어 있는 콜금리는 대규모 CD 발행으로 시중금리 하락세가 대거 반영되면서 2.5%까지 급락하였으나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들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기준금리도 작년 2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16개월 연속 2.0%로 동결되고 있음.
- 금년 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2.8% 수준까지 상승했던 CD(91일)금리는 4월 초 은행권의 대규모 CD 발행으로 2.5% 수준까지 급락했으나 최근까지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정책으로 작년 중순부터 CD 발행을 중단했던 은행들은 4월부터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CD 발행을 재개하면서 시중금리 하락세가 뒤늦게 반영되기 시작함.
- 국고채(3년)금리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감 약화로 대체로 하락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6월 이후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 등으로 3.9% 수준까지 상승함.
 - 1/4분기 말 기준 3.8% 수준을 유지하던 국고채금리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감 약화와 남유럽발 금융시장 불안 등이 국내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2/4분기 들어서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 5월 말 기준 3.5% 수준까지 하락하던 국고채금리는 6월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구전략 실시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6월 말 현재 3.9% 수준으로 소폭 상승함.

- 장단기금리차(국고채금리와 콜금리 간 금리 차이)도 5월 25일 기준 158bps를 저점으로 국고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6월 말 현재 190bps대까지 확대됨.
- 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와 비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BBB-)금리는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단기부동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국고채금리와 비슷한 추이를 보임.
 - AA-등급 회사채금리와 BBB-등급 회사채금리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에 회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5월 중순까지 동반 하락하다가, 이후 금년 하반기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어 6월 말 현재 각각 4.7%, 10.7% 수준을 유지함.
 - AA-등급과 BBB-등급 간 회사채금리 차이는 5월 초 610bps를 고점으로 경기회복 가시화에 따른 고금리 회사채에 대한 수요증가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비우량회사채 및 기업 어음시장이 활력을 찾으면서 6월 말 현재 595bps 수준으로 하락함.
 - 2/4분기 595~605bps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인 300~400bps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어서 여전히 회사등급 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
-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 간 신용스프레드는 74~100bps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세를 유지함.
 - 1/4분기 말 100bps였던 AA-등급 회사채금리와 국고채금리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전분기에 이어 74bps까지 하락하였으나, 기준금리의 인상 가시화 및 환율급등에 따른 유동성 경색 우려로 6월 말 현재 91bps 수준으로 확대됨.
 - 한편, 10bps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TED 스프레드¹³⁾는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자금조달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6월 말 현재 35bps까지 상승하는 등 국내신용시장과 유사한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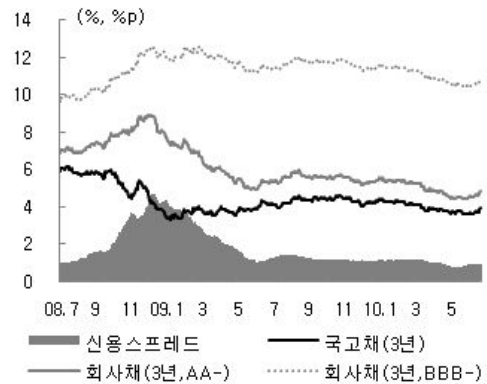
13) TED 스프레드는 런던은행 간 금리인 리보금리와 미국 재무부 채권(T-bill) 금리를 뺀 값으로 국제자금시장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그림 19> 장단기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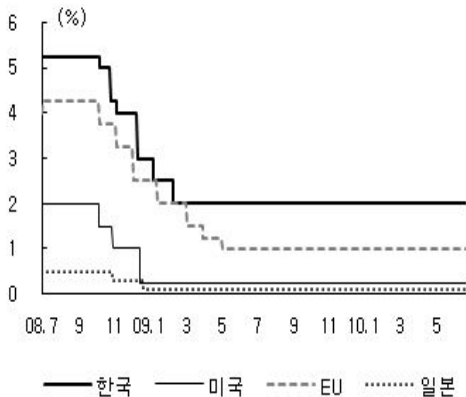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0>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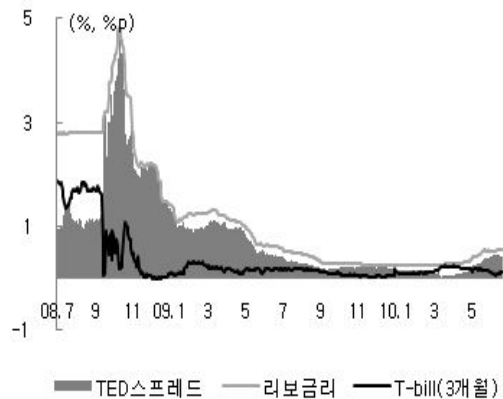
주 :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3년,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간의 차이를 말함.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21>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2> TED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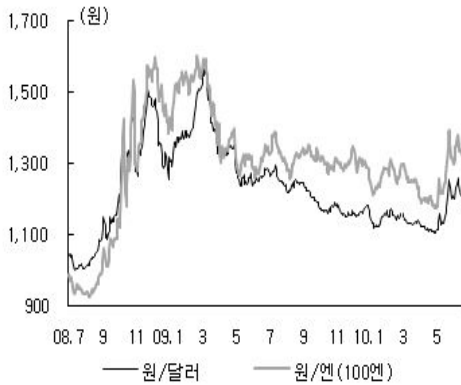
주 : TED 스프레드는 리보금리(3개월)와 미국 국채금리(T-bill, 3개월)금리 간의 차이임.
자료 : Bloomberg

<환율>

원/달러 환율은 남유럽발 재정위기 및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1,250원대까지 급등하였으나, 이후 1,200원 초반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원/엔 환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임.

- 전분기에 이어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유로지역 재정위험과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북한리스크가 고조되며 1,250원대까지 급등하였으나, 6월부터 1,200안팎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남유럽지역 금융불안이 유로지역으로 확산되고, 천안함 사태 발생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어 역외 달러 매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5월 중순 달러당 1,255.1원까지 급등함.
- 이후 유로지역 재정불안 진정에 따른 유로화 반등과 중국의 환율 유연화 정책 발표 등으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위안화 절상에 대한 회의감 확산 및 정부의 국내 외환시장 선물환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1,200원대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함.
-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유로지역 재정위기 파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엔화 강세로 5월 중순 급등한 이후, 미국 경제회복 가시화 등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
- 100엔당 1,200원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유로지역 재정위기 리스크가 부각 등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390 수준까지 급등함.
- 그러나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엔화 강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에 따라 6월 말 현재 원/엔 환율은 100엔당 1,300원대 중반을 유지함.
-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아시아 신흥국의 환율은 유럽연합의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로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3> 원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4> 아시아 개도국 환율 지수 추이



주 : 2008년 7월 1일의 달러당 환율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함.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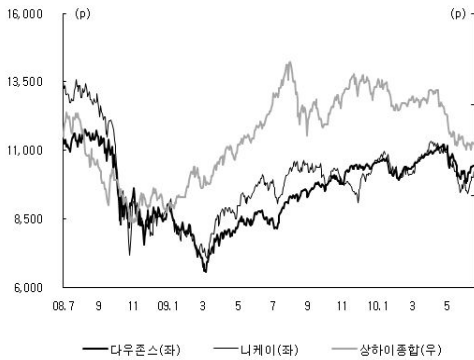
<주가지수>

글로벌 증시는 유로지역 재정불안 완화와 중국의 위안화 절상 기대감 등의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에 따른 유럽지역 및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안요인이 부각되면서 대체로 하락세를 보임.

- 글로벌 증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진정,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 중국 위안화 절상 기대감 등에 힘입어 6월 한 때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긴축재정으로 인한 유럽 및 미국 경기둔화 우려, 미국 연방은행의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 등으로 전체적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함.
-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주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우려, 독일의 공매도금지 조치 등으로 5월 말까지 하락세를 시현함.
- 이후 EU와 IMF의 공조체제에 따른 유럽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 감소, 미국 연방은행의 장기간 저금리 기조 유지 시사, 중국 위안화 절상 기대감 등으로 6월 18일 10,450.64p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동유럽의 채무위기 악화, 긴축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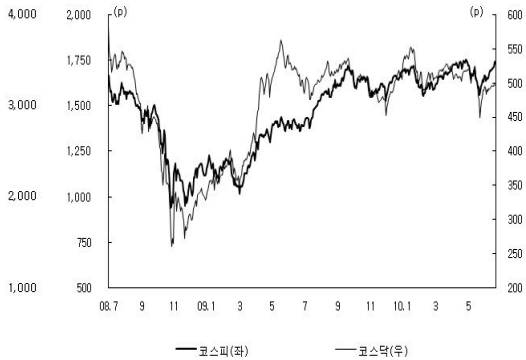
- 조치로 인한 유럽 및 미국경기 둔화 우려, 미국 연방은행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의 요인들이 지수하락을 견인하며 6월 말 현재 9,774.02p까지 하락함.
- 일본 니케이지도 중국 위안화 절상 호재, 반발 매수세 유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10,000p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유럽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엔화 강세 지속, 지급준비율 인상 등 중국의 재정긴축 전환 움직임 등으로 6월 말 현재 9,382.64p까지 급락한 상황임.
 - 4월 초 3,100p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및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 확산 등의 악재가 지수하락을 견인하여 6월 말 현재 2,300p선까지 급락함.
- 대내외 악재로 하락하던 종합주가지수(KOSPI)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진정 움직임, 경제지표 개선 및 2분기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750p대까지 반등하였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유럽지역 자금경색 우려 등으로 1,700p를 이탈하는 등 하락세로 전환됨.
- 남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 중국의 긴축 정책 가능성과 같은 대외악재와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대북 리스크, 은행세 도입 전망 등의 대내 불안요인 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되어 5월 말 기준 1,582.12p까지 하락함.
 - 이후 유럽지역의 재정불안 진정,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2분기 경제지표 및 국내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6월 중 1,730p대까지 급등하였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유럽지역 자금시장 경색 우려 확산, 국내 주식형 펀드 판매 증가 및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매물 출현으로 6월 말 현재 1,600p대 후반까지 하락세를 보임.

<그림 25> 해외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6> 국내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자금흐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및 위험확산에 대비한 유동성 자금확보 경향 등으로 인해 지급보험금이 급증한 보험권을 제외하고는 은행권, 증권사, 투신사, 종금사의 1/4분기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보험권 순수신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조하게 증가했으나,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2조 1,616억원 감소함.
 - 생명보험의 순수신 규모는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및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양호하게 증가한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망보험의 성장 침체 및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1조 9,251억원 감소한 6조 5,558억원에 달함.
 - 손해보험의 순수신 규모는 장기성보험(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연금을 포함함)의 고성장과 자동차보험의 성장 회복 등으로 원수보험료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나, 손해를 악화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 지급 급증으로 전분기대비 2,365억원 감소한 2조 5,407억원을 실현함.
- 전분기 순유출을 보였던 은행권과 증권사의 순수신 규모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투신사 및 종금사는 전분기에 이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경제금융 동향

- 은행권의 순수신 규모는 실세요구불 예금의 지속적인 감소세와 CD 순발행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자금의 저축성예금 및 실세충예금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전분기대비 9조 5,462억원이 증가함.
- 증권사의 순수신은 상반기 증시 호조로 약 4조 5,000억에 달하는 고객예탁금 및 RP 자금이 유입되며 전분기대비 8조 9,869억원이 급증하는 등 증시로의 시중자금 유입 흐름이 크게 개선됨.
- 투신사의 경우, 2008년 4/4분기 이후 자금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주식형 펀드를 제외하고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및 MMF 부문에 약 10조 7,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어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대비 24조 8,104억원 급증함.
- 2009년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중금사의 순수신은 발행어음에서 6,95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 되었으나, 어음매출 및 CMA 예탁금 등에서 약 45조원의 자금이 순유입된 데 힘입어 전분기대비 4조 5,191억원 증가함.

<표 13>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2/4	3/4	4/4	1/4	2/4	3/4	4/4	1/4
보 험	20,865	-14,426	-4,352	-14,909	29,281	-1,416	12,147	-21,616
- 생 보	14,533	-12,340	-4,342	-10,321	21,486	-1,650	12,926	-19,251
- 손 보	6,332	-2,086	-10	-4,588	7,795	234	-779	-2,365
은 행	21,326	-87,115	48,920	-55,887	77,277	64,167	-161,023	95,462
- 일 반	148,250	-145,756	73,186	-30,842	58,172	36,531	-179,530	73,991
- 신 탁	-126,924	58,641	-24,166	-25,045	19,105	27,636	18,507	21,471
증 권	41,239	-45,641	1,156	78,230	-44,155	-3,121	-78,734	89,869
투 신	-138,816	-406,191	352,172	76,686	-377,027	-167,127	141,605	248,104
중 금	8,467	-98,880	60,172	30,186	-99,222	-11,709	68,914	45,191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9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부문이 전분기에 이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손해보험 부문도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한 30조 4,481억원을 시현함.

- FY2009 4/4분기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생명보험 부문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손해보험 부문도 전 종목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부문의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FY2009 4/4분기 8.6% 성장하였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하반기 회복세에 힘입어 4.6% 성장함.
- 손해보험은 전분기에 이어 장기성보험의 고성장세 지속과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9.4% 성장하였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16.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96,465	176,323	735,614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8.9	-4.5	-2.0	-4.2	-0.3	13.8	8.6	4.6
손해보험	99,218	94,674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7.6	9.3	10.3	11.7	14.9	21.1	19.4	16.9
합 계	295,683	270,997	1,110,568	275,206	284,484	343,721	304,481	1,207,891
	-4.0	-0.1	1.8	1.0	4.8	16.2	12.4	8.8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9 4/4분기 말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꾸준한 유입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른 자산운용 여건 호전 등의 호재로 전분기대비 3.4% 증가한 459조원을 기록함.

- FY2009 4/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지속적인 수입보험료 유입과 주식, 금리, 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화로 자산운용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면서 전분기대비 3.4% 증가한 459조원을 시현함.
- 생명보험 부문의 총자산은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자금순유입이 증가하였고, 안정적인 금융환경으로 자산운용 관련 수익도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3.1% 증가한 373조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부문의 총자산은 원수보험료의 양호한 증가세와 자산운용 여건 개선에 따른 관련 투자수익 증대로 전분기대비 3.8% 증가한 86조원을 시현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320	328	328	339	353	361	373	373
	2.1	2.4	7.5	3.2	4.1	2.5	3.1	13.5
손해보험	71	74	74	77	79	83	86	86
	3.5	3.5	12.1	3.5	3.7	4.4	3.8	16.4
합계	392	402	402	415	432	444	459	459
	2.4	2.6	8.3	3.3	4.0	2.8	3.4	14.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9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19조 1,42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감.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을 제외한 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이 모두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특히 생사혼합보험이 20% 이상 고성장이면서 전체적으로 7.8% 성장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23.8% 성장함.

○ FY2009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들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4.6%의 성장률을 나타냄.

□ FY2009 4/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보험영업이익 개선과 투자 관련 수익증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3.1% 증가한 372조 5,247억원을 시현함.

○ FY2009 총자산은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업환경 개선과 함께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 개선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임.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196,465	176,323	735,614	176,324	179,372	223,606	191,423	769,568
	-8.9	-4.5	-2.0	-4.2	-0.3	13.8	8.6	4.6
총 자 산	3,205,462	3,283,321	3,283,321	3,388,638	3,527,890	3,614,323	3,725,247	3,725,247
	2.1	2.4	7.5	3.2	4.1	2.5	3.1	13.5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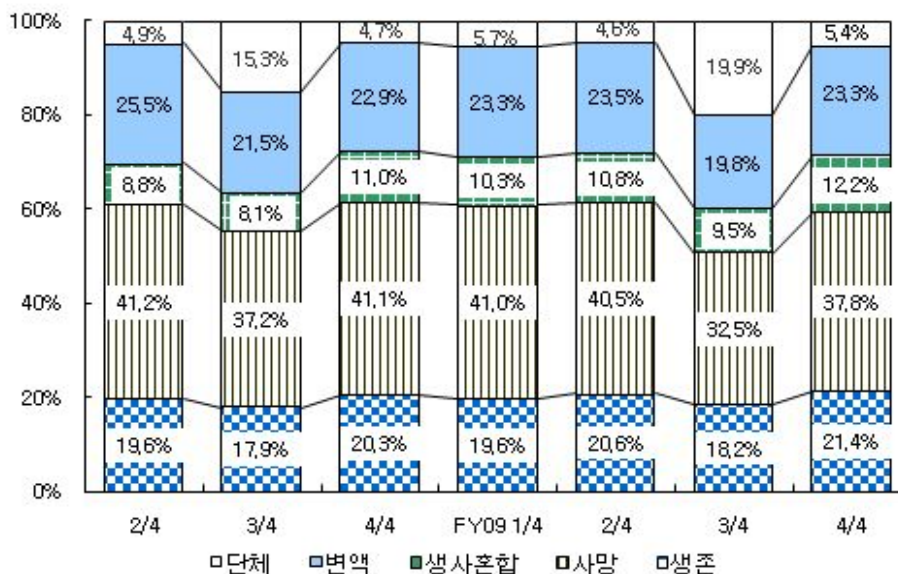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09 4/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을 제외한 생존·생사혼합·변액보험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고,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단체보험 비중도 증가함.
- 개인보험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사망보험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5%p 감소한 37.8%를 나타냄.
- 반면,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생존·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은 각각 1.1%p, 1.2%p 높아진 21.4%, 12.2%로 나타났으며, 변액보험 또한 0.4%p 높아진 23.3%로 나타남.
- 단체보험의 비중은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0.7%p 확대된 5.4%로 높아짐.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09 4/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세가 둔화되고 생존·생사혼합·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분기 연속 7%대의 성장세를 시현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8 3/4분기 이후 2~3% 수준의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FY2009 3/4분기 들어 0.7% 감소한데 이어 4/4분기에는 0.1% 감소에 그치는 등 수입보험료 축소 현상이 점차 진정되는 양상임.
 - 3/4분기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른 수요 증가로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생존보험은 4/4분기에도 신규 수요 증가와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14.1%의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함.
 - 생사혼합보험은 상대적인 고금리와 세제혜택 등이 부각되면서 방카슈랑스채널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4분기에도 21.1% 증가하면서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감.
 - 변액보험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상품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대한 기저효과 등이 작용함에 따라 10.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3/4분기 20.1% 성장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던 변액연금은 4/4분기에도 25.3%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며, 계속해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감소세도 개선되고 있음.
 - FY2009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 지속과 생존, 변액보험의 수요 확대에 의해 전체적으로 2.8%의 플러스 성장을 보임.
- FY2009 4/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3.8%의 성장률을 나타냄.
 - FY2008 3/4분기 이후 계속해서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손익중심 상품전략 등으로 4/4분기에도 14.6% 감소하였으며,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2010년 말 제도 폐지 영향으로 18.0% 감소함.

국내보험시장 동향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9.4%의 고성장세를 기록하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크게 기여함.
- FY2009 단체보험 또한 개인보험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이후 하반기 들어 큰 폭의 성장을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25.7%의 성장률을 기록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5,115	35,842	140,714	34,389	37,016	40,807	40,908	153,119
	성장률	-1.1	-3.8	-0.5	-0.2	4.8	16.2	14.1	8.8
	구성비	17.9	20.3	19.1	19.6	20.6	18.2	21.4	19.9
사망	보험료	73,160	72,397	294,531	71,889	72,647	72,632	72,330	289,498
	성장률	-2.7	-3.5	-1.1	-3.9	-2.1	-0.7	-0.1	-1.7
	구성비	37.2	41.1	40.0	41.0	40.5	32.5	37.8	37.6
생사 혼합	보험료	15,870	19,467	66,365	18,096	19,321	21,248	23,387	82,052
	성장률	-5.3	20.2	0.5	18.5	22.6	33.9	20.1	23.6
	구성비	8.1	11.0	9.0	10.3	10.8	9.5	12.2	10.7
변액 보험	보험료	42,221	40,318	175,916	40,885	42,100	44,375	44,522	171,882
	성장률	-12.3	-10.8	1.2	-13.7	-8.4	5.1	10.4	-2.3
	구성비	21.5	22.9	23.9	23.3	23.5	19.8	23.3	22.3
개인 계	보험료	166,366	168,024	677,526	165,260	171,085	179,061	181,145	696,551
	성장률	-5.2	-3.3	-0.2	-3.9	-0.1	7.6	7.8	2.8
	구성비	84.7	95.3	92.1	94.3	95.4	80.1	94.6	90.5
단체	보험료	30,099	8,299	58,087	9,908	8,287	44,544	10,277	73,017
	성장률	-25.0	-24.6	-19.2	-9.5	-5.2	48.0	23.8	25.7
	구성비	15.3	4.7	7.9	5.7	4.6	19.9	5.4	9.5
합계	보험료	196,465	176,323	735,614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성장률	-8.9	-4.5	-2.0	-4.2	-0.3	13.8	8.6	4.6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9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사의 점유율도 소폭 상승한 반면, 상위 3사의 점유율은 하락함.
-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9%p 높아진 26.3%로 나타났으며, 외국사의 점유율도 0.6%p 확대된 21.9%로 나타남.
 - 반면, 상대적으로 보장성보험 비중과 전속설계사 의존도가 높은 상위 3사의 점유율은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와 독립채널의 성장에 따라 1.5%p 축소된 51.8%로 나타남.
 - FY2009 기준으로 보면 단체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위 3사의 점유율은 0.6%p 낮아졌으며, 외국사의 점유율도 0.4%p 축소된 반면,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1.0%p 높아짐.
- FY2009 4/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3사의 점유율 하락으로 0.0044 감소한 0.1172로 나타났고 FY2009 전체로는 0.1263을 기록함.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3사	57.1	53.3	54.7(-5.5)	53.6	52.9	57.4	51.8	54.1(3.4)
국내중소형사	23.2	25.4	23.8(12.5)	25.0	24.9	23.4	26.3	24.8(9.1)
외 국 사	19.7	21.3	21.5(-6.8)	21.4	22.2	19.2	21.9	21.1(2.7)
허핀달지수	0.1365	0.1216	0.1271	0.1217	0.1200	0.1449	0.1172	0.1263

-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9년 12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5) 괄호는 연간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당기순이익>

- FY2009 4/4분기 생명보험산업 누적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투자영업이익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한 2조 4,549억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 부분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보험영업수익이 4.0% 증가하였고 해지율 하락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감소로 보험영업비용도 7.8% 감소함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91.1% 증가한 7조 8,326억원을 기록함.
 - 투자부문에서는 투자영업수익이 4.0% 감소하였으나 작년 환율 상승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던 통화파생상품의 손실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투자영업비용이 41.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투자영업이익은 23.8% 증가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403,000	541,472	134,024	272,467	416,397	562,962
	투자영업	143,107	193,584	48,008	96,349	139,055	185,863
	영업외	24,500	33,276	8,353	16,410	24,289	33,471
	소계	570,606	768,332	190,386	385,225	579,741	782,296
총 비 용	보험영업	390,971	525,522	116,177	235,500	359,751	484,636
	투자영업	57,118	82,391	14,511	26,329	34,920	48,228
	영업외	5,334	7,439	1,501	2,796	5,283	5,982
	소계	453,423	615,352	132,188	264,624	399,954	538,846
수 지 차	보험영업	12,029	15,949	17,848	36,967	56,645	78,326
	투자영업	85,989	111,193	33,498	70,020	104,135	137,635
	영업외	19,166	25,838	6,852	13,614	19,006	27,489
	소계	117,184	152,980	58,198	120,601	179,787	243,450
책임준비금 전입		107,029	144,221	49,455	100,483	151,863	210,586
법 인 세		2,545	3,056	1,829	4,527	6,542	8,315
당기순이익		7,610	5,703	6,914	15,592	21,381	24,549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9 4/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부문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4.7%p 하락한 65.8%로 나타남.

○ 개인보험 중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은 전년동기대비 해지금액이 감소하였고 생존보험은 신계약 또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이 낮아짐.

○ 반면,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은 신계약액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지금액이 증대에 따라 전년대비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짐.

○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가 퇴직보험 해지환급금 증가를 상쇄하면서 보험금 지급률이 하락함.

○ FY2009 4/4분기 사업비율은 신계약 확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9%p 높아진 16.7%로 나타남.

○ 누적 해지율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지율이 크게 상승했던 전년동기에 비해 1.1%p 낮아진 11.3%로 나타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 지급률	68.3	70.5	64.6	58.0	59.9	62.1	65.8	61.6
개 인 계	67.7	58.9	58.8	51.9	56.0	57.1	56.5	55.4
- 생 존	106.9	78.9	85.2	60.6	56.4	52.2	54.0	55.6
- 사 망	53.3	57.0	49.9	51.7	53.8	49.4	51.4	51.6
- 생사혼합	121.6	78.9	107.9	70.7	76.8	108.9	84.5	86.0
- 변 액	39.7	34.8	33.9	36.5	50.0	49.4	52.5	47.3
단 체	71.4	305.1	133.1	160.7	140.3	82.1	228.0	119.9
사 업 비 율	17.2	15.8	18.1	17.3	17.7	15.2	16.7	16.6
해 지 율	9.4	12.4	12.4	3.5	6.5	9.0	11.3	11.3

주 :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9 4/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높아진 5.5%를 기록했으며, 운용자산규모는 12.4% 증가한 275조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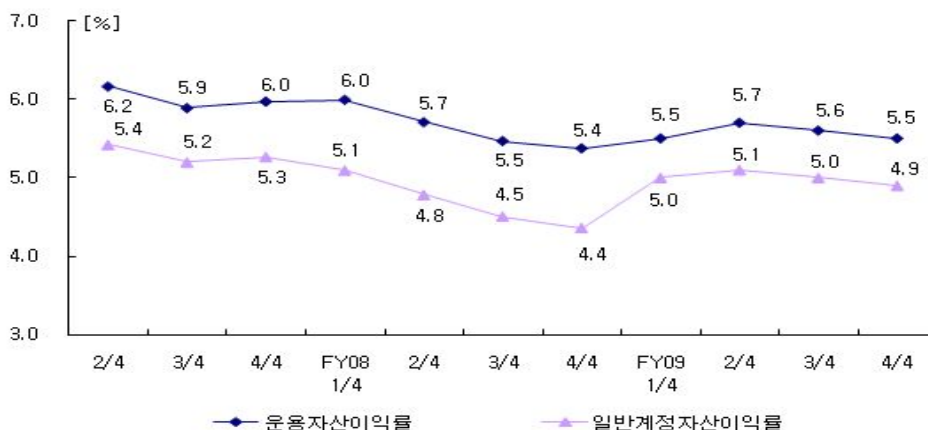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0.5%p 높아진 4.1%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기매매증권 부문에서 전년도 금융위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크게 회복되고, 매도가능증권 부문에서도 채권을 중심으로 회복된 것에 기인함.

○ 반면, 대출채권과 부동산 부문의 이익률은 각각 0.7%p 하락한 7.9%, 4.2%로 나타남.

□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투자비중은 유가증권 63.1%, 대출채권 21.5%, 부동산 4.0%, 현금과 예금 3.2%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에 비해 현금과 예금, 대출, 부동산의 비중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의 비중은 4.2%p 증대되었으며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짐.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 환산)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4.4	3.8	3.5	3.1	3.3	3.0	3.5	2.9	3.2	2.9
유 가 증 권	58.9	4.3	60.8	4.8	61.7	5.0	62.0	5.0	63.1	4.8
○ 단기매매증권	1.4	-3.5	1.4	7.0	1.2	6.7	1.1	5.9	1.6	4.1
- 주 식	0.0	-26.2	0.0	63.0	0.0	93.3	0.0	70.2	0.0	56.2
- 채권 등	0.4	-7.3	0.3	8.9	0.3	6.3	0.3	6.2	0.3	4.3
- 수익증권	1.0	2.3	1.1	4.6	0.8	4.7	0.8	4.4	1.4	3.4
○ 매도가능증권	45.8	4.2	46.5	4.4	47.2	4.7	47.3	4.7	47.8	4.6
- 주 식	4.2	1.9	4.3	0.7	5.3	1.1	5.0	0.9	4.9	1.7
- 채권 등	38.4	4.3	38.8	4.8	38.3	5.1	38.6	5.1	39.5	5.0
- 수익증권	3.3	6.7	3.4	5.0	3.6	5.6	3.8	4.7	3.5	4.1
○ 만기보유증권	10.8	5.5	11.9	4.7	12.5	4.9	12.7	5.2	12.8	5.3
- 채권 등	10.8	5.5	11.9	4.6	12.5	4.9	12.7	5.2	12.8	5.3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9	8.4	0.9	23.6	0.9	19.0	0.9	16.5	0.9	13.8
대 출 채 권	22.9	8.6	22.3	8.2	22.2	8.0	21.9	8.0	21.5	7.9
부 동 산	4.3	4.9	4.2	4.0	4.0	5.5	3.9	4.5	4.0	4.2
운 용 자 산 계	90.5	5.4	90.8	5.5	91.2	5.7	91.3	5.6	91.7	5.5
비 운 용 자 산	9.5	-4.4	9.2	-0.5	8.8	-0.6	8.7	-0.6	8.3	-0.3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률)	100.0	4.4	100.0	5.0	100.0	5.1	100.0	5.0	100.0	4.9
	(82.5)		(81.7)		(81.2)		(80.8)		(80.6)	
특 별 계 정 자 산	17.5	-1.6	18.3	16.1	19.1	17.6	19.2	13.7	19.4	11.1
총 자 산	100.0	3.3	100.0	6.9	100.0	7.3	100.0	6.6	100.0	6.1
총 자 산 규 모	3,283,321		3,388,638		3,527,890		3,614,323		3,725,247	

주 :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9 4/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임직원, 방카슈랑스 부문에서 확대되고 설계사 및 대리점 부문에서는 축소됨.
-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고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단체보험의 주채널인 임직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4%p 증가한 14.2%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 비중은 저축성상품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4/4분기 방카슈랑스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2.6%p 높아진 49.1%로 나타남.
 - 설계사를 통한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임직원과 방카슈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초회보험료 중 설계사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3.9%p 축소된 28.6%로 나타남.
 - 대리점 비중은 계속해서 축소되는 모습이며 4/4분기에도 1.4%p 감소한 7.7%로 나타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 직 원	29.5	11.8	17.8	15.4	7.5	46.9	14.2	27.0
설 계 사	39.9	32.5	36.0	36.2	35.9	19.5	28.6	27.1
대 리 점	9.7	9.1	8.8	8.8	8.2	5.6	7.7	7.0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20.7	46.5	37.3	39.5	48.2	27.8	49.1	38.6
기 타	0.1	0.1	0.1	0.1	0.3	0.2	0.3	0.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364	15,510	67,375	12,973	17,200	40,990	25,688	96,851

주 :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9 4/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임직원이 소폭 증가한 반면 설계사, 대리점 수는 모두 전분기대비 감소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임직원수는 4/4분기 계절적 요인으로 소폭 증가함.
 - 설계사수는 전분기에 비해 1,488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속설계사는 606명 감소하였고 교차설계사는 882명 감소함.
 - 금융위기 이후 영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사의 전속설계사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대형3사 및 국내 중소형사에서는 교차설계사가 많이 감소함.
 - 전속설계사 채널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대형3사의 전속설계사는 유일하게 증가함.
 - 대리점수는 법인대리점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개인대리점이 172개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43개 감소함.
 - 법인대리점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3사의 개인대리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8,147	28,137	28,300	27,421	27,131	26,541	26,693
설 계 사	173,434	176,090	171,347	168,874	165,852	164,175	162,687
- 전속	-	-	145,834*	143,588	140,796	141,067	140,461
- 교차	-	-	25,513*	25,286	25,056	23,108	22,226
대 리 점	12,584	13,695	13,120	13,588	13,739	13,387	13,244
- 개인	8,924	10,311	9,357	9,014	8,940	8,874	8,702
- 법인	3,660	3,384	3,763	4,574	4,799	4,513	4,542

주 : *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9 4/4분기 손해보험의 전체 원수보험료 규모는 장기성보험¹⁾의 성장세 지속, 자동차보험의 회복세, 일반손해보험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9.4% 증가한 11조 3,058억원을 나타냄.
-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판매 호조에 따른 장기손해보험 부문의 고성장과 퇴직 및 개인연금의 수요 증대로 전년동기대비 28.3% 증가한 7조 894억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실물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차량등록대수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강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2조 8,252억원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해상, 보증,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한 1조 3,912억원을 시현함.
- FY2009는 장기성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전년대비 각각 26.4%, 2.6%, 8.7% 증가함에 따라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전년대비 16.9% 성장한 43조 8,323억원을 나타냄.
- FY2009 4/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장 및 투자수익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3.8% 증가한 86조 1,222억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자산은 전분기대비 3.6% 증가한 82조 8,179억원을 나타냈고 특별계정자산은 전분기대비 9.5% 증가한 3조 3,042억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자산 가운데 운용자산 규모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증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3.7% 증가했으며,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포함하는 비운용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3.1% 증가함.

1)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말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99,218	94,674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7.6	9.3	10.3	11.7	14.9	21.1	19.4	16.9
- 장기성	57,163	55,247	211,812	58,034	62,410	76,291	70,894	267,629
	10.8	16.3	15.2	18.3	23.9	33.5	28.3	26.4
- 자동차	27,574	26,554	109,371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1.2	-3.2	1.2	-0.6	1.4	3.3	6.4	2.6
- 일반손해	14,481	12,873	53,771	14,763	14,454	15,341	13,912	58,470
	13.9	9.8	12.2	12.6	8.7	5.9	8.1	8.7
총 자 산	714,866	739,895	739,895	766,082	794,726	829,558	861,222	861,222
	3.5	3.5	12.1	3.5	3.7	4.4	3.8	16.4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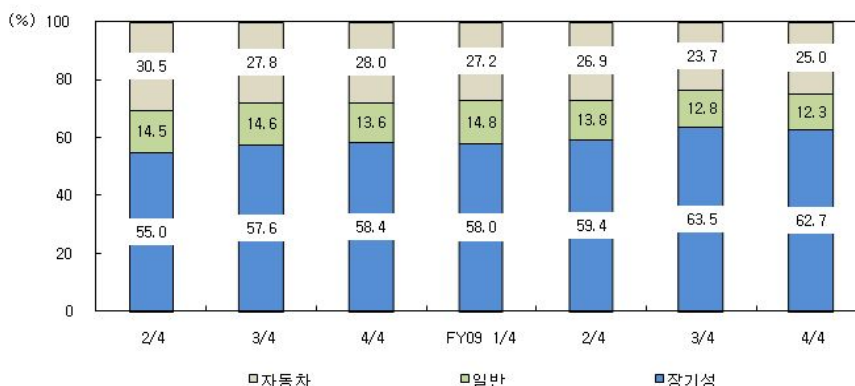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원수보험료 기준 FY2009 4/4분기 종목별 구성비는 장기성보험 비중 확대 추세가 둔화된 반면, 성장력을 회복한 자동차보험 비중이 소폭 확대됨.

-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0%p 증가한 62.7%를 나타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0.8%p 감소해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짐.
- 매분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장기성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자동차보험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전분기대비 1.3%p 증가한 25.0%를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은 전분기에 12%대로 진입한 이후 4/4분기에도 12.3%를 기록하여 더 낮아진 구성비를 나타냄.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종목별 보험료 현황

1) 장기성보험(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장기성보험 부문의 FY2009 4/4분기 원수보험료 규모는 퇴직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퇴직 및 개인연금의 수요 확대와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28.3% 증가한 7조 894억원을 시현함.
 - 장기성보험은 금년 말 제도 종료를 앞둔 퇴직보험을 제외하고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수요 증가와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확대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감.
 - FY2009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26.4% 고성장함.
- FY2009 4/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며 전년동기대비 27.0% 증가한 6조 3,158억원을 기록함.
 - 작년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개정 효과로 인해 급증한 초회보험료가 계속보험료로 이어지면서 분기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함.
 - FY2009 장기손해보험은 전년대비 23.4% 성장하였는데, 이는 FY2006 통합형보험의 판매 급증으로 사상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던 FY2006보다도 높은 수치임.

□ FY2009 4/4분기 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는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업계의 판매 전략 확대가 최근 경기회복 추세와 맞물리면서 전년동기대비 49.9% 급증한 4,048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확대됨.

○ 목돈 마련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대비 상품으로 개인연금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 지속과 최근 완연해진 경기 회복세로 성장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FY2009 4/4분기 퇴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8.4% 감소한데 반해, 퇴직연금은 112.4% 급증해 금년 말로 예정된 퇴직보험 제도 개정(퇴직보험·신탁제도의 종료)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장 기 손 해	보험료	47,761	49,749	188,829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성장률	14.7	14.9	15.5	18.3	23.3	24.5	27.0	23.4
	구성비	83.6	90.0	89.1	91.5	91.8	77.9	89.1	87.1
개 인 연 금	보험료	3,394	3,449	12,853	3,654	4,048	4,971	5,169	17,841
	성장률	29.1	27.1	28.6	25.7	30.4	46.5	49.9	38.8
	구성비	5.9	6.2	6.1	6.3	6.5	6.5	7.3	6.7
퇴 직 보 험	보험료	4,770	1,110	6,807	758	521	6,828	573	8,680
	성장률	-21.1	18.7	-17.6	46.4	27.3	43.1	-48.4	27.5
	구성비	8.4	2.0	3.2	1.3	0.8	8.9	0.8	3.2
퇴 직 연 금	보험료	1,238	939	3,322	534	541	5,049	1,994	8,119
	성장률	-1.5	75.2	55.7	-29.4	39.3	307.9	112.4	144.4
	구성비	2.2	1.7	1.6	0.9	0.9	6.6	2.8	3.0
합 계	보험료	57,163	55,247	211,812	58,034	62,410	76,291	70,894	267,629
	성장률	10.8	16.3	15.2	18.3	23.9	33.5	28.3	26.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장기성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임.

2)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I의 자산연계형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퇴직보험은 내년부터 퇴직보험 및 신탁에 대한 손비인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규계약 감소와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

으로 풀이됨.

- 반면,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진전과 대형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관련 인력 확충 및 마케팅 강화 등에 힘입어 전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지속함.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실적>

- FY2009 4/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를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해보험·질병보험 등 실손의료보장 관련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저축성보험도 신규 수요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해 및 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작년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개정으로 실손보장 축소(100%→90%)가 시행되면서 관련 상품의 신규계약이 급감하고 있으나,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5.1%, 35.9% 증가한 1조 6,964억원과 1조 3,294억원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 그러나 상해 및 질병보험의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각각 5.0%p, 12.5%p 감소해 전분기에 이어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저축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 및 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실손의료보험의 신규계약 부진에 대비한 업계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 등으로 인해 분기실적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상회하며 전년동기대비 56.1% 급증함.
- FY2009 4/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앞세운 저축성보험의 신규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한 3,300억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급증을 주도하던 실손의료보험의 선계약 효과 종료, 중복가입에 대한 사전확인 강화,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에 따른 업권간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상해·질병·통합형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2.1%, 65.7%, 37.3% 감소함.

<표 13>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2,678	13,770	49,702	15,041	15,650	16,414	16,964	64,069
		성장률	24.5	28.4	25.5	32.8	31.2	30.1	25.1	28.9
	운전자	보험료	5,197	5,075	20,904	5,008	4,994	5,160	5,459	20,621
		성장률	-3.4	-5.9	-2.1	-6.5	-5.4	-0.7	7.6	-1.4
	재 물	보험료	4,539	4,523	18,113	4,550	4,548	4,701	4,836	18,635
		성장률	1.6	0.8	2.8	0.4	0.4	3.6	6.9	2.9
	질 병	보험료	8,698	9,590	33,755	10,568	12,992	13,000	13,294	49,853
		성장률	24.1	32.9	23.2	40.7	62.2	48.4	35.9	47.7
	저축성	보험료	7,369	7,480	29,639	8,479	9,040	9,924	11,676	39,119
		성장률	8.7	4.3	8.7	16.2	20.7	34.7	56.1	32.0
	통합형	보험료	9,175	9,206	36,403	9,330	9,925	10,129	10,335	39,719
		성장률	17.1	10.7	20.6	5.6	8.1	10.4	12.1	9.1
	자산 연계형	보험료	105	104	313	111	151	117	594	973
		성장률	-	-	-	-	45.7	10.7	469.3	210.5
	소 계	보험료	47,761	49,749	188,829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성장률	14.7	14.9	15.5	18.3	23.3	24.5	27.0	23.4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597	824	2,365	645	793	350	478	2,266
		성장률	49.8	60.9	36.9	42.8	61.1	-41.4	-42.1	-4.2
	운전자	보험료	104	108	424	121	119	210	200	650
		성장률	-28.0	-18.6	-25.9	7.9	18.4	103.0	85.0	53.2
	재 물	보험료	149	166	622	172	130	200	190	692
		성장률	-10.5	2.6	-0.2	0.1	-4.2	34.2	15.0	11.2
	질 병	보험료	495	719	1,762	513	753	283	247	1,796
		성장률	156.2	234.5	129.8	131.3	130.9	-42.8	-65.7	1.9
	저축성	보험료	462	652	2,405	1,091	1,153	1,095	1,716	5,056
		성장률	4.4	-22.6	-5.8	69.7	77.9	137.2	163.4	110.3
	통합형	보험료	151	219	851	181	322	110	137	750
		성장률	-40.8	-28.6	-23.1	-31.5	48.4	-27.5	-37.3	-11.9
	자산 연계형	보험료	-	-	-	-	-	30	332	362
		성장률	-	-	-	-	-	-	-	-
	소 계	보험료	1,957	2,687	8,429	2,724	3,270	2,278	3,300	11,572
		성장률	22.4	23.9	14.7	46.0	70.4	16.4	22.8	37.3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2,081	12,946	47,337	14,396	14,857	16,065	16,487	61,803
		성장률	23.5	24.8	24.9	32.4	29.9	33.0	29.4	30.6
	운전자	보험료	5,093	4,967	20,480	4,887	4,875	4,949	5,259	19,971
		성장률	-2.8	-5.6	-1.4	-6.8	-5.8	-2.8	5.9	-2.5
	재 물	보험료	4,390	4,358	17,491	4,378	4,418	4,502	4,646	17,943
		성장률	2.1	0.8	2.9	0.4	0.8	2.6	6.6	2.6
	질 병	보험료	8,203	8,871	31,992	10,055	12,239	12,716	13,047	48,057
		성장률	20.4	26.7	20.1	37.9	60.4	55.0	43.9	50.2
	저축성	보험료	6,907	6,828	27,234	7,388	7,887	8,829	9,960	34,063
		성장률	9.1	7.9	10.2	11.0	15.3	27.8	45.9	25.1
	통합형	보험료	9,024	8,988	35,552	9,149	9,603	10,019	10,198	38,969
		성장률	18.9	12.2	22.3	6.7	7.1	11.0	13.3	9.6
	자산 연계형	보험료	-	-	-	-	-	87	262	348
		성장률	-	-	-	-	-	-	-	-
	소 계	보험료	45,804	47,062	180,086	50,364	54,028	57,167	59,858	221,154
		성장률	14.4	14.4	15.4	17.1	21.3	24.8	27.2	22.7

주 :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반면,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타 업권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고금리를 장점으로 수요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163.4% 급증했으며, 채권 및 주식연계 자산연계형보험도 대형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판매 확대 노력으로 신규계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FY2009 4/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종목별 계속보험료는 전년도 신규계약 급증과 해지율 안정화로 상해보험·질병보험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저축성보험도 성장폭이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29.4%, 43.9% 증가함.
- 신규계약 급증과 해지율의 안정화 추세 지속 등에 힘입어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의 계속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3.0%, 55.0% 증가했으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됨.
- 신규계약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45.9% 증가한 저축성보험의 계속보험료는 매분기 성장폭이 확대되며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음.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 FY2009 4/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한 15.8%로 나타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됨.

<표 14>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 해	12.9	17.2	17.2	6.0	10.9	14.1	16.9	16.9
운전자	13.1	17.6	17.6	5.5	10.4	12.7	15.3	15.3
재 물	11.9	15.1	15.1	4.9	7.7	10.7	13.5	13.5
질 병	11.5	14.8	14.8	4.6	9.3	12.6	16.0	16.0
저축성	15.0	19.7	19.7	5.9	9.6	13.4	17.0	17.0
통합형	8.0	10.1	10.1	4.6	4.4	10.9	13.2	13.2
계	12.9	16.9	16.9	5.4	9.7	12.8	15.8	15.8

주 : 1) 해지율=(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질병보험 및 통합형보험의 누적 해지율은 해약액 및 효력상실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임.

2) 자동차보험

- FY2009 4/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실물경기 회복의 본격화로 인한 차량등록대수 증가세 확대,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2조 8,252억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시장은 내수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차량등록대수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대로 회복되고, 보험료가 고가인 신차·수입차·대형차량의 판매 증가 및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FY2008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담보별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했으나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시현한데 힘입어 종합보험 부문이 11.7% 증가함.
 - 2008년 하반기 요율인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인배상 I의 원수보험료는 4/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했으나, 전분기 5.0%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다소 축소됨.
 - 종합보험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원수보험료가 차량의 고급화·대형화 경향으로 물적보상의 한도 증액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6%, 15.2% 증가해 전체 종합보험 성장을 견인함.
 - 또한 인적 담보인 대인배상 II(대인 II)와 자기신체사고(자손)의 원수보험료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6.0%, 8.5% 증가하는 등 고액사고 위험에 종합적으로 대비하려는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9,090	8,565	35,923	8,424	8,908	8,632	8,245	34,210
종합 보 험	대인 II	3,088	2,916	12,215	3,053	3,117	3,151	3,093	12,414
	대물	6,845	6,679	26,710	6,996	7,339	7,328	7,455	29,118
	자차	6,566	6,289	25,836	6,530	6,651	7,088	7,245	27,514
	자손	731	921	3,804	961	960	998	999	3,919
	무보험	280	268	1,098	272	282	284	276	1,114
	소계	17,511	17,073	69,664	17,812	18,350	18,849	19,067	74,079
외화표시		43	21	127	33	21	35	21	108
이륜자동차		106	98	460	145	140	121	112	518
기타		824	796	3,198	827	830	846	808	3,310
합계		27,574	26,554	109,371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4/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률 증가에 따른 손해액 급증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9%p 증가한 78.6%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의 손해율은 2008년 단행된 보험료 인하 효과의 영향으로 경과보험료는 감소한 반면, 손해액은 오히려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7.7%p 악화됨.

○ 종합보험의 손해율은 유가 안정화 및 내수경기 회복 본격화가 차량 운행량 증가로 이어지고, 겨울철 폭설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손해액 증가율이 경과보험료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8.7% 악화된 83.0%를 시현함.

- 특히, 대물사고 관련 손해액이 큰 폭으로 증대됨에 따라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손해율이 각각 83.2%, 92.3%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7.1%p, 17.8%p 상승함.

<표 16>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대인 I		74.7	61.3	66.6	68.1	71.8	75.7	69.0	71.1
종합 보험	대인 II	57.7	70.9	73.5	69.0	62.1	68.7	68.0	66.9
	대물	78.4	76.1	75.4	76.9	78.5	86.7	83.2	81.3
	자차	72.1	74.5	68.9	72.6	79.1	81.8	92.3	81.6
	자손	56.8	82.2	60.6	66.0	64.9	74.1	78.4	70.9
	무보험	43.0	37.9	35.8	21.1	63.0	47.3	30.1	40.5
	소계	70.5	74.3	71.1	72.5	75.0	80.5	83.0	77.8
외화표시		58.5	58.2	62.3	63.4	48.2	52.9	52.2	54.4
이륜자동차		95.2	71.2	94.6	93.9	94.2	85.7	68.6	85.5
기타		72.3	67.8	68.6	66.0	76.0	79.4	81.1	75.7
합계		72.1	69.7	69.7	71.0	74.1	79.0	78.6	75.7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일반손해보험

□ FY2009 4/4분기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을 제외한 기타 종목이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8.1% 성장한 1조 3,912억원을 시현함.

- 화재보험은 물건이탈 추세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3%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성장 기조가 되살아남.
- 해상보험의 경우 환율 안정화와 전년동기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5.5%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냄.
- 보증보험은 공공토목 부문의 성장과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4%의 성장세를 시현함.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기술보험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2.6% 성장함.

- FY2009 전체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보증과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8.7% 증가한 5조 8,470억원을 시현함.

<표 17>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792	710	2,835	654	632	798	679	2,763
	성장률	-9.8	-8.4	-7.8	-6.6	-0.1	0.7	-4.3	-2.5
	구성비	5.5	5.5	5.3	4.4	4.4	5.2	4.9	4.7
해 상	보험료	2,564	1,864	8,507	2,215	2,009	1,858	1,967	8,049
	성장률	72.6	23.1	30.5	2.2	5.1	-27.5	5.5	-5.4
	구성비	17.7	14.5	15.8	15.0	13.9	12.1	14.1	13.8
보 증	보험료	2,821	2,966	11,529	3,165	2,890	3,106	3,126	12,287
	성장률	8.4	15.3	16.0	12.5	-1.3	10.1	5.4	6.6
	구성비	19.5	23.0	21.4	21.4	20.0	20.2	22.5	21.0
특 종	보험료	7,668	6,754	29,119	8,345	8,422	8,919	7,606	33,293
	성장률	2.8	4.3	6.9	15.8	12.5	16.3	12.6	14.3
	구성비	52.9	52.5	54.2	56.5	58.3	58.1	54.7	56.9
해 외 원보험	보험료	637	580	1,781	383	500	661	534	2,078
	성장률	113.9	51.3	58.1	71.1	46.6	3.8	-7.9	16.7
	구성비	4.4	4.5	3.3	2.6	3.5	4.3	3.8	3.6
합 계	보험료	14,481	12,873	53,771	14,763	14,454	15,341	13,912	58,470
	성장률	13.9	9.8	12.2	12.6	8.7	5.9	8.1	8.7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4/4분기 화재보험은 대부분의 종목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한 679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함.

- 물건이탈 추세가 살아나면서 주택, 일반, 공장물건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3.0%, 3.3%, 4.1% 감소하여 전체 화재보험이 4.3% 감소했으며, 전분기 공장물건의 가입 증가로 나타난 플러스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됨.

- FY2009 4/4분기 해상보험은 선박과 적하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 우주, 해양종합 보험의 양호한 증가세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5.5% 성

장한 1,967억원을 나타냄.

- 선박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5.5% 감소한 724억원을 기록하고 적하보험도 11.5% 감소한 624억원을 나타냈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전년동기의 높은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 항공, 우주²⁾, 해양종합 보험은 각각 211억원, 286억원, 71억원의 양호한 원수보험료 실적을 보이며 선박과 적하보험의 감소세를 상쇄하고 해상보험의 소폭 성장을 견인함.
- FY2009 4/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공공건설 경기회복에 따른 보증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4% 성장한 3,126억원을 시현함.
 -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확대 추세가 가속화되고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건설보증 및 이행보증보험을 포함하는 보증보험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5.4% 성장함.
- FY2009 4/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기술 및 상해보험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 7,606억원을 나타냄.
 - 상해보험은 단체상해보험의 10.7% 성장,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여행보험의 10.8% 성장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6.1% 성장한 2,633억원을 기록함.
 - 종합보험은 비중이 큰 기업성 물건이 전년동기대비 1.9% 성장에 그친 반면 가계성 물건이 9.5%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2,025억원을 나타냄.
 - 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0.5%, 9.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업인 관련 배상책임보험이 22.9% 증가한 데 힘입어 3.9% 성장함.
 - 기술보험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관련 기술보험이 건설경기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37.7% 성장함으로써 기타 기술보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4.4% 성장함.

2) 우주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는 기상위성과 관련한 보험료 증가에 기인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9 4/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국내 기타사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상위 4사, 전업사 및 외국사의 비중은 소폭 축소됨.

○ 국내 기타사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장기손해보험의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들의 판매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한 25.0%를 나타냄.

○ 반면, 상위 4사와 전업사,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1%p 감소한 69.0%, 2.8%, 3.2%를 시현함.

□ FY2009 4/4분기 허핀달지수는 0.143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낮아졌으나, 감소폭은 0.0002p로 매우 미미함.

<표 18> 손해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4사	68.6	69.1	68.9(11.7)	68.1	68.5	69.3	69.0	68.8(16.7)
국내 기타사	24.8	24.8	24.5(21.4)	25.4	25.4	25.2	25.0	25.2(20.5)
전업사	3.0	2.9	3.1(16.0)	3.2	2.8	2.6	2.8	2.8(6.6)
외국사	3.6	3.3	3.6(31.3)	3.3	3.4	2.9	3.2	3.2(4.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3.6	3.3	3.5(7.1)	3.3	3.4	3.0	3.3	3.2(7.2)
허핀달지수	0.1430	0.1439	0.1440	0.1402	0.1409	0.1440	0.1437	0.1436

주 :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 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 원보험, 미즈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4) ()는 연간 원수보험료 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지상황

〈당기순이익〉

- FY2009 4/4분기 누적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함으로써 전년대비 18.1% 증가한 1조 5,414억원을 실현함.
- 보험영업이익은 수익측면에서 경과보험료가 전년대비 14.4%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측면에서 발생손해액이 13.0% 증가하고 순사업비와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도 각각 7.3%, 54.7% 증가함에 따라 9,365억원의 적자를 나타냄.

<표 19>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173,111	263,661	356,806	95,170	195,656	299,884	408,165
	투자영업	20,110	31,161	41,704	11,829	22,448	32,202	42,559
	기타	4,394	11,934	14,693	2,339	4,671	17,296	21,181
	소계	197,615	306,756	413,204	109,338	222,776	349,382	471,905
총 비 용	보험영업	172,682	266,477	365,299	96,455	199,392	305,177	417,530
	투자영업	6,692	11,789	15,398	3,043	6,093	8,457	11,146
	기타	4,508	12,079	14,740	2,806	5,357	18,420	22,515
	소계	183,882	290,345	395,436	102,304	210,842	332,055	451,192
수 지 차	보험영업	429	-2,816	-8,492	-1,284	-3,736	-5,293	-9,365
	투자영업	13,418	19,372	26,307	8,786	16,355	23,745	31,413
	기타	-114	-145	-46	-467	-686	-1,124	-1,335
	소계	13,733	16,411	17,768	7,035	11,934	17,327	20,713
법 인 세		3,623	4,325	4,661	1,645	2,877	4,294	5,299
당기순이익		10,110	12,086	13,107	5,390	9,056	13,033	15,414

주 :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금을 제외한 누적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수익이 전년대비 2.0% 증가에 그친 반면, 투자영업비용이 유가증권평가·처분손실과 파생상품평가·거래손실 등의 감소로 27.6% 축소됨에 따라 19.4% 증가한 3조 1,413억원을 기록함.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9 4/4분기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비중이 큰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1.7%p 높아진 78.2%를 기록함.
- FY2009 4/4분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사고율 증가와 차량 운행 증가 추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손해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9%p 증가한 78.6%로 상승함.
 -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하반기 신계약 감소에 따른 경과보험료 증가세 둔화 및 지급보험금 급증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79.8%를 나타냄.

<표 20>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율	화재보험	47.7	37.9	39.7	32.4	37.1	54.3	39.9	32.0
	해상보험	82.5	301.8	127.1	82.4	89.0	85.4	81.9	77.4
	보증보험	78.5	43.6	48.9	66.1	47.9	31.5	88.0	58.0
	특종보험	69.0	68.3	64.7	61.4	67.2	63.0	57.4	62.4
	해외원보험	48.8	50.5	45.8	39.2	29.0	29.0	35.2	32.7
	해외수재보험	84.1	93.7	91.0	57.9	60.0	60.2	59.3	59.3
	자동차보험	72.1	69.7	69.7	71.0	74.1	79.0	78.6	75.7
	장기손보*	79.0	78.0	79.4	78.9	78.5	80.1	81.5	79.8
	전 체	75.9	76.4	74.8	74.2	74.9	76.7	78.2	76.0
사업비율		25.5	28.4	25.4	24.8	25.2	22.5	22.8	23.8
합산비율		101.4	104.9	100.3	98.9	100.1	99.1	100.9	99.8

주 : 1)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4/4분기 사업비율은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6%p 감소한 22.8%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한 31.7%를 나타냈고,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신계약 유입의 감소세로 인해 수수료 비용이 축소되면서 전체 사업비 규모도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9.4%p 감소한 17.5%를 시현함.
- FY2009 4/4분기 합산비율³⁾은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1.8%p 상승했으나 사업비율이 5.6%p 하락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4.0%p 낮아진 100.9%를 시현함.
-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은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7%p 높아진 110.3%로 나타났으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는 사업비율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5.9%p 감소한 99.0%로 나타남.

라. 자산운용

- FY2009 4/4분기 자산운용 구성비는 유가증권 52.9%, 대출채권 18.5%, 부동산 6.2%, 현금과예금 5.1%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 유가증권 가운데는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만기보유증권 4.0%, 단기매매증권 3.0%, 투자주식 1.3%의 순으로 나타남.
- FY2009 4/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비중이 큰 유가증권 부문에서 이익율이 5.6%로 양호하게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5.1%를 기록함.
- 유가증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도가능증권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의 투자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6%p, 0.4%p, 3.9%p 상승한 9.7%, 5.6%, 3.1%를 기록함에 따라 5.4%의 이익률을 시현함.

3)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임.

4)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이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만을 포함시켰고 비운용자산 비중 17.3%는 논의에서 제외함.

<표 21>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4/4		1/4		2/4		3/4		4/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5.9	7.1	5.3	1.5	5.0	1.5	5.5	1.4	5.1	1.6
유 가 증 권	52.1	3.8	52.8	6.7	52.3	6.2	52.1	5.7	52.9	5.6
○ 단기매매증권	3.5	1.5	3.1	9.8	2.2	9.4	2.3	7.9	3.0	6.5
- 주 식	0.1	-34.1	0.1	104.0	0.2	87.5	0.2	54.2	0.2	38.5
- 채 권 등	0.6	5.5	1.2	6.8	1.0	7.6	0.3	9.3	0.4	7.0
- 수익증권	2.8	2.7	1.8	7.8	1.0	6.2	1.8	5.1	2.4	4.9
○ 매도가능증권	44.3	3.9	44.7	6.6	45.1	6.0	44.5	5.6	44.6	5.4
- 주 식	4.7	4.1	4.7	19.2	5.2	14.2	4.9	11.0	4.9	9.7
- 채 권 등	30.5	5.2	36.3	5.7	35.7	5.6	28.8	5.5	28.5	5.6
- 수익증권	9.0	-0.8	3.7	3.6	4.2	3.0	10.9	3.2	11.2	3.1
○ 만기보유증권	3.1	3.9	3.7	4.9	3.8	6.0	3.9	5.1	4.0	6.1
- 채 권 등	2.9	5.1	3.7	5.7	3.8	6.3	3.7	5.3	3.8	6.4
- 수익증권	0.3	-6.0	0.0	-5.8	0.0	2.8	0.2	1.6	0.2	2.6
○ 투자주식	1.3	7.4	1.2	7.2	1.3	9.3	1.4	7.5	1.3	5.5
대 출 채 권	18.5	7.0	18.0	7.2	18.3	6.4	18.6	6.3	18.5	6.4
부 동 산	6.7	1.9	6.7	0.5	6.5	0.7	6.3	0.8	6.2	0.9
운 용 자 산 계	83.2	4.6	82.8	6.0	82.1	5.5	82.6	5.1	82.7	5.1
비 운 용 자 산	16.8	-0.1	17.2	0.0	17.9	0.0	17.4	0.0	17.3	0.0
일반계정 자산계	100.0	3.7	100.0	4.9	100.0	4.5	100.0	4.2	100.0	4.2
일 반 계 정 자 산	96.2	3.7	96.4	4.9	96.6	4.5	96.4	4.2	96.2	4.2
특 별 계 정 자 산	3.8	-	3.6	-	3.4	-	3.6	-	3.8	-
총 자 산	100.0	3.6	100.0	4.7	100.0	4.3	100.0	4.0	100.0	4.0
총 자 산 규 모	739,895		766,082		794,726		829,558		861,222	

주 : 1)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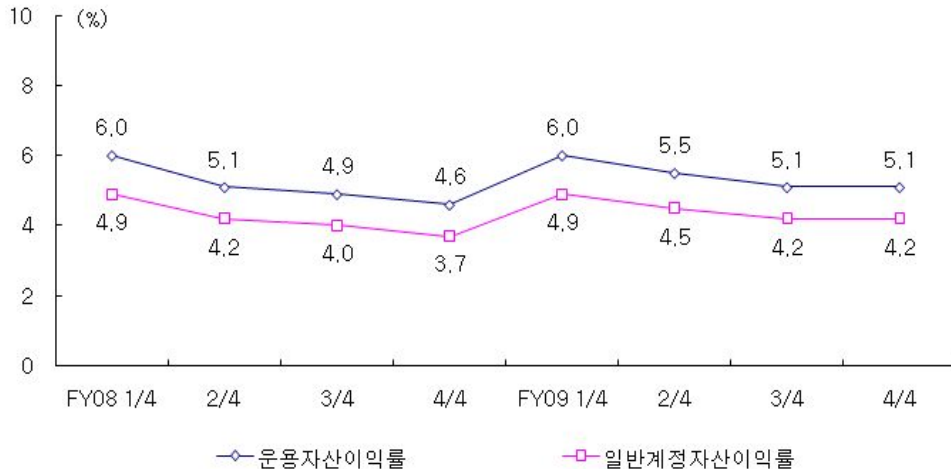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대출채권의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낮아진 6.4%를 기록했으며 부동산은 0.9%의 이익률을 시현함.

□ FY2009 4/4분기의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을 포괄한 일반계정자산 전체의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4.2%로 나타남.

-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했고 비운용자산의 이익률은 전년 동기대비 0.1%p 상승함.

<그림 4>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9 4/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회사직급, 대리점, 중개사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설계사, 방카슈랑스, 공동인수의 비중은 확대됨.

- 회사직급, 대리점 및 중개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p, 2.0%p, 0.1%p 감소한 11.6%, 44.8%, 0.6%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원수보험료 규모가 큰 쪽으로 증가한 설계사 및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각각 2.3%p, 1.2%p, 0.3%p 증대된 35.8%, 6.6%, 0.6%로 나타남.

-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직급 채널의 경우, 퇴직연금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의 부진 여파로 비중이 다소 축소됨.

<표 22>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회사직급	15,919	12,692	52,380	15,043	12,057	10,906	12,855	50,862
	16.0	13.4	14.0	15.0	11.5	10.3	11.6	12.1
설계사	31,847	31,711	124,660	32,752	36,416	36,668	39,577	145,413
	32.1	33.5	33.2	32.7	34.6	34.6	35.8	34.5
대 리 점	45,071	44,282	173,521	45,403	49,505	50,919	49,473	195,300
	45.4	46.8	46.3	45.4	47.1	48.1	44.8	46.3
중개사	1,032	623	3,098	829	909	836	626	3,201
	1.0	0.7	0.8	0.8	0.9	0.8	0.6	0.8
방카슈랑스	5,005	5,085	19,994	5,721	5,997	5,973	7,280	24,971
	5.0	5.4	5.3	5.7	5.7	5.6	6.6	5.9
공동인수	344	281	1,301	290	228	580	680	1,777
	0.3	0.3	0.3	0.3	0.2	0.5	0.6	0.4
전 체	99,218	94,674	374,954	100,038	105,112	105,883	110,491	421,5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09 4/4분기 말 손해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임직원 수가 전분기대비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설계사 및 대리점 수 모두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신규채용에 따른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원 증가로 전분기대비 223명 증대된 2만 8,796명으로 집계됨.
- 손해보험 모집인으로 등록된 전체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3,336명 감소한 16만 8,796명 수준임.
- 전속설계사 수는 3,836명 감소한 8만 3,020명이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교차설계사 수는 작년 말 실손의료보장 상품 표준화 영향으로 500여 명 증가에 그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의 지속적인 감소세로 전분기대비 1,021개 증가한 4만 5,049개로 집계됨.
- 전체 대리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대리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법인대리점 수는 FY2008 1/4분기 이후 증가 추세에 있어 독립법인대리점(GA)의 활성화 및 대리점 대형화 추세가 진전되고 있음.

<표 23>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1/4	2/4	3/4	4/4
임직원	27,876	28,425	28,250	28,271	28,317	28,563	28,796
설계사	116,758	145,214	155,809	161,615	164,383	167,539	164,203
- 전속	-	-	82,201*	87,963	84,487	86,856	83,020
- 교차	-	-	73,608*	73,652	79,896	80,683	81,183
대리점	43,647	44,859	45,998	46,607	46,238	46,070	45,049
- 개인	35,763	35,424	35,675	35,513	34,674	34,359	32,976
- 법인	7,884	9,435	10,323	11,094	11,564	11,711	12,073

주 :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해외보험시장 동향

▣ 미국 동향¹⁾

가. 생명보험

- 2010년 1/4분기(1~3월)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의 연간화 보험료²⁾는 10% 증가하여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섰으나, 전년동기 26%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고 보험료 규모 측면에서 볼 때에도 2003년 3/4분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종목별로는 유니버설보험이 17% 성장하여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또한 전년동기 30%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험료 규모는 2005년 1/4분기 수준에 불과함.
 - 유니버설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65%에서 신규보험료가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사 중 8개사의 신규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니버설보험의 계약건수는 21%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2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유니버설보험 다음으로 성장세가 양호한 종신보험의 성장률은 2002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1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입금액이 큰 상호회사의 신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임.
 - 상호회사의 평균 보험가입금액은 12만 5천 달러에 달하는데 비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만 5천 달러에 불과함.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연간화 보험료도 10% 증가하였으나, 정기보험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신규보험료 기준 종목별 누적 점유율을 살펴보면, 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의 점유율은 2009년 말보다 높아졌으나,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 점유율은 소폭 낮아짐.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2) 연간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일시납보험료 10%+정기납보험료

- 종목별 보험료 점유율은 유니버설보험이 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종신보험 26%, 정기보험 24%, 변액유니버설보험 8% 순으로 나타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간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

(단위 : %, 백만달러)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유니버설	-23	-8	43	-33	-27	-14	-3	-20	41	17
기타변액	-41	-33	0	-62	-79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18	-17	15	-61	-49	-52	-36	-49	9	10
정기	-3	-1	22	-4	-3	0	1	-1	26	-4
종신	2	2	20	-5	-3	12	12	4	24	15
계	-14	-7	100	-26	-20	-11	-5	-16	100	10
연간화 보험료	2,790	10,856		2,011	2,256	2,311	2,662	9,240		2,216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LIMRA, 2010. 6.

<표 2> 미국 신규 보험계약건수 증가율 추이

(단위 : %, 천 건)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유니버설	-9	-1	15	-7	8	5	15	5	15	21
기타변액	-55	-40	0	-23	-99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33	-21	3	-51	-50	-49	-42	-48	2	-15
정기	-5	-4	46	-5	-4	-1	-1	-3	46	-5
종신	-14	-2	36	-5	-4	7	6	0	37	1
계	-10	-4	100	-8	-4	1	3	-2	100	0
전체 건수	1,424	5,789		1,559	1,543	1,571	1,572	6,247		1,565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LIMRA, 2010. 6.

나. 연금보험

- 2010년 1/4분기 미국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보험료는 24.1% 감소한 514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확정연금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 1/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 514억 달러의 신규보험료는 2008년 4/4분기 686억 달러에 비해 25% 가량 감소한 것이며, 이는 2002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의 경우 2009년 1/4분기 이후 310~33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 1/4분기 481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65%에 불과한 수준임.
 - 확정연금은 변액보험 수요급감에 따른 반사효과와 한시적인 금리 혜택 등으로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했던 2009년 1/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신규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표 3>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10억 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변액연금	보험료	33.8	155.9	31	32.1	31.9	33	128	32.4
	성장률	-29.9	-15.4	-26.4	-23.9	-15.6	-2.4	-17.9	4.5
	비중	49.3	58.6	45.8	52.4	57.5	61.0	53.6	63.0
확정연금	보험료	34.8	110.1	36.7	29.2	23.6	21.1	110.6	19.0
	성장률	79.4	51.2	72.3	13.2	-16.3	-39.4	0.5	-48.2
	비중	50.7	41.4	54.2	47.6	42.5	39.0	46.4	37.0
합 계	보험료	68.6	266.0	67.7	61.3	55.5	54.1	238.6	51.4
	성장률	1.5	3.5	6.8	-9.9	-15.9	-21.1	-10.3	-24.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U.S. Individual Annuities, LIMRA, 2010. 6.

□ 개인연금 판매 현황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설계사와 독립중개인이 모두 20%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설계사,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 등이 각각 19%, 15%, 12%, 9%로 나타남.

○ 독립중개인은 변액연금 중 29.3%를 판매하며 2005년 1/4분기 이후 변액연금의 주력 판매채널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독립설계사는 확정연금 신규보험료의 40.7%를 차지하며 23분기 연속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함.

<표 4>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4/4	1/4	2/4	3/4	4/4	1/4
은행	19	19	20	19	19	15
전속설계사	20	21	21	20	21	20
직접판매	7	9	8	8	8	9
독립중개인	19	18	19	19	19	20
독립 설계사	18	17	17	17	17	19
증권 중개인	13	13	12	13	13	12
기타	4	3	3	4	4	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U.S. Individual Annuities, LIMRA, 2010. 6.

다. 장기간병보험 및 소득보상보험

□ 2010년 1/4분기 미국 장기간병보험의 신규보험료는 6분기 동안 지속된 감소세에서 벗어나 12.4%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나, 이는 2009년 1/4분기 30% 이상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 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 중 절반 이상에서 신규보험료가 증가하였으며, 상위 5개사의 성장률은 18%로 나타남.

<표 5> 미국 장기간병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건, 천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계 약 건 수	적격	건수	62,513	273,651	48,070	51,628	52,391	58,891	210,980	52,885
		증가율	-18.2	-5.8	-29.9	-27.6	-26.5	-5.8	-22.9	10.0
		구성비	99.3	99.0	99.2	99.0	99.0	99.3	99.1	99.2
	비적격	건수	441	2,849	368	527	513	412	1,820	412
		증가율	-45.2	-24.2	-48.5	-34.5	-42.4	-6.6	-36.1	12.0
		구성비	0.7	1.0	0.8	1.0	1.0	0.7	0.9	0.8
	전체	건수	62,954	276,500	48,438	5,2155	52,904	59,303	212,800	53,297
		증가율	-18.4	-6.0	-30.1	-27.7	-26.7	-5.8	-23.0	10.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적격	보험료	138,482	599,466	102,550	11,0624	116,529	131,352	461,055	115,327
		성장률	-19.4	-4.5	-32.7	-27.8	-24.9	-5.1	-23.1	12.5
		구성비	99.5	99.3	99.5	99.2	99.3	99.4	99.4	99.5
	비적격	보험료	691	4,519	557	842	825	782	3,006	615
		성장률	-58.4	-28.1	-50.5	-34.8	-41.5	13.2	-33.5	10.4
		구성비	0.5	0.7	0.5	0.8	0.7	0.6	0.6	0.5
	전체	보험료	139,173	603,985	103,108	11,1465	117,354	132,135	464,062	115,942
		성장률	-19.7	-4.7	-32.9	-27.9	-24.8	-5.1	-23.2	1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U.S. Individual LTC Insurance, LIMRA, 2010. 6.

□ 2010년 1/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4.4%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나 8.2% 감소한 2009년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종목별로는 Guaranteed Renewable³⁾과 Noncancellable⁴⁾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Guaranteed Renewable의 경우 1.3% 감소에 그쳐 7.2% 감소한 Noncancellable 보다 양호한 실적을 나타냄.

-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4) Non-cancellable :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표 6>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건, 천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계 약 건 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79,864	335,488	105,053	72,326	57,920	80,328	315,627	105,731
		증가율	23.2	3.6	-4.1	5.1	-25.0	0.6	-5.9	0.6
		구성비	65.4	65.9	75.8	66.6	58.5	66.7	67.6	77.5
	Noncancellable	건수	42,872	174,151	33,452	36,295	41,160	40,073	150,980	30,775
		증가율	-8.6	-1.2	-19.9	-16.5	-10.6	-6.5	-13.3	-8.0
		구성비	34.9	34.2	24.2	33.4	41.5	33.3	32.4	22.5
	전체	건수	122,736	509,639	138,505	108,621	99,080	120,401	466,607	136,506
		증가율	9.9	198	-8.5	-3.3	-19.6	-1.9	-8.4	-1.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52,334	211,186	61,198	42,849	45,356	49,365	198,768	60,396
		성장률	21.1	5.4	2.5	-13.7	-8.4	-5.7	-5.9	-1.3
		구성비	37.8	38.7	47.6	36.8	36.1	38.0	39.7	49.2
	Noncancellable	보험료	86,235	334,386	67,345	73,739	80,199	80,584	301,867	62,468
		성장률	-3.8	1.9	-13.0	-13.7	-6.0	-6.6	-9.7	-7.2
		구성비	62.2	61.3	52.4	63.2	63.9	62.0	60.3	50.8
	전체	보험료	138,569	545,572	128,544	116,588	125,555	129,949	500,635	122,864
		성장률	4.3	3.2	-6.3	-13.7	-6.9	-6.2	-8.2	-4.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LIMRA, 2010. 6.

라. 손해보험

- 미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1억 505억달러로 나타나면서 2007년 2/4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갔으나, 보험영업손실은 감소함.

<표 7>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금액	434,940	106,383	106,335	108,366	97,783	418,867	105,053
	성장률	-1.3	-3.8	-4.8	-5.0	-0.9	-3.7	-1.3
지급보험금	금액	339,036	78,722	75,277	77,653	74,959	306,611	74,532
	성장률	14.1	0.9	-10.6	-19.4	-6.8	-9.6	-5.3
보험영업수익	금액	-19,240	-2,216	726	-763	1,170	-1,083	-1,294
	성장률	-188.7	1152.0	-115.4	-94.5	-403.9	-94.4	-41.6
계약자 배당금	금액	1,956	329	344	302	1,012	1,987	512
	성장률	-19.8	-14.5	0.9	7.1	6.8	1.6	55.6
보험영업이익	금액	-21,195	-2,545	382	-1,065	158	-3,070	-1,806
	성장률	-210.2	353.7	-107.6	-92.5	-111.9	-85.5	-29.0
투자영업이익	금액	51,058	11,731	11,854	13,812	10,968	44,711	10,197
	성장률	-7.2	-7.3	-9.2	286.7	-0.7	50.1	6.9
세전 영업이익	금액	29,792	9,541	12,730	11,472	11,125	46,990	11,591
	성장률	-59.3	-22.7	59.5	-831.6	-15.3	-8.0	-1.2
실현자본수지	금액	-19,858	-7,987	-3,185	12,280	1,664	-7,975	981
	성장률	-322.3	1592.2	386.3	0.5	-116.5	-59.8	-112.3
투자영업수지	금액	31,200	3,744	8,670	1,533	12,789	39,015	12,573
	성장률	-51.2	-69.3	-30.1	-117.7	319.0	25.0	235.8
세후손익	금액	2,215	-1,309	7,089	10,407	12,147	28,334	8,856
	성장률	-96.5	-115.9	28.1	-205.5	-820.0	1179.2	-776.5
자기자본(surplus)	금액	1,957,204	437,097	462,995	490,800	511,464	1,902,356	540,700
	성장률	-4.4	-15.2	-8.8	2.6	12.3	-2.8	23.7
지급준비금	금액	2,203,894	554,413	553,396	552,414	552,908	2,213,131	552,863
	성장률	5.2	3.2	1.2	-2.0	-0.5	0.4	-0.3
합산비율		105.1	102.2	99.5	100.5	101.9	101.0	101.1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보험영업이익+투자영업이익+기타이익

자료 : ISO: Property/Casualty Insurers Returns to Profitability in First-Quarter 2010 Despite Continuing Declines in Premiums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10. 6.

-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감소한 경우는 1991년 4/4 분기와 2005년 3/4분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
- 2010년 1/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계절조정 민간부문 취업자 수가 2.7% 감소하고 민간부문 임금이 1.4% 감소하는 등 경제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지급보험금은 대재해 손실 축소 등으로 5.4% 감소하였으며, 원수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험영업손실은 2009년 1/4분기보다 8억 달러 축소된 18억 달러로 나타남.
- 보험영업실적 개선으로 합산비율은 1.1%p 낮아진 101.1%로 나타났음.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59.3%p 낮아진 232.1%로 개선되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은 98.5%에서 99.0%로 소폭 악화됨.
-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실현자본이익(realized capital gain)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37.7% 증가한 126억 달러를 실현함.
 - 주식배당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진 투자이익은 운용자산이익률이 4.0%에서 3.7%로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에 비해 1억 달러 감소한 116억 달러로 나타났고, 운용자산규모는 자본유입 등으로 1천억 달러 가량 증가함.
 - 실현자본이익은 2009년 1/4분기 80억 달러 적자에서 90억 달러 증가한 1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미실현자본이익까지 포함한 총 자본이익은 305억 달러로 나타남.
 - 자본이익의 증가는 S&P 500 지수가 2009년 말에 비해 4.9%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4 분기에는 102억 달러 증가한 89억 달러 흑자로 돌아섬.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1/4분기 37억 달러 적자에서 18억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07억 달러 흑자로 나타남.

■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 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확정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기관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일본 동향¹⁾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09 4/4분기 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단체보험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보험 부문의 신규계약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한 19조 578억엔을 시현함.
 - 개인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전분기에 이어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여 전년동기대비 19.4% 성장함.
 - 전체 생명보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사망보험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부문의 고성장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은 저축 성향이 강한 양로보험의 수요 급증(전년동기대비 244.9% 증가)으로 42.6% 고성장함.
 - 개인연금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확정연금상품의 판매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한 2조 1,916억엔을 시현함.
 -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비용 증가 및 수익률 저조 등 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최근까지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보험회사들이 잇따르고 있어 신규계약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단체보험은 내수경기 부진으로 기업 및 단체들의 신규보험 가입이 저조해짐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대표적인 단체보험 상품인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단체정기보험, 단체신용보험에서의 실적 하락이 두드러짐.

1)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표 1>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 인 성	개 인	금 액	135,135	566,688	144,789	160,092	162,902	161,293	629,077
		성장률	-9.5	-5.6	6.0	7.2	11.9	19.4	11.0
		구성비	83.3	82.7	83.2	84.0	87.3	84.6	84.8
	- 사 망	금 액	111,963	469,295	114,906	128,317	131,594	129,484	504,301
		성장률	-6.6	-3.6	1.5	4.6	8.3	15.6	7.5
		구성비	69.0	68.5	66.1	67.3	70.5	67.9	68.0
	- 생사혼합	금 액	21,413	91,320	28,635	30,530	29,924	30,545	119,634
		성장률	-22.9	-15.5	30.2	20.8	32.1	42.6	31.0
		구성비	13.2	13.3	16.5	16.0	16.0	16.0	16.1
	- 생 존	금 액	1,759	6,073	1,249	1,245	1,384	1,264	5,142
		성장률	5.5	8.0	-13.0	-12.1	-5.3	-28.1	-15.3
		구성비	1.1	0.9	0.7	0.7	0.7	0.7	0.7
	개인연금	금 액	16,903	74,150	20,329	21,377	19,642	21,916	83,265
		성장률	-17.9	-8.7	3.3	-5.6	31.6	29.7	12.3
		구성비	10.4	10.8	11.7	11.2	10.5	11.5	11.2
단 체 성	단 체	금 액	10,209	44,112	8,765	9,218	3,964	7,322	29,269
		성장률	-41.5	-11.4	-55.9	37.3	-50.0	-28.3	-34.5
		구성비	6.3	6.5	5.0	4.8	2.1	3.8	3.9
	단체연금	금 액	17	39	41	6	21	11	79
		성장률	173.1	-77.3	303.0	98.2	140.9	-34.3	104.0
		구성비	-	-	-	-	-	-	-
	기 타*	금 액	3	14	7	6	20	35	67
		성장률	-8.5	-28.3	52.4	45.1	647.4	987.3	379.3
		구성비	-	-	-	-	-	-	-
합 계	금 액	162,267	685,004	173,931	190,699	186,549	190,578	741,757	
	성장률	-13.4	-6.4	-1.3	6.7	10.7	17.4	8.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기타는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의 실적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09 4/4분기 말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국채, 주식 등 유가증권의 보유액 증가로 전분기대비 0.9% 증가한 318조 3,802억엔을 기록함.

○ 유가증권 규모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의 국내채입이 증대되어 전분기대비 1.5% 확대됨.

- 주식 보유액도 금년 초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3.5% 증가함.

<표 2>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4/4		1/4		2/4		3/4		4/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현금 및 예금	50,268	1.6	38,250	1.2	47,499	1.5	38,597	1.2	49,951	1.6
단기자금	27,807	0.9	27,602	0.9	25,502	0.8	25,211	0.8	21,393	0.7
매입금전채권	33,662	1.1	32,425	1.0	32,035	1.0	31,726	1.0	31,970	1.0
금전신탁	25,888	0.8	27,085	0.9	27,164	0.9	24,131	0.8	22,051	0.7
유가증권	2,302,089	73.9	2,358,325	74.9	2,383,830	75.5	2,406,334	76.2	2,441,501	76.7
- 국채	1,238,910	39.7	1,234,172	39.2	1,238,690	39.2	1,250,472	39.6	1,279,888	40.2
- 지방채	98,160	3.1	101,358	3.2	103,181	3.3	106,731	3.4	109,679	3.4
- 사채	274,568	8.8	274,146	8.7	273,613	8.7	271,512	8.6	264,538	8.3
- 주식	156,319	5.0	182,101	5.8	184,445	5.8	180,283	5.7	186,618	5.9
- 외화증권	400,362	12.8	414,305	13.2	423,646	13.4	431,720	13.7	429,571	13.5
대출금	511,181	16.4	505,579	16.1	491,933	15.6	486,072	15.4	468,953	14.7
유형 고정자산	66,038	2.1	66,794	2.1	67,392	2.1	66,510	2.1	67,205	2.1
운용자산	3,028,928	97.2	3,066,225	97.4	3,084,342	97.7	3,085,527	97.8	3,113,410	97.8
총자산	3,117,200	100.0	3,146,548	100.0	3,156,769	100.0	3,155,902	100.0	3,183,802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비중은 총자산 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09 4/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 특종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1조 8,943억엔을 시현함.

○ 화재보험과 운송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4%, 6.4% 감소했으나 해상보험은 적하보험 부문의 실적 호조로 5.8% 성장함.

<표 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3,515	14,023	3,398	3,292	3,895	2,540	13,982
	성장률	0.6	0.0	-0.5	-1.8	4.1	-3.4	-0.3
	구성비	18.7	17.6	16.8	17.4	19.7	17.9	18.0
해상	보험료	457	2,295	479	447	448	484	1,858
	성장률	-26.7	-7.4	-25.6	-29.9	-19.4	5.8	-19.0
	구성비	2.4	2.9	2.4	2.4	2.3	2.6	2.4
운송	보험료	160	692	171	149	156	150	626
	성장률	-6.9	-0.8	-10.6	-10.3	-10.5	-6.4	-9.5
	구성비	0.8	0.9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443	34,475	8,772	8,314	8,615	8,434	34,135
	성장률	-1.5	-1.4	-1.8	-1.1	-0.8	-0.1	-1.0
	구성비	44.8	43.2	43.5	43.9	43.6	44.5	43.9
상해	보험료	2,312	11,099	2,733	2,597	2,577	2,349	10,256
	성장률	-14.0	-7.9	-8.6	-18.6	-1.2	1.6	-7.6
	구성비	12.3	13.9	13.5	13.7	13.0	12.4	13.2
특종	보험료	2,056	8,534	2,512	2,180	2,075	2,156	8,922
	성장률	1.0	3.0	6.5	2.0	4.7	4.8	4.5
	구성비	10.9	10.7	12.5	11.5	10.5	11.4	11.5
자배책	보험료	1,890	8,684	2,108	1,971	2,006	1,974	8,058
	성장률	0.3	-16.6	-27.3	0.5	3.7	4.4	-7.2
	구성비	10.0	10.9	10.4	10.4	10.1	10.4	10.4
합계	보험료	18,834	79,801	20,173	18,950	19,771	18,943	77,837
	성장률	-3.2	-3.7	-5.9	-4.6	0.5	0.6	-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의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 부문(자동차보험 비중: 44.5%,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비중: 10.4%)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된 요율인상 효과와 내수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임.
-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09년 7월 9년 만에 단행된 참조요율 인상 및 경기회복에 따른 차량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4.4% 성장함.
-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소세가 점차 둔화됨.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함.

〈지급보험금 현황〉

- FY2009 4/4분기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는 자동차보험 부문 및 상해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3.2% 줄어든 1조 1,126억엔을 시현함.
- 화재보험, 해상보험 및 운송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6%, 20.4%, 5.8% 감소함.
-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모두 각각 3.1%, 2.6% 증가하였으며, 상해보험도 6.4% 증가함.
- 특종보험은 비중이 큰 배상책임보험과 동산종합보험²⁾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2%, 6.9% 감소하고, 노동자재해보상책임보험도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전체적으로 29.6% 급감함.

2)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을 말함.

<표 4> 일본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금	1,069	3,979	822	863	1,073	988	3,746
	증가율	14.1	0.1	-5.6	-10.4	-0.4	-7.6	-5.9
	구성비	9.3	9.1	7.8	7.9	9.7	8.9	8.6
해상	보험금	325	1,145	243	279	332	258	1,112
	증가율	5.2	4.3	1.2	4.1	6.2	-20.4	-2.9
	구성비	2.8	2.6	2.3	2.6	3.0	2.3	2.6
운송	보험금	68	291	64	64	62	64	254
	증가율	-10.6	-4.3	-3.5	-22.3	-16.8	-5.8	-12.7
	구성비	0.6	0.7	0.6	0.6	0.6	0.6	0.6
자동차	보험금	5,515	21,559	5,196	5,263	5,614	5,688	21,761
	증가율	-0.7	0.4	-0.2	0.0	0.7	3.1	0.9
	구성비	48.0	49.2	49.6	48.5	50.7	51.1	50.0
상해	보험금	831	3,430	861	861	902	884	3,508
	증가율	1.3	6.0	3.0	0.6	-0.6	6.4	2.3
	구성비	7.2	7.8	8.2	7.9	8.2	7.9	8.1
특종	보험금	1,679	5,305	1,321	1,571	1,126	1,182	5,199
	증가율	48.2	19.1	18.2	20.1	-6.2	-29.6	-2.0
	구성비	14.6	12.1	12.6	14.5	10.2	10.6	11.9
자배책	보험금	2,009	8,077	1,976	1,962	1,955	2,062	7,955
	증가율	-3.3	-2.0	-3.3	-2.8	-2.5	2.6	-1.5
	구성비	17.5	18.4	18.8	18.1	17.7	18.5	18.3
합계	보험금	11,497	43,787	10,483	10,862	11,064	11,126	49,536
	증가율	5.4	2.3	1.0	1.0	-0.8	-3.2	-0.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보험금, 신종보험을 각각 지급보험금,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09 4/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국채 및 주식 보유액 확대로 전 분기대비 1.0% 증가한 31조 4,956억엔을 시현함.

○ 유가증권 중 가장 비중이 큰 주식 보유액은 주식시장 호전에 따른 가치 상승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4.2% 증가했으며, 국채 보유액도 대형 보험회사들이 안전자산 확보를 위해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서 2.4% 늘어남.

<표 5>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4/4		1/4		2/4		3/4		4/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현금 및 예금		8,896	3.0	7,365	2.4	8,297	2.7	7,324	2.3	9,335	3.0
단기자금		5,775	1.9	3,282	1.1	3,847	1.2	3,632	1.2	3,343	1.1
현선거래자금		4,149	1.4	4,354	1.4	2,569	0.8	2,810	0.9	2,285	0.7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	-	-	-	-	-	500	0.2	-	-
매입금전채권		4,048	1.4	8,861	2.9	9,163	3.0	12,133	3.9	12,952	4.1
금전신탁		953	0.3	1,053	0.3	1,110	0.4	1,137	0.4	1,130	0.4
유가증권	국채	43,936	14.7	47,378	15.3	49,307	15.9	48,392	15.5	49,560	15.7
	지방채	6,548	2.2	6,305	2.0	6,293	2.0	6,286	2.0	6,104	1.9
	회사채	39,153	13.1	38,984	12.6	39,109	12.6	38,660	12.4	38,093	12.1
	주식	61,469	20.5	72,367	23.3	70,886	22.9	71,539	23.0	74,527	23.7
	외화증권	48,687	16.3	50,184	16.2	50,143	16.2	50,795	16.3	49,639	15.8
	기타증권	4,875	1.6	4,861	1.6	4,510	1.5	4,516	1.4	4,398	1.4
	소계	204,668	68.4	220,080	70.9	220,248	71.1	220,188	70.6	222,321	70.6
대출금	약관대출	688	0.2	684	0.2	678	0.2	662	0.2	650	0.2
	일반대출	24,818	8.3	24,500	7.9	24,028	7.8	23,819	7.6	23,088	7.3
	소계	25,506	8.5	25,184	8.1	24,707	8.0	24,481	7.9	23,738	7.5
부동산		11,173	3.7	11,120	3.6	11,212	3.6	11,042	3.5	10,984	3.5
운용자산		265,168	88.6	281,299	90.6	281,154	90.8	283,246	90.9	286,090	90.8
기타자산		34,243	11.4	29,285	9.4	28,427	9.2	28,466	9.1	28,865	9.2
총자산		299,411	100.0	310,585	100.0	309,582	100.0	311,713	100.0	314,956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비중은 총자산 대비임.

2) 기타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 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會社總合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험과 단체정보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정보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정보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해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정보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해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중국 동향¹⁾

가. 주요 경영지표

<수입보험료 현황>

- 2010년 1/4분기(1~3월)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부문 모두 전분기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전년동기대비 38.6% 급증한 4,541억 위안을 기록함.
-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지속적인 매출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38.4% 급증한 증가한 995억 위안을 시현함.
 -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4분기 이후 분기 최고 성장률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차량판매 증가로 자동차보험 수요가 급증한 데 기인함.
- 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상해보험 부문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시현하며 전년동기대비 38.7% 증가한 3,547억 위안을 시현함.
 - 생명보험은 대형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전체 생명보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배당형 상품 및 만능형보험(유니버설)의 실적 증가,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방카슈랑스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임.
 - 건강보험은 질병보험 및 의료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전분기에 이어 30%대의 성장률을 지속함.
 - 전분기에 성장 둔화를 보였던 상해보험도 자동차 관련 상해보험과 여행자 상해보험의 수요 증가 등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시현함.

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표 1>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료	2,337	719	793	722	642	2,876	995
	성장률	17.0	12.0	20.6	33.4	29.3	23.1	38.4
인보험	보험료	7,447	2,558	1,916	1,872	1,915	8,261	3,547
	성장률	47.8	9.4	-3.3	5.1	42.1	10.9	38.7
- 생명보험	보험료	6,658	2,359	1,701	1,663	1,734	7,457	3,292
	성장률	49.2	10.7	-1.6	4.2	44.2	12.0	39.5
- 건강보험	보험료	585	140	154	143	136	574	185
	성장률	52.4	-7.2	-22.6	8.4	32.2	-2.0	31.5
- 상해보험	보험료	204	59	61	66	45	230	70
	성장률	7.1	5.6	15.0	25.6	4.8	13.0	20.0
합계	보험료	9,784	3,277	2,709	2,594	2,557	11,137	4,541
	성장률	39.1	10.0	2.7	11.7	38.6	13.8	38.6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위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0년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지급보험금 규모는 인보험 부문에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한 732억 위안으로 집계됨.

-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차량운행 증가로 인한 사고발생 급증으로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2009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에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명보험에서 전년동기대비 28.1%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1.1% 감소함.

<표 2> 중국 보험산업 지급보험금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금	1,418	351	363	402	459	1,576	364
	증가율	39.0	21.7	7.7	13.1	5.1	11.1	3.5
인보험	보험금	1,553	472	421	332	324	1,550	368
	증가율	24.8	-15.0	16.2	1.3	5.5	-0.2	-22.0
- 생명보험	보험금	1,315	403	355	258	253	1,269	290
	증가율	23.5	-20.1	16.4	-3.1	5.5	-3.5	-28.1
- 건강보험	보험금	175	54	52	56	55	217	62
	증가율	50.0	56.9	12.8	26.0	9.2	23.8	13.8
- 상해보험	보험금	63	15	15	17	16	64	17
	증가율	-1.4	-9.2	24.3	4.6	-4.9	2.2	11.7
합계	보험금	2,971	824	784	734	783	3,125	732
	증가율	31.2	-2.4	12.1	7.5	5.3	5.2	-11.1

-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위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요 경영실적>

- 2010년 1/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총수입보험료와 사업비는 4,541억 위안, 32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8.6, 22.1% 증가함.
 - 수입보험료 규모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규모도 2008년 1/4분기 이후 분기 최고 증가율을 보임.
- 2010년 1/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은행 예치금 규모 증대로 전분기대비 5.6% 증가한 4조 2,929억 위안을 보임.
 - 금년 초 중국증시 하락 등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금 규모는 2009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은 3.9%의 증가율을 기록함.

- 반면, 대기자금 성격의 은행 예치금은 전분기대비 10.2% 증가함.

<표 3> 중국 보험산업 주요 경영실적 현황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수입보험료	보험료	9,784	3,277	2,709	2,594	2,557	11,137	4,541
	증가율	39.1	10.0	2.7	11.7	38.6	13.8	38.6
사업비	금 액	1,080	262	281	305	386	1,234	320
	증가율	13.9	11.5	9.2	17.4	18.0	14.3	22.1
예치금	금 액	8,088	10,005	10,445	10,058	10,520	10,520	11,595
	증가율	24.1	23.7	4.4	-3.7	4.6	30.1	10.2
투자금	금 액	22,465	22,178	23,280	24,232	26,897	26,897	27,943
	증가율	11.2	-1.3	5.0	4.1	11.0	19.7	3.9
총자산	금 액	33,418	35,435	37,072	37,880	40,635	40,635	42,929
	증가율	15.2	6.0	4.6	2.2	7.3	21.6	5.6

주 : 1) 총수입보험료 및 사업비는 실적치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은 누적치임.

2) 총수입보험료, 사업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지역별 및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지역별 시장점유율>

□ 2010년 1/4분기 지역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강소성이 인보험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광동성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함.

- 강소성의 시장점유율은 인보험 부문의 급성장으로 9.1%를 차지했으며, 장기간 1위 시장이었던 광동성이 8.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로 밀려남.

<표 4> 중국 지역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북경	586	6.0	169	5.2	173	6.4	169	6.5	186	7.8	698	6.5	284	6.2
천진	176	1.8	42	1.3	38	1.4	35	1.4	36	1.4	151	1.3	63	1.4
하북	481	4.9	177	5.4	160	5.9	135	5.2	129	5.5	601	5.7	231	5.1
요녕	329	3.4	95	2.9	86	3.2	85	3.3	79	3.4	345	3.1	135	3.0
대련	107	1.1	33	1.0	28	1.0	26	1.0	29	1.2	116	1.0	44	1.0
상해	600	6.1	201	6.1	150	5.5	149	5.7	165	6.6	665	6.2	272	6.0
강소	775	7.9	315	9.6	199	7.3	202	7.8	192	7.1	908	8.2	414	9.1
절강	489	5.0	153	4.7	136	5.0	128	4.9	121	3.8	538	4.1	229	5.0
영파	87	0.9	29	0.9	27	1.0	27	1.0	26	0.7	107	0.7	41	0.9
북건	244	2.5	87	2.6	68	2.5	62	2.4	55	2.1	272	2.4	109	2.4
하문	47	0.5	17	0.5	14	0.5	14	0.5	13	0.4	58	0.5	23	0.5
산둥	571	5.8	178	5.4	177	6.5	168	6.5	154	6.1	678	6.1	245	5.4
청도	103	1.0	30	0.9	30	1.1	27	1.0	28	1.0	115	1.0	43	0.9
광둥	884	9.0	284	8.7	220	8.1	234	9.0	222	8.5	960	8.7	391	8.6
심천	241	2.5	73	2.2	67	2.5	61	2.4	70	2.4	272	2.1	93	2.1
해남	30	0.3	9	0.3	9	0.3	7	0.3	8	0.3	33	0.3	13	0.3
산서	261	2.7	88	2.7	73	2.7	69	2.7	60	2.4	289	2.7	114	2.5
길림	159	1.6	52	1.6	52	1.9	44	1.7	38	1.7	185	1.7	68	1.5
흑룡강	251	2.6	88	2.7	78	2.9	59	2.3	53	2.3	278	2.7	92	2.0
안휘	297	3.0	127	3.9	76	2.8	76	2.9	79	3.1	357	3.3	168	3.7
강서	171	1.8	65	2.0	43	1.6	41	1.6	39	1.6	187	1.7	91	2.0
하남	519	5.3	155	4.7	137	5.1	137	5.3	137	6.1	565	5.7	258	5.7
호북	317	3.2	110	3.4	90	3.3	86	3.3	86	3.8	372	3.7	167	3.7
호남	312	3.2	104	3.2	87	3.2	81	3.1	76	3.2	348	3.3	136	3.0
중경	201	2.0	79	2.4	56	2.1	56	2.1	53	2.2	245	2.4	111	2.4
사천	494	5.1	175	5.3	123	4.5	137	5.3	144	5.4	579	5.2	260	5.7
귀주	80	0.8	25	0.8	24	0.9	24	0.9	22	0.8	95	0.7	36	0.8
운남	165	1.7	57	1.7	44	1.6	41	1.6	39	1.2	180	1.4	67	1.5
티벳	3	0.0	1	0.0	1	0.0	1	0.0	1	0.0	4	0.0	1	0.0
섬서	218	2.2	73	2.2	66	2.4	59	2.3	62	2.6	260	2.4	97	2.1
감숙	97	1.0	34	1.0	29	1.1	25	1.0	26	1.1	114	1.1	45	1.0
청해	14	0.1	5	0.1	5	0.2	4	0.2	4	0.1	18	0.1	7	0.1
영하	32	0.3	11	0.3	11	0.4	9	0.4	9	0.3	39	0.3	15	0.3
신강	153	1.6	41	1.3	50	1.8	32	1.2	34	1.4	157	1.3	57	1.3
내몽고	141	1.4	43	1.3	45	1.7	48	1.9	35	1.3	171	1.3	56	1.2
광서	133	1.4	48	1.4	36	1.3	34	1.3	31	1.1	149	1.2	58	1.3
그룹본사	15	0.2	4	0.1	3	0.1	2	0.1	17	0.0	25	0.0	7	0.1
합계	9,784	100.0	3,277	100.0	2,709	100.0	2,594	100.0	2,557	100.0	11,137	100.0	4,541	100.0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그룹본사는 특정 지역에 귀속되지 않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강소성은 개혁개방화 정책에 따른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진출 러시로 2005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보험시장이었으나, 이후 상대적으로 급성장한 광둥성과 북경시에게 최대 시장의 자리를 물려줌.
- 그러나 전통적으로 강세인 해상 및 운송보험시장이 글로벌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호전되고 있고, 남경시를 중심으로 인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입보험료 규모가 처음으로 분기기준 400억 위안을 상회함.
- 한편, 북경시는 인보험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76.3% 급성장해 전체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등 광둥성에 이어 3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전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상해시가 4위를 기록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0년 1/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에 대한 상위 5개사 및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중소형사는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함.
-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5.6%로 전년동기대비 4.6%p 감소함.
 - 1, 2위사인 중국생명과 평안생명의 점유율은 성장둔화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9%p, 1.2%p 하락하였으나, 3~5위권 회사인 타이평양생명, 타이강생명, 신화생명의 점유율은 약 1~2%p 상승함.
-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4.9%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3%p 축소됨.
 - 방카슈랑스 및 단체보험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인 중이생명(中意人壽)²⁾이 외자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전체 외자계 중 18.4%를 차지)을 보임.
 - 하위권이었던 광따용밍생명(光大永明人壽)³⁾은 계열사인 광따은행 및 대형은행들과의 제휴를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에 집중한 결과 1분기 만에 전년도 연간 실적을 상회하며 2위사로 올라섬.

2) 중국석유공사와 이탈리아 보험회사 앓시쿠라치오니 제네랄리(Assicurazioni Generali)가 2004년에 합작한 인보험회사

3) 광따그룹과 캐나다 보험회사 선라이프(Sunlife)생명이 2002년에 합작한 인보험회사

- 반면, 1위 외자계 1위 인보험회사였던 AIA(友邦保險)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실적 부진과 경영권 다툼 등의 내부 악재로 2위로 밀려남.
-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19.5%로 전년동기대비 4.2%p 확대됨.
- 2010년 1/4분기 손해보험 부문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 및 외자계는 소폭 감소함.
-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높아진 67.6%로 나타남.
- 가장 큰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3.8%p 축소되었으나, 타이핑양재산보험과 평안재산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의 실적 호조로 각각 1.2%p, 2.9%p 확대됨.
- 중소형사 및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0.1%p 축소되어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함.
- 외자계 1위사인 차티스(美亞財產, AIG에서 개명)는 전체 평균 성장률에 크게 하회하는 19.3% 성장에 그치는 등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표 5> 중국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8.5	80.2	77.2	76.2	74.2	77.2	75.6
		중소형사	16.5	15.3	17.8	18.6	19.5	17.6	19.5
		소계	95.1	95.4	95.0	94.7	93.7	94.8	95.1
	외자계		4.9	4.6	5.0	5.3	6.3	5.2	4.9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3.9	67.3	64.8	62.8	61.5	64.2	67.6
		중소형사	35.0	31.6	34.2	36.2	37.3	34.7	31.4
		소계	98.8	98.9	99.0	99.0	98.8	98.9	99.0
	외자계		1.2	1.1	1.0	1.0	1.2	1.1	1.0

- 주 :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생명, 평안생명, 신화생명, 타이핑양생명, 타이강생명 등임.
 3)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국인민재산, 평안재산, 타이핑양재산 등임.
 4)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5)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6)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지역별 시장점유율 분석은 전국수입보험료현황표(全國各地區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를 활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로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유럽 동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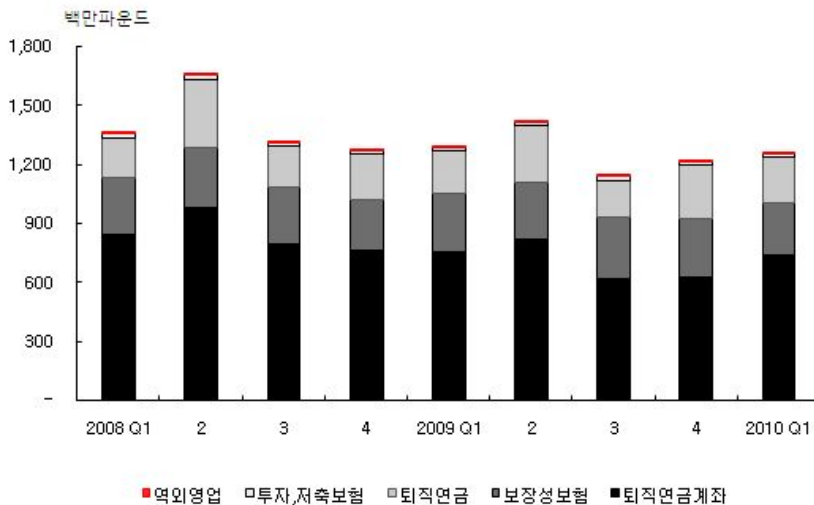
가. 영국의 생명보험시장

<생명보험 신규보험료²⁾ 추이>

□ 2010년 1/4분기 신규보험료는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증가폭 확대에 힘입어 12.7% 증가하는 빠른 회복조짐을 보임.

-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계좌와 보장성보험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3% 하락한 12억6천만파운드를 기록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투자·저축보험을 제외한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역외영업,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한 111억5천만파운드를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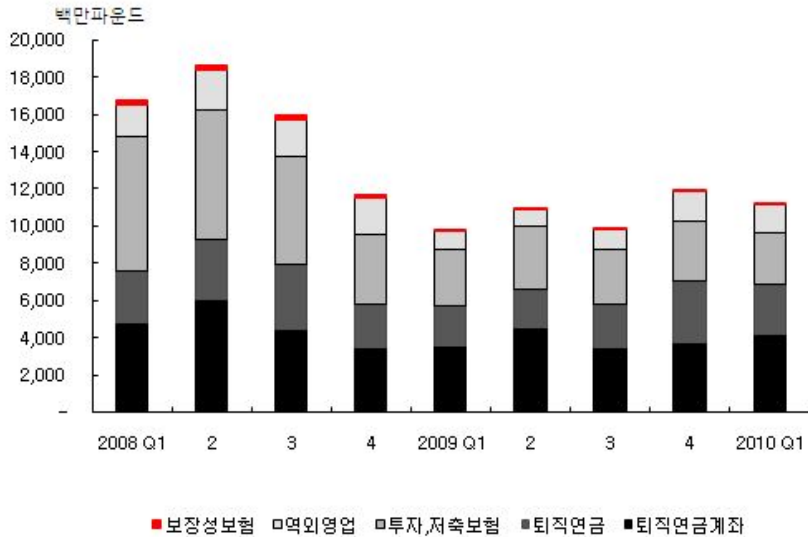
<그림 1>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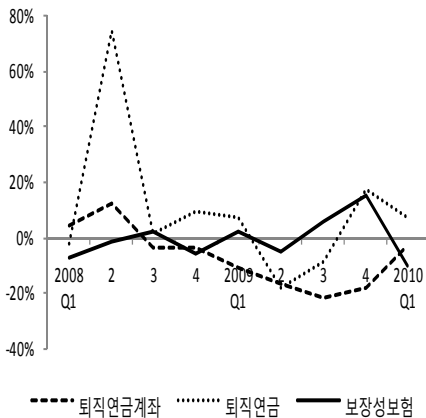
- 1) 유럽 보험시장 동향은 영국과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 2) 영국의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2009년 실질가격으로 조정됨.

<그림 2> 영국 생명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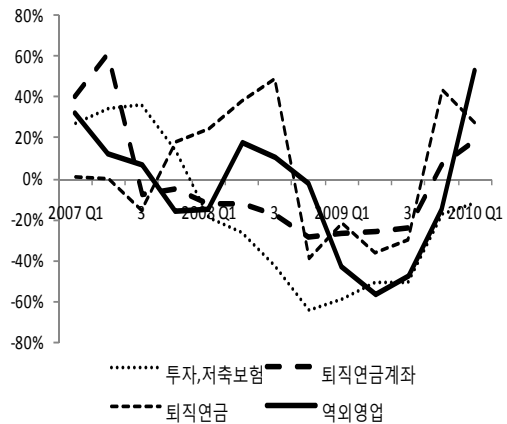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그림 3> 분할납 신규보험료 증감률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그림 4> 일시납 신규보험료 증감률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투자·저축보험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전체 세부종목의 증가에 힘입어 1/4분기 중 5.1% 증가한 1천8백만파운드가 거수됨.

- 모기지 생사혼합, 어린이신탁, 생사혼합 등 모든 세부종목이 증가함에 따라 분할납 투자·저축보험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한 1.4%를 차지함.
- 투자·저축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99%를 차지하는 채권판매는 경기회복세의 지연, 자본이득세 도입, 50세 이상에 대한 개별저축계좌 혜택확대 등으로 인한 채권상품 수요 감소로 1/4분기 중 11.2% 감소한 26억9천만파운드를 기록함.
- 비중이 큰 확정형채권(Guaranteed Bonds)과 유배당채권(With-Profit Bonds)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2.8%와 42.5% 감소함.
- 그 결과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투자·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7.1%p 낮아진 24.1%로 나타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1/4분기 중 퇴직연금계좌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개인연금, 관리연금(Stakeholder Pension)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 7억3천만파운드가 거수됨.
- 관리연금, 고용주가 지급하는 관리연금, 개인연금계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6.8%, 3.1%, 14.1% 감소한 반면, 단체개인연금계좌와 개별개인연금계좌(Self Invested Personal Pension)는 각각 6.3%, 12.6% 증가함.
- 퇴직연금계좌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전체 분할납 신규보험료와 비슷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비중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58.3%를 기록함.
- 퇴직연금계좌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개인연금계좌, 단체개인연금계좌, 개별개인연금계좌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8.6% 증가하여 40억7천만파운드가 거수되었으며 작년 4/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하는 추세임.
- 개인연금계좌, 단체개인연금계좌, 개별개인연금계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8.4%, 29.2%, 43.0% 증가하여 퇴직연금계좌의 증가세를 견인한 반면, 관리연금과 고용주가 지급하는 관리연금은 각각 25.1%,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1/4분기 중 계약이전된 신규보험료(27억파운드)와 DWP 리베이트³⁾(8천만파운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유입된 퇴직연금계좌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14억파운드로 2009년 1/4분기의 18억파운드 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계약이전을 고려하지 않을 때 일시납 퇴직연금계좌가 전체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한 상황이나, 새로 유입된 보험료만 보면 비중은 12.6%로 축소되고 2009년 1/4분기에 비해서도 5.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1/4분기 중 퇴직연금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DC형, DB형 및 맞춤형퇴직연금⁴⁾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7.0% 증가하고 2억3천만파운드가 거수됨.
 - 비중이 각각 52.6%, 26.5%, 3.0%인 DC형, 맞춤형퇴직연금, DB형은 각각 1.0%, 45.4%, 12.8% 증가함.
 - 1/4분기 중 퇴직연금의 증가세 확대로 인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6%p 증가한 18.5%를 시현함.
- 퇴직연금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비중이 큰 맞춤형퇴직연금과 Bulk Buyouts⁵⁾, 그리고 DB형, DC형 등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1/4분기 중 25.3% 증가하면서 28억2천만파운드가 거수됨.
 - 각각 39.4%, 45.5%의 비중을 차지하는 Bulk Buyouts과 맞춤형퇴직연금이 전년동기대비 47.4%, 1.8% 증가했으며, DC형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에는 퇴직연금의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세부 종목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비중은 전년동기에 비해 2.5%p 증가한 25.3%를 차지함.

3)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에 의해서 지급되는 개인연금

4) Trustee Investment Plans: 맞춤형 퇴직연금

5) DB형 퇴직연금의 관리 책임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금 구입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1/4분기 중 보장성보험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모기지 관련 사망보험, 소득보장, CI 보험, 대출보증신용보험(Collective Life), 단체보험 등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한 2억7천만파운드가 거수됨.
- 1/4분기 중 모기지 관련 사망보험, 소득보장보험, CI보험, 대출보증신용보험, 단체보장성보험이 각각 5.7%, 13.7%, 10.3%, 11.0%, 10.9% 감소한 반면, 모기지와 관련 없는 사망보험과 종신보험은 각각 5.3%, 8.4% 증가함.
- 1/4분기 중 주요 보장성보험의 급감에 따라 전체에서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9%p 감소한 21.1%를 차지함.
- 한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CI보험의 증가 등으로 인해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역외영업의 신규보험료〉

- 1/4분기 중 역외영업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투자채권, Personal Bonds-Pooled⁶⁾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52.9% 증가하여 6천만파운드를 기록함.
- 1/4분기 중 투자채권, Personal Bonds-Pooled가 각각 28.9%, 54.8% 증가한 반면, 맞춤형 Personal Bonds-Pooled는 53.9% 감소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증가세에 힘입어 역외영업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4%p 증가한 13.5%를 차지함.
- 한편, 전체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역외영업의 비중은 연금, 종신보험, 저축상품 등의 호조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7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6) Mutual fund, 투자신탁, Unit Trusts 등과 같은 공동투자 채권

<표 1>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 백만 파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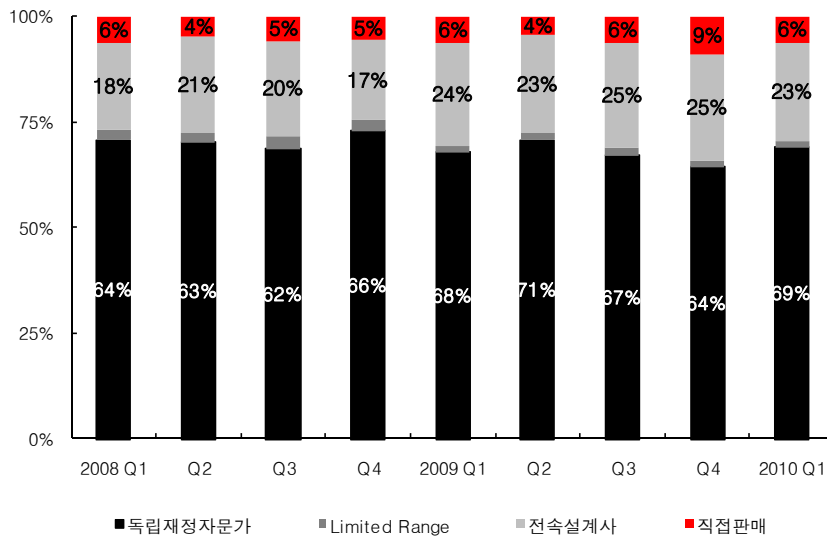
분할납 신규보험료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75	17	19	18	17	70	18
	증가율	-14.8	-15.4	-2.0	-10.6	5.1	-6.3	5.1
	구성비	1.3	1.3	1.3	1.5	1.4	1.4	1.4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3,363	750	818	618	621	2,807	732
	증가율	2.7	-10.6	-16.2	-21.7	-18.0	-16.5	-2.5
	구성비	60.1	58.4	57.7	54.3	51.0	55.5	58.3
퇴직연금	보험료	989	218	286	187	273	964	233
	증가율	20.4	7.4	-18.0	-8.3	17.3	-2.5	7.0
	구성비	17.7	16.9	20.2	16.4	22.4	19.1	18.5
역외영업	보험료	19	5	5	5	6	21	8
	증가율	-8.5	-7.1	24.0	25.9	-0.9	8.5	71.1
	구성비	0.3	0.4	0.4	0.5	0.5	0.4	0.6
보장성보험	보험료	1,148	295	289	311	301	1,196	265
	증가율	-3.1	2.0	-4.8	5.6	15.6	4.2	-10.2
	구성비	20.5	23.0	20.4	27.3	24.7	23.6	21.1
합계	보험료	5,593	1,285	1,417	1,138	1,218	5,059	1,256
	증가율	3.8	-5.3	-14.2	-13.2	-4.3	-9.6	-2.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3,769	3,032	3,406	2,877	3,130	12,445	2,692
	증가율	-38.9	-58.3	-50.9	-50.4	-17.0	-47.6	-11.2
	구성비	37.7	31.2	31.1	29.4	26.4	29.4	24.1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18,389	3,433	4,400	3,337	3,654	14,824	4,071
	증가율	-17.0	-26.6	-25.6	-23.9	7.2	-19.4	18.6
	구성비	29.2	35.3	40.2	34.0	30.8	35.0	36.5
퇴직연금	보험료	12,097	2,221	2,145	2,477	3,409	10,251	2,819
	증가율	10.1	-21.8	-35.8	-30.1	43.7	-15.3	27.0
	구성비	19.2	22.8	19.6	25.3	28.7	24.2	25.3
역외영업	보험료	7,777	984	941	1,057	1,610	4,591	1,503
	증가율	2.4	-42.7	-56.6	-47.0	-15.1	-41.0	52.9
	구성비	12.3	10.1	8.6	10.8	13.6	10.8	13.5
보장성보험	보험료	1,019	50	65	55	66	237	62
	증가율	-19.5	-81.7	-76.9	-77.8	-68.8	-76.7	22.1
	구성비	1.6	0.5	0.6	0.6	0.6	0.6	0.6
합계	보험료	63,051	9,720	10,956	9,803	11,869	42,348	11,147
	증가율	-22.1	-42.1	-41.2	-38.6	1.8	-32.8	14.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판매채널별 신규보험료>

- 2010년 1/4분기 중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독립재정자문가⁷⁾에 의한 판매가 소폭 증가한 반면 전속설계사의 판매는 소폭 감소하고 직접판매는 유사한 수준임.
- 독립재정설계사의 판매는 1/4분기 중 69.9%를 차지하여 전년동기대비 1%p 증가하였으며, 판매비중이 증가한 종목은 투자·저축보험, 개인연금계좌, 역외영업, 보장정보험인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중 전속설계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계좌와 개인보장성보험이 감소함으로써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p 감소하여 23%를 차지함.
- 직접판매는 1/4분기 중 6%를 차지하여 전년동기와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5>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⁸⁾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7)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I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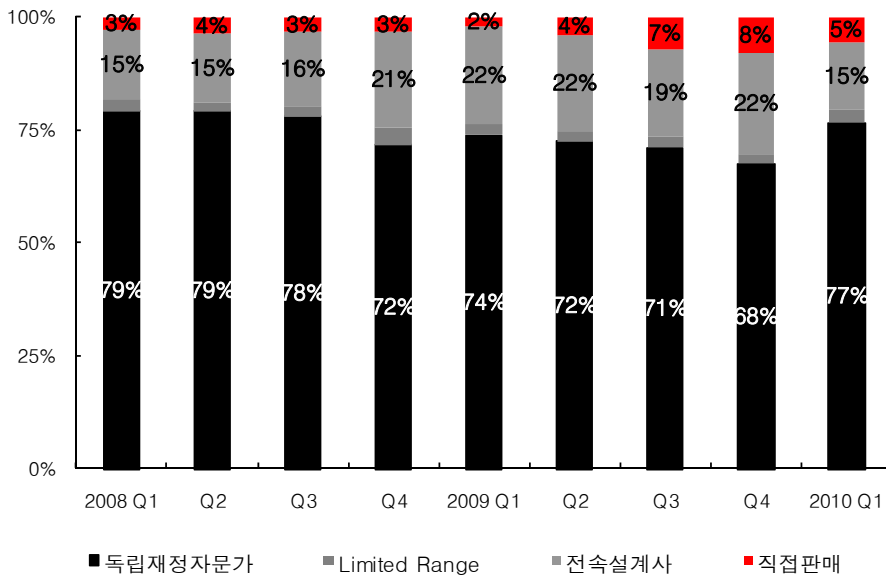
8) Limited Range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 하도록 규정됨.

□ 1/4분기 중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독립재정자문가와 직접판매의 판매가 증가한 반면 전속설계사의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독립재정설계사의 판매는 투자·저축보험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p 증가한 77%를 차지하였고, 직접판매는 퇴직연금의 대폭 증가와 투자·저축보험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p 증가한 5%를 차지함.

○ 전속설계사의 판매는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판매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7%p 축소된 15%로 나타남.

<그림 6>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나. 이탈리아

<생명보험>

- 2010년 1/4분기 이탈리아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72.7% 상승한 221억 유로를 기록하여 2009년의 고성장 기조를 이어감.
- 2010년 1/4분기 분할납보험료가 74.3%로 크게 성장했고 연납보험료도 0.6% 증가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영향력은 미미하며 비중이 큰 일시납 보험료가 73.6% 증가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보험료 중 일시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95.1%로 가장 높으며 분할납은 4.2%, 연납은 0.85%의 순으로 구성됨.

<표 2> 이탈리아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연납 (Annui)	보험료	184	635	165	184	124	178	651	166
	증가율	-0.7	-5.3	0.8	15.1	-3.3	-3.3	2.5	0.6
	구성비	1.9	1.5	1.3	1.1	0.8	0.9	1.0	0.8
일시납 (Unici)	보험료	8,796	38,318	12,080	15,682	14,564	18,196	60,522	20,972
	증가율	-14.8	-19.3	10.9	39.3	97.4	106.9	57.9	73.6
	구성비	89.5	92.1	94.6	95.7	96.7	95.0	95.5	95.1
분할납 (RSP)	보험료	851	2,668	526	518	369	779	2,192	917
	증가율	-0.5	-9.7	-26.9	-27.6	-4.0	-8.5	-17.9	74.3
	구성비	8.7	6.4	4.1	3.2	2.5	4.1	3.5	4.2
전 체	보험료	9,832	41,625	12,770	16,384	15,057	19,154	63,365	22,056
	증가율	-13.5	-31.2	8.5	35.1	90.8	94.8	52.2	72.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보험료는 생명보험(개인)의 신규 실적이며, 연납(Annui; Annual premiums), 일시납(Unici: Single premiums), 분할납(Ricorrenti; Recurrent single premiums)으로 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10년 1/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를 종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 전통형 상품 및 투자형 상품(RamoⅢ), 카피탈리자시용(Ramo V) 등 전부문에 걸쳐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냄.

<표 3>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구 분		CY2008	CY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 I)	보험료	19,350	10,032	13,747	12,211	15,038	51,028	15,838
	성장률	29.9	134.4	184.4	304.0	108.4	163.7	57.9
	구성비	46.5	78.6	83.9	81.1	78.5	80.5	71.8
전통형 및 투자형 (RamoⅢ)	보험료	21,078	2,099	2,102	2,404	3,345	9,950	5,170
	성장률	-38.2	-70.9	-70.2	-47.4	134.9	-52.8	146.3
	구성비	50.6	16.4	12.8	16.0	17.5	15.7	14.8
- 전통형	보험료	10,922	1,328	1,191	1,109	2,273	5,901	3,255
	성장률	-16.1	-62.4	-71.2	-28.4	190.8	-46.0	145.1
	구성비	26.2	10.4	7.3	7.4	11.9	9.3	14.8
- 보장성	보험료	142	14	27	23	40	104	29
	성장률	-91.6	-21.3	-35.8	-68.2	423.3	-26.8	107.1
	구성비	0.3	0.1	0.2	0.2	0.2	0.2	0.1
- 보 증	보험료	779	21	81	78	120	300	145
	성장률	-16.2	-93.6	-75.5	16.5	280.4	-61.5	590.5
	구성비	1.9	0.2	0.5	0.5	0.6	0.5	0.7
- 변 액	보험료	9,234	734	800	1,192	912	3,638	1,740
	성장률	-49.9	-78.0	-68.5	-58.6	41.3	-60.6	137.1
	구성비	22.2	5.7	4.9	7.9	4.8	5.7	7.9
기타 (RamoⅣ)	보험료	2.0	0.2	0.3	0.3	0.4	1.2	0.2
	성장률	322.8	-84.5	157.1	44.2	3.4	-40.0	0.0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카피탈리자- 시용 (Ramo V)	보험료	1,136	633	527	432	752	2,344	1,032
	성장률	-40.8	163.9	131.6	48.8	98.5	106.3	63.0
	구성비	2.7	5.0	3.2	2.9	3.9	3.7	4.7
기타 (RamoⅥ)	보험료	58.1	5.6	5.6	8.6	18.2	38.0	16
	성장률	-68.5	-77.9	-27.6	16.0	4.7	-34.6	185.7
	구성비	0.1	0.0	0.0	0.1	0.1	0.1	0.1
합 계	보험료	41,626	12,770	16,383	15,057	19,154	63,365	22,056
	성장률	-18.5	8.5	35.1	90.8	110.3	52.2	72.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이탈리아 생명보험은 크게 Ramo I-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Ⅲ-펀드,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 Ramo V-카피탈리자시용(순수투자형 상품), Ramo Ⅵ&Ⅵ-기타로 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10년 1/4분기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은 전년동기대비 57.9% 성장한 158억 유로를 나타내 여전히 고성장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100%가 넘었던 2009년의 고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전통형 및 투자형(RamoIII)의 보험료는 전년동기 저성장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년동기대비 146.3%의 성장한 52억 유로를 기록하여 작년 4/4분기에 시작된 회복세를 이어감.
 - 카피탈리자시용(RamoV)의 경우도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63.0% 성장한 10억 유로를 시현하여 2009년 성장세를 이어감.
- 2010년 5월 생명보험의 누적 신계약 건수는 약 161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누적 신계약 건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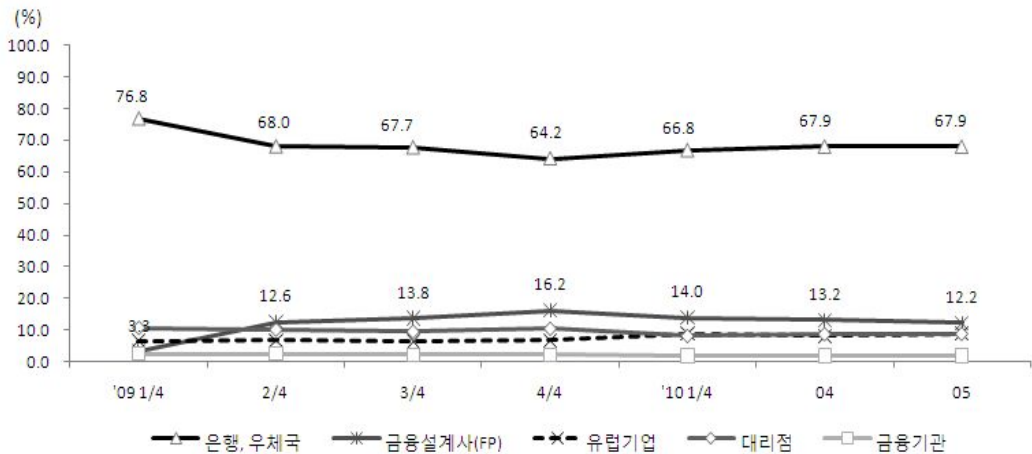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 분	2009년 5월		2010년 5월		증감률
	계약 건수	비중	계약 건수	비중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	1,093,703	86.7	1,228,262	76.2	12.3
전통형 및 투자형(RamoIII)	140,359	11.1	349,250	21.7	148.8
- 전통형	89,472	7.1	126,129	7.8	41.0
- 보장성	2,502	0.2	3,091	0.2	23.5
- 보 증	7,980	0.6	23,033	1.4	188.6
- 변 액	40,405	3.2	196,997	12.2	387.6
기타(RamoIV)	265	0.0	357	0.0	34.7
카피탈리자시용(Ramo V)	23,094	1.8	21,604	1.3	-6.5
기타(RamoVI)	4,286	0.3	12,220	0.8	185.1
합 계	1,261,707	100.0	1,611,693	100.0	27.7
- 연금(개인)	68,066	5.4	112,141	7.0	64.8
- 순수보장성	244,048	19.3	274,153	17.0	12.3
- 기 타	949,594	75.3	1,225,397	76.0	29.0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이는 카피탈리자시옹(Ramo V) 신계약 건수만이 6.5% 감소하고,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과 전통형 및 투자형(Ramo III)이 각각 12.3%, 148.8% 성장한 데 기인함.
- 2010년 1/4분기 생명보험 누적 신규보험료 기준 판매채널 구성비는 은행 및 우체국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융설계사(FP) 14.0%, 유럽기업 9.0%, 대리점 8.2% 순으로 나타남.
- 은행 및 우체국과 유럽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2.6%p, 0.7%p 각각 증가한 반면, 금융설계사와 대리점의 경우에는 2.2%p, 2.3%p 각각 감소함.
- 5월 은행 및 우체국의 비중은 67.9%로 나타났으며 금융설계사 12.2%, 유럽기업 8.9%, 대리점 8.9%의 구성비를 각각 나타냄.

<그림 5> 이탈리아 생명보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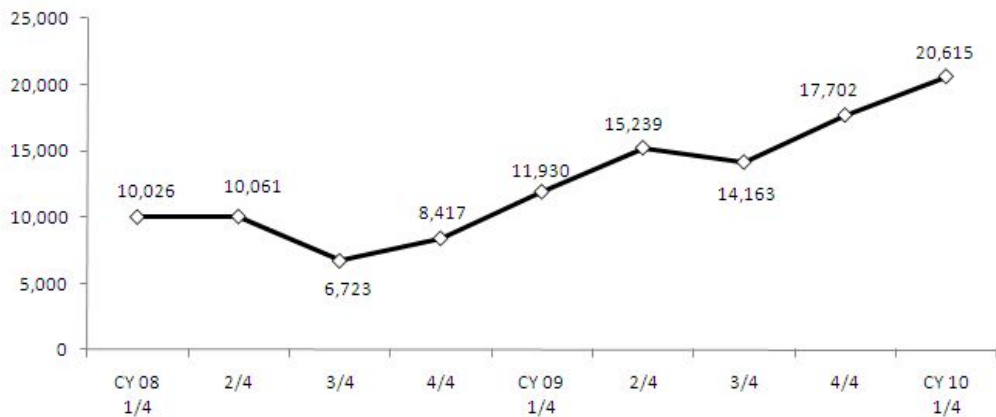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10년 1/4분기 회사그룹별 실적은 국내사와 외국사 모두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72.8%, 71.2% 성장함.
- 국내사의 경우에는 1/4분기 전년동기대비 72.8% 상승한 206억 유로를 기록하여 2009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감.

- 외국사의 경우에는 전년동기대비 71.2% 상승한 14억 유로를 나타냈으나 이는 2009년 1/4분기 낮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포함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2009년 4/4분기와 유사한 규모임.

<그림 6> 이탈리아 국내사 분기별 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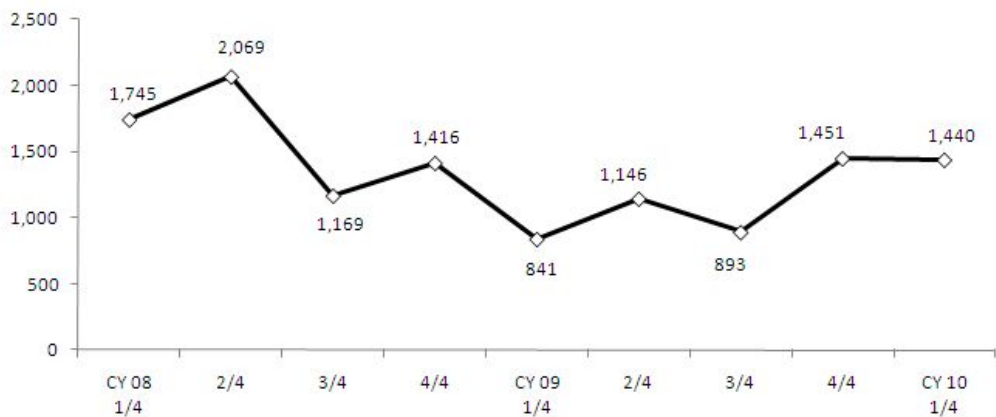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그림 7> 이탈리아 외국사 분기별 보험료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www.abi.org.uk](http://www.abi.org.uk))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의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 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이탈리아 보험산업은 이탈리아보험협회(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www.ania.it)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통계(Statistica mensile sulla 'nuova produzione' dei rami vita)를 바탕으로 기술함.
 - 상품구분은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 Assicurazioni sulla durata della vita umana), 펀드 및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Ramo III; Assicurazioni connesse a fondi, indiciazionari o altri valori di riferimento), 기타(Ramo IV & Ramo VI; Assicurazioni complementari), 카필탈리자시옹(Ramo V; Capitalizzazione) 등으로 함.

국내외 보험 · 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75호 (4. 5)	은행 ·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비율 양호 · 금감원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 근거한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 비율의 준수현황을 점검한 결과, 2009년 12월말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비율은 감독당국의 지도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12월말 금융회사 외화건전성비율 준수 현황, 금감원, 3/29)
제75호 (4. 5)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 국해부는 2010년 4월부터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공포(안)'를 발표함. (선주상호보험조합 재무건전성 기틀 마련, 국해부, 3/29)
제76호 (4. 12)	금감원, 고금리 퇴직연금 상품 경고 ·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시장의 무분별한 고금리 경쟁 등에 따른 관련 사업자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관련 리스크평가 보고서를 작성 · 보관하도록 지도 공문을 발송함. (퇴직연금시장 무분별한 고금리경쟁에 대한 지도, 금감원, 4/7)
제76호 (4. 12)	지경부, 신뢰정보험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 · 지식경제부는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 진입 및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부품소재 신뢰정보험'을 도입 · 운영하였으며, 지난 7일에는 가입대상을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개발한 모든 부품소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신뢰정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모든 부품소재전문기업 신뢰정보험 가입 허용, 지경부, 4/7)
제77호 (4. 19)	심평원, 우울증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2009년 5년간의 우울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45만 5천명이던 우울증 진료인원이 2009년에는 50만 8천명으로 7만명 이상 증가해 연평균 약 1만 8천명(4%)씩 증가한 것으로 발표함. (여성우울증 남성보다 2배 많아, 심평원, 4/7)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77호 (4. 19)	산림청, 대추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 산림청은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작물인 감, 밤나무에 이어 대추 품목에 대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농작물재해보험 ‘대추’ 시범사업 추진, 산림청, 4/9)
제78호 (4. 26)	금융위, 골드만삭스 사태-국내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 국내·외 금융시장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골드만삭스 기소에 따라 미·유럽 증시가 하락하고, 미 국제·달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증시 하락, 외국인 매도세, 환율 상승 등 골드만삭스 기소사건에 대해 영향을 받음. (美,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 영향 및 대응, 금융위 외, 4/20)
제78호 (4. 26)	금융권, 천안함사고 피해가족에 ‘원스톱’ 금융지원 ·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과 함께 금번 천안함사고로 사망·실종된 군장병 가족들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천안함사고 피해가족에 원스톱 금융지원 실시, 금감원 외, 4/19)
제79호 (5. 3)	S&P, 그리스·포르투갈 등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 2010년 4월 27일 국제신용등급기관인 스탠다드앳앤푸어스(S&P)는 포르투갈과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하면서 유럽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S&P, 그리스·포르투갈 신용등급 하향조정, 금융위 외, 4/29)
제79호 (5. 3)	FY09 생보사 해외점포 수익성 악화 · FY2009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점포는 태국 등 5개국(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영국)에 진출하여 8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업 및 금융투자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FY09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금감원, 4/28)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0호 (5. 1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는 3월 22일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정하여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시행일에 맞춰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 4/30)
제80호 (5. 10)	전북양식보험 시범사업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5월부터 전북(생물) 및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전북양식보험을 도입하여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양식 전복, 세계 최초로 재해보험시대를 열었다, 농수산부, 4/30)
제81호 (5. 17)	남유럽 재정위기 관련 금융·실물경제 모니터링 강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관련한 국내 금융회사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금융합동대책반회의를 개최함. (남유럽발 금융불안에 대응한 회의 개최 등, 금융위 등, 5/7)
제81호 (5. 17)	FY2009 보험회사 경영실적 호조 ·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FY2009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5,208억원으로 전년대비 342.0% 증가했고 손보사는 1조 5,857억원으로 전년대비 21.0% 증가를 보임. (FY2009 보험회사 경영실적, 금감위, 5/7)
제82호 (5. 24)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서민들의 긴급·소액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에 대한 확대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금융위 등, 5/17)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2호 (5. 24)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시행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장규율에 의한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방안 마련, 금감원, 5/19)
제83호 (5. 31)	금융위,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금융시장 점검 강화 · 금융위와 금감원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재부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천안함 결과발표 후 금융시장 점검 회의 개최, 금융위 등, 5/23)
제83호 (5. 31)	금감원, 퇴직연금 관련 고금리 경쟁 감독 강화 · 금감원은 퇴직연금과 관련한 고금리상품의 과당경쟁으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 상품 제공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함. (퇴직연금사업자 리스크관리 강화 현황 및 감독방향, 금감원, 5/25)
제84호 (6. 7)	정부, 외화유동성 대책 마련 중 · 최근 국제적 금융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외화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근원적인 전방위종합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외환시장 안전판 강화, 전방위 대응책 등, 연합뉴스 외 다수, 6/2)
제84호 (6. 7)	금융위, 금융투자업 단계적 인가 지속 방침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의 원칙적 유지와 더불어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업계의 수요를 감안한 추가적 인가를 해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함.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금융위, 5/31)
제85호 (6. 14)	금통위, 기준금리 연 2.0% 동결, 향후 인상 가능성 존재 · 금융통화위원회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와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0%로 16개월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함. (통화정책방향 등, 한국은행 등, 6/10)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5호 (6. 14)	금감원, FY2009 모기지보험 판매 감소 · 금감원은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2007년 12월부터 판매한 모기지보험의 FY2009 판매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모기지보험 신계약건수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모기지보험 시장 동향, 금감원, 6/8)
제86호 (6. 21)	정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발표 · 정부는 높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등, 기재부 등, 6/14)
제86호 (6. 21)	OECD, 한국 건강보험 재정 우려 · OECD는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출 통제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함.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등, 기재부 등, 6/18)
제87호 (6. 28)	금융위, 미니금선물시장 개설 결정 · 정부는 미니금선물 시장개설을 위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여 기존 금선물에 비해 거래단위를 1/10수준으로 축소하고, 현금결제 등의 제도를 일부 변경한 선물상품인 미니금선물의 도입을 결정함. (미니금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안 승인, 금융위, 6/23)
제87호 (6. 28)	노동부,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적용 ·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3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 6/23)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75호 (4. 5)	미국인 2/3, 건강보험개혁안에 우려 표명 · 지난 30일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은 건강보험개혁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3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관련비용 증가 및 보건부문에 대한 정부역할의 지나친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nsurance News Net, 9/25))
제76호 (4. 12)	미국인의 보험이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 미국인의 보험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5%의 응답자가 보험가입 결정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6%는 최근 통과된 건강보험개혁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nsurance News Net, 4/6))
제77호 (4. 19)	보험회사, 신용정보 사용 제한에 대비해야 ·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보험료 산출시 신용정보 사용 문제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신용정보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분석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Insurance Journal, 4/14))
제78호 (4. 26)	골드만삭스 피소,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확산 우려 · 지난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후, 이를 계기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Businessweek, 4/19))
제79호 (5. 3)	2009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수익성 큰 폭 회복 · 2009년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2008년보다 280억 달러 증가한 283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자기자본 이익률도 2008년 0.6%에서 2009년 5.8%로 크게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큰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4/15))
제80호 (5. 10)	멕시코만 석유유출 지급보험금, 14억 달러 추정 · 미국 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II)은 지난 4월 22일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원유시추선 침몰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이 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5/5))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1호 (5. 17)	미국, 상업용 모기지 증권 연체율 상승 · 미국 신용평가사 Fitch는 2010년 1/4분기 미국 상업용 모기지 증권 연체율이 작년 말보다 1.6%p 상승한 8.2%를 기록했으며 연체율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Wall Street Journal, 4/29 등)
제82호 (5. 24)	미국,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 · 기대여명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자산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보험회사와 정부는 은퇴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 (The Street, 5/14)
제83호 (5. 31)	미 상원, 금융개혁법안 승인 · 미 상원은 지난 5월 20일 금융개혁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번 개혁안은 1930년대 이후 가장 규모가 큰 금융규제안 개정으로 평가됨. ((NY Times, 5/24 등)
제84호 (6. 7)	영국 푸르덴셜, AIA 인수 포기 · 영국 보험회사 푸르덴셜(Prudential)과 미국 AIG가 추진 중이던 AIG의 아시아 지역 자회사 AIA에 대한 매각협상이 인수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됨. (Businessweek, 6/2 등)
제85호 (6. 14)	글로벌 은행 규제안, 합의 진전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의 자본강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안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업계 및 일부 국가와의 절충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기대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됨. (Wall Street Journal, 6/4)
제86호 (6. 21)	연방보험기구 설립안, 논쟁 지속 · 미 상원과 하원의 금융개혁안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방보험기구 설립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으나 연방기구의 권한범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Insurance News Net, 6/16)
제87호 (6. 28)	금융개혁법안 최종안 도출 난항 ·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자체적인 시한을 금요일로 설정하고 금융개혁법안을 완성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LA Times 외, 6/24)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75호 (4. 5)	EC공정거래위원회, 보험사업자 비경쟁담합금지 강화 · EC공정거래위원회는 비경쟁담합금지의 예외 대상이었던 보험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 일부조항을 수정 및 삭제한 새로운 보험사업자 담합예외법을 발표함. (EC 3/24, Financial Times, 3/25)
제76호 (4. 12)	기로에선 RSA의 성장전략 · 영국 손해보험회사인 RSA는 설립 300주년을 맞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손해보험시장을 진출 대상으로 포함하며, 이머징시장은 특히 비중 있게 접근하겠다는 성장전략을 밝힘. (Financial Times, 4/6)
제77호 (4. 19)	Aviva, 아시아시장 재공략 · 자산규모 세계 5위인 Aviva는 2004년 아시아 손해보험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6년 만에 다시 아시아 손해보험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함. (Financial Times, 4/10)
제78호 (4. 26)	아이슬란드 화산재, 보험회사 영향 크지 않아 · 아이슬란드의 화산재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서유럽 및 동유럽의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항공사의 피해규모는 커져가고 있지만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Guardian, 4/16, The New York Times, 4/19)
제79호 (5. 3)	영국 금융권, 신분사기 급증 · 영국 금융산업 사기방지 기구인 CIFAS는 금년 1/4분기 신분(identity)사기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Financial Times, 4/29)
제80호 (5. 10)	알리안츠 그룹, 1/4분기 영업이익 증가 · 알리안츠 그룹은 2010년 1/4분기 중 재난재해로 인한 손실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보다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Financial Times, 5/5)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1호 (5. 17)	유로지역 재정 · 경제정책, 공조체제 구축 추진 · 스트라우스-칸 IMF 총재는 유로지역의 정부예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공조체제구축이 필요하며, 국가 간 자금 이동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Financial Times, 5/11, 5/12)
제82호 (5. 24)	유럽, 부실 정부채권 매입 및 대출보증기금 설립 · 유럽연합은 재정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안정 구제금융기금 마련, 재정 · 경제정책 공조화, 유럽중앙은행의 부실 정부채권 매입, 대출보증기금 설립, 헤지펀드에 대한 엄격한 감독 추진 등을 연이어 발표함. (Financial Times, 5/17, 5/18)
제83호 (5. 31)	유럽연합, 은행세 부과 초안 발표 · 유럽연합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로부터 미리 은행세를 거둬들인 뒤 이를 국가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힘 (Financial Times, 5/26)
제84호 (6. 7)	유럽중앙은행, 남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경고 · 유럽중앙은행(ECB)은 남유럽발 재정적자 위기가 유로지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ECB, 5/31, Financial Times, 5/31)
제85호 (6. 14)	유로지역, 재정안정 구제금융 방안 합의 · 유로지역 16개국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7,500억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구제금융기금을 마련하고 이중 4,400억유로는 유로지역 국가가 조달하기로 결정함. (AP, 6/7, Financial Times, 6/8)
제86호 (6. 21)	유럽정상,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공개 결정 · 27개국 유럽정상들은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그간 실시해 온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공개하기로 결정 (Financial Times, 6/16, 6/17)
제87호 (6. 28)	유럽중앙은행, 긴축 재정정책 강조 ·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지역의 재정지출 감도를 강화하고, 정부채권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억제하며, 규정된 정부 지출규모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함. (ECB, 6/21, Financial Times, 6/21)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75호 (4. 5)	니혼생명, 2013년까지 자기자본 7조원 확충 · 니혼생명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FY2013까지 약 6천억엔(한화 7조 3천억원 규모)을 확보하기함. (마이니치신문, 3/25)
제76호 (4. 12)	손보업계, FY2010 최대 화두는 해외시장 진출 · 최근들어 손해보험업계는 자국 보험시장에서의 성장 정체를 만회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신흥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4/2)
제77호 (4. 19)	도쿄해상HD, 사우디아라비아에 생·손보 합작사 설립 · 도쿄해상홀딩스는 최근 일본 보험회사로는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생·손보 겸영 보험회사를 설립해 이르면 금년부터 영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신일본보험신문, 4/7)
제78호 (4. 26)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세 지속 · 손해보험업계가 공개한 FY2009 3분기(2009년 10~12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순조롭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보험매일신문, 4/14)
제79호 (5. 3)	대형 손보사, 친환경차량 보험료 할인 시행 ·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부분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 중인 가운데, 도쿄해상니치도화재와 손해보험재팬이 조만간 하이브리드차량 등의 친환경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것으로 알려짐. (스포니치, 4/20)
제80호 (5. 10)	MS&AD홀딩스, 라오스 보험시장 진출 · 미츠이스미토모해상·아이오이손보·닛세이도와손보가 통합해 생긴 MS&AD인슈어런스그룹홀딩스는 최근 일본 보험회사로는 최초로 라오스에 지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보험사업을 시작함. (FujiSankei Business I, 5/5)
제81호 (5. 17)	일본은행, 유럽발 재정위기에 선제적 대응 · 일본은행은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금융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6개 은행과의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일본은행 홈페이지, FujiSankei Business I, 5/11)

■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2호 (5. 24)	유럽발 재정위기로 생보업계 배당금 동결 전망 · 니혼생명 등 일본의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조한 자금운용 등을 이유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됨. (FujiSankei Business I, 5/8, NHK, 5/12)
제83호 (5. 31)	일본은행, ‘유럽발 재정위기 영향 제한적일 것’ ·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함. (FujiSankei Business I, 로이터, 5/25)
제84호 (6. 7)	FY09 생보업계, 연금 · 방카슈랑스로 희비 엇갈려 ·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이 발표한 FY2009(2009년 4월~2010년 3월) 실적에 따르면, 연금 및 방카슈랑스 부문에서 판매 호조를 보인 보험회사들이 양호한 영업 실적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 (FujiSankei Business I, 요미우리신문, 5/31)
제85호 (6. 14)	새 내각, 재정건전성 강화 및 탈디플레이션 경제정책 기초 · 새로 출범한 간 나오토 내각은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간접세를 인상하는 한편,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 홈페이지, FujiSankei Business I, 6/8)
제86호 (6. 21)	주요 손보사, FY2009 경상이익 흑자 기록 · FY2009 실적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은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보증보험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 개선 효과 등으로 경상이익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FujiSankei Business I, 6/15)
제87호 (6. 28)	정부, 세금인상 포함된 재정운영전략 발표 · 간 나오토 내각은 심각해지고 있는 정부 재정적자 현상을 타개하고자 2020년까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한 ‘재정운영에 관한 신전략’을 발표함. (후지일보, 6/23)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75호 (4. 5)	상하이 해운보험시장, 중국계-외자계 경쟁 치열 · 작년 중국정부가 상하이를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외자계 보험회사들의 해운보험시장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음. (재경망, 3/28)
제76호 (4. 12)	뉴욕생명, 중국시장에서 완전 철수 전망 · 합자생보회사인 하이얼뉴욕생명(海爾紐約人壽)의 대주주인 미국 뉴욕생명이 조만간 중국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국경영보, 3/28)
제77호 (4. 19)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해진 대형 손보사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금년 1~2월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중소보험회사들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1세기경제보도, 4/8)
제78호 (4. 26)	보감회, 보험회사간 영업망 공동 이용 규정 발표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중개채널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험회사 상호대리업무 관련 사항의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중국증권망, 4/16)
제79호 (5. 3)	보감회, 보험업계 자금세탁 관리 강화 요구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5월까지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감사현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상해증권보, 4/20)
제80호 (5. 10)	재난빈발로 농업보험 유명무실 · 중국 서남부 지역에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자 이들 지역의 농업보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음. (21세기경제보도, 5/3)
제81호 (5. 17)	외자계 보험사, 방카슈랑스 실적으로 희비 엇갈려 ·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금년 1/4분기(2010년 1~3월) 실적에 따르면, 외자계 보험회사들 중 부동의 1위사였던 AIA가 4위로 밀려나고 하위권이었던 광따용밍생명이 2위에 진입하는 등 순위 변동이 크게 일어남. (남방도시보, 5/6)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2호 (5. 17)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추가 인상 ·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금년들어 세 번째로 지급준비율을 인상함. (중국신문망, 5/2, 신경보, 5/13)
제83호 (5. 31)	미·중 전략회의, 위안화 절상 주요 의제에서 제외 · 중국과 미국은 5월 26일 폐막된 제 2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작성함. (북경주보, 상하이증권, 5/26)
제84호 (6. 15)	중국외환관리국, 유로화 채권 매각설 일축 ·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화 가치 급락으로 제기된 중국 정부의 유로화 채권 매각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키자, 중국외환관리국은 이례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나섬. (중국외환관리국 홈페이지, 경제참관보, 5/31)
제85호 (6. 14)	핑안손보, 전화판매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성공 신화 ·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핑안손보가 전화판매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업계 최초로 4년 연속 연평균 100% 성장률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 (중화공상시보, 5/28, 중국보험보, 6/7, 베이징상보, 6/9)
제86호 (6. 21)	물가상승 우려 불구 하반기 긴축재정 완화 전망 ·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해 정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시보, 6/13)
제87호 (6. 28)	대형사, 방카슈랑스시장 진출 본격화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실적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주춤하던 방카슈랑스시장 규모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관찰보, 6/21)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4.4	3.3	-3.3	-4.3	-2.2	1.0	6.0	8.1
경상수지	-411.5	-8,329.7	7,831.3	8,618.2	13,097.4	10,395.5	10,556.5	1,335.2
수 출	114,492	115,000	93,071	74,421	90,360	94,781	103,971	101,335
수 입	114,793	122,901	91,528	71,418	73,970	84,845	92,852	97,973
실업률	5.32	5.85	4.68	3.64	3.89	4.30	4.34	4.14
금리	국고채(3년)	6.27	7.19	8.29	6.85	5.35	5.59	5.46
	회사채(3년)	8.92	10.09	11.79	12.16	11.55	11.72	11.62
소비자물가지수	109.6	111.1	110.8	111.6	112.7	113.3	113.5	114.6
환율	원/달러	1,043.4	1,187.7	1,257.5	1,377.1	1,284.7	1,188.7	1,167.6
	원/엔화	981.8	1,144.2	1,393.9	1,414.8	1,336.3	1,318.8	1,262.8
KOSPI	1,674.9	1,448.1	1,124.5	1,206.3	1,390.1	1,673.1	1,682.8	1,692.9
외환보유고	258,098	239,672	201,223	206,340	231,735	254,247	269,995	272,331

주 : 환율, 추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2/4	3/4	4/4	1/4	2/4	3/4	4/4	1/4
보 험	20,865	-14,426	-4,352	-14,909	29,281	-1,416	12,147	-21,616
- 생 보	14,533	-12,340	-4,342	-10,321	21,486	-1,650	12,926	-19,251
- 손 보	6,332	-2,086	-10	-4,588	7,795	234	-779	-2,365
은 행	21,326	-87,115	48,920	-55,887	77,277	64,167	-161,023	95,462
- 일 반	148,250	-145,756	73,186	-30,842	58,172	36,531	-179,530	73,991
- 신 탁	-126,924	58,641	-24,166	-25,045	19,105	27,636	18,507	21,471
증 권	41,239	-45,641	1,156	78,230	-44,155	-3,121	-78,734	89,869
투 신	-138,816	-406,191	352,172	76,686	-377,027	-167,127	141,605	248,104
총 금	8,467	-98,880	60,172	30,186	-99,222	-11,709	68,914	45,191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5,115	35,842	140,714	34,389	37,016	40,807	40,908	153,119
	성장률	-1.1	-3.8	-0.5	-0.2	4.8	16.2	14.1	8.8
	구성비	17.9	20.3	19.1	19.6	20.6	18.2	21.4	19.9
사망	보험료	73,160	72,397	294,531	71,889	72,647	72,632	72,330	289,498
	성장률	-2.7	-3.5	-1.1	-3.9	-2.1	-0.7	-0.1	-1.7
	구성비	37.2	41.1	40.0	41.0	40.5	32.5	37.8	37.6
생사 혼합	보험료	15,870	19,467	66,365	18,096	19,321	21,248	23,387	82,052
	성장률	-5.3	20.2	0.5	18.5	22.6	33.9	20.1	23.6
	구성비	8.1	11.0	9.0	10.3	10.8	9.5	12.2	10.7
변액 보험	보험료	42,221	40,318	175,916	40,885	42,100	44,375	44,522	171,882
	성장률	-12.3	-10.8	1.2	-13.7	-8.4	5.1	10.4	-2.3
	구성비	21.5	22.9	23.9	23.3	23.5	19.8	23.3	22.3
개인계	보험료	166,366	168,024	677,526	165,260	171,085	179,061	181,145	696,551
	성장률	-5.2	-3.3	-0.2	-3.9	-0.1	7.6	7.8	2.8
	구성비	84.7	95.3	92.1	94.3	95.4	80.1	94.6	90.5
단 체	보험료	30,099	8,299	58,087	9,908	8,287	44,544	10,277	73,017
	성장률	-25.0	-24.6	-19.2	-9.5	-5.2	48.0	23.8	25.7
	구성비	15.3	4.7	7.9	5.7	4.6	19.9	5.4	9.5
합 계	보험료	196,465	176,323	735,614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성장률	-8.9	-4.5	-2.0	-4.2	-0.3	13.8	8.6	4.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 존	지급보험금	37,527	28,276	9,899	20,832	20,875	21,283	22,101	85,090
	증가율	25.4	0.5	14.9	-8.8	-33.2	-43.3	-21.8	-29.0
	지급률	106.9	78.9	85.2	60.6	56.4	52.2	54.0	55.6
사 망	지급보험금	39,016	41,300	146,996	37,161	39,103	35,853	37,182	149,298
	증가율	18.5	23.3	18.8	18.5	10.7	-8.1	-10.0	1.6
	지급률	53.3	57.0	49.9	51.7	53.8	49.4	51.4	51.6
생사 혼합	지급보험금	19,304	15,351	71,622	12,802	14,843	23,144	19,768	70,557
	증가율	-45.8	-42.3	-30.4	-31.7	-18.6	19.9	28.8	-1.5
	지급률	121.6	78.9	107.9	70.7	76.8	108.9	84.5	86.0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16,765	14,032	59,597	14,922	21,046	21,928	23,385	81,281
	증가율	-10.3	0.4	1.0	0.3	51.2	30.8	66.6	36.4
	지급률	39.7	34.8	33.9	36.5	50.0	49.4	52.5	47.3
개인계	지급보험금	112,612	98,959	398,114	85,717	95,867	102,208	102,435	386,227
	증가율	-3.9	-3.2	2.1	-2.4	-2.9	-9.2	3.5	-3.0
	지급률	67.7	58.9	58.8	51.9	56.0	57.1	56.5	55.4
단 체	지급보험금	21,485	25,317	77,324	15,917	11,625	36,589	23,430	87,562
	증가율	50.7	41.0	31.8	-0.3	-20.2	70.3	-7.5	13.2
	지급률	71.4	305.1	133.1	160.7	140.3	82.1	228.0	119.9
합 계	지급보험금	134,097	124,276	475,438	101,634	107,492	138,797	125,865	473,789
	증가율	2.0	3.4	5.9	-2.1	-5.1	3.5	1.3	-0.3
	지급률	68.3	70.5	64.6	58.0	59.9	62.1	65.8	61.6

주 :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 존	사업비	8,717	6,060	32,602	6,878	7,674	8,288	7,620	30,460
	증가율	6.1	-27.6	3.9	-18.4	-18.3	-4.9	25.8	-6.6
	사업비율	24.8	16.9	23.2	20.0	20.7	20.3	18.6	19.9
사 망	사업비	17,772	16,382	70,989	17,664	18,311	19,533	18,283	73,791
	증가율	-13.4	-21.0	-8.0	-3.9	-0.7	9.9	11.6	3.9
	사업비율	24.3	22.6	24.1	24.6	25.2	26.9	25.3	25.5
생사 혼합	사업비	6,386	4,721	25,954	4,874	4,869	5,237	5,025	20,005
	증가율	-13.7	-35.6	-3.0	-34.6	-34.1	-18.0	6.5	-22.9
	사업비율	40.2	24.2	39.1	26.9	25.2	24.6	21.5	24.4
개 인 계	사업비	32,875	27,162	129,544	29,417	30,853	33,058	30,929	124,256
	증가율	-9.0	-25.4	-4.3	-14.2	-12.4	0.6	13.9	-4.1
	사업비율	19.8	16.2	19.1	17.8	18.0	18.5	17.1	17.8
단 체	사업비	925	782	3,519	874	862	1,008	985	3,729
	증가율	-5.5	-20.6	0.3	2.2	-9.9	9.0	25.9	6.0
	사업비율	3.1	9.4	6.1	8.8	10.4	2.3	9.6	5.1
합 계	사업비	33,800	27,944	133,063	30,290	31,715	34,066	31,914	127,985
	증가율	-8.9	-25.3	-4.1	-13.8	-12.4	0.8	14.2	-3.8
	사업비율	17.2	15.8	18.1	17.3	17.7	15.2	16.7	16.6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792	710	2,835	654	632	798	679	2,763
	성장률	-9.8	-8.4	-7.8	-6.6	-0.1	0.7	4.3	-2.5
	구성비	0.8	0.7	0.8	0.7	0.6	0.7	0.6	0.6
해 상	보험료	2,564	1,864	8,507	2,215	2,009	1,858	1,967	8,049
	성장률	72.6	23.1	20.9	2.2	5.1	-27.5	5.5	-5.4
	구성비	2.6	2.0	2.3	2.2	1.9	1.5	1.7	1.8
자동차	보험료	27,574	26,554	109,371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성장률	-1.2	-3.2	1.2	-0.6	1.4	3.3	6.4	2.6
	구성비	27.8	28.0	29.2	27.2	26.9	23.7	25.0	25.6
보 증	보험료	2,821	2,966	11,529	3,165	2,890	3,106	3,126	12,287
	성장률	8.4	15.3	16.0	12.5	-1.3	10.1	5.4	6.6
	구성비	2.8	3.1	3.1	3.2	2.7	2.6	2.8	2.8
특 종	보험료	7,668	6,754	29,119	8,345	8,422	8,919	7,606	33,293
	성장률	2.8	4.3	6.9	15.8	12.5	16.3	12.6	14.3
	구성비	7.7	7.1	7.8	8.3	8.0	7.4	6.7	7.6
해 외 원보험	보험료	637	580	1,781	383	500	661	534	2,078
	성장률	113.9	51.3	58.4	71.1	46.6	3.8	-7.9	16.7
	구성비	0.6	0.6	0.5	0.4	0.5	0.6	0.5	0.5
장 기 손 해	보험료	47,761	49,749	188,829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성장률	14.7	14.9	15.5	18.3	23.3	24.5	27.0	23.4
	구성비	48.1	52.5	50.4	53.1	54.5	49.5	55.9	53.2
개 인 연 금	보험료	3,394	3,449	12,853	3,654	4,048	4,971	5,169	17,841
	성장률	29.1	27.1	28.6	25.7	30.4	46.5	49.9	38.8
	구성비	3.4	3.6	3.4	3.7	3.9	4.1	4.6	4.1
퇴 직 보 험	보험료	4,770	1,110	6,807	758	521	6,828	573	8,680
	성장률	-21.1	18.7	-17.6	46.4	27.3	43.1	-48.4	27.5
	구성비	4.8	1.2	1.8	0.8	0.5	5.7	0.5	2.0
퇴 직 연 금	보험료	1,238	939	3,322	534	541	5,049	1,994	8,119
	성장률	-1.5	75.2	55.7	-29.4	39.3	307.9	112.4	144.4
	구성비	1.2	1.0	0.9	0.5	0.5	4.2	1.8	1.9
계	보험료	99,218	94,674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성장률	7.6	9.3	10.3	11.7	14.9	21.1	19.4	16.9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7.7	37.9	32.4	37.1	54.3	39.9
	사업비율	47.9	35.8	49.1	16.6	43.5	36.3
	합산비율	95.6	73.7	81.5	83.8	97.7	76.3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82.5	301.8	82.4	89.0	85.4	81.9
	사업비율	20.9	29.8	24.1	26.3	44.2	36.2
	합산비율	103.4	331.6	106.5	115.4	129.6	118.1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78.5	43.6	66.1	47.9	31.5	88.0
	사업비율	19.1	28.3	15.6	23.7	21.6	15.5
	합산비율	97.6	72.0	81.8	71.6	53.0	103.4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9.0	68.3	61.4	67.2	63.0	57.4
	사업비율	24.3	27.4	26.0	18.6	24.4	32.6
	합산비율	93.3	95.7	87.4	85.8	87.4	90.0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8.8	50.5	39.2	29.0	29.0	35.2
	사업비율	56.4	66.7	61.9	56.5	60.0	77.3
	합산비율	105.2	117.2	101.1	85.5	89.0	112.6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84.1	93.7	57.9	60.0	60.2	59.3
	사업비율	28.9	26.4	28.7	27.5	30.1	26.8
	합산비율	113.0	120.1	86.6	87.5	90.3	86.1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2.1	69.7	71.0	74.1	79.0	78.6
	사업비율	31.0	30.9	30.3	29.9	31.7	31.7
	합산비율	103.0	100.6	101.3	104.0	110.7	110.3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79.0	78.0	78.9	78.5	80.1	81.5
	사업비율	22.5	27.0	21.8	22.9	17.0	17.5
	합산비율	101.5	105.0	100.7	101.5	97.1	99.0
전 체	경과손해율	75.9	76.4	74.2	74.9	76.7	78.2
	사업비율	25.5	28.4	24.8	25.2	22.5	22.8
	합산비율	101.4	104.9	98.9	100.1	99.1	100.9

주 :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1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류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4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4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6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키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년 4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계간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보험통계월보 (월간)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영문보고서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0년 여름호 (통권 54호)

발행일 2010년 7월 일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대화인쇄 /02-2265-1330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7, 3775-90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